M46-4-4/2003.1
제4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일반인이 북한 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연구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 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70 전송 02-965-695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이정연 sabrina@krei.re.kr 02-3299-4370

목 차

포커스

-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 전망 / 3

동향분석

1. 축 산 / 23
2. 산 림 / 35
3. 감자 농사 / 43
4. 이모작 / 51
5. 양 어 / 59
6. 기타 보도동향 / 64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85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85
  2. 대북한 지원 동향 / 96
  3. 교류협력사업 동향 / 100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01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05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 105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13
  3.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119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25
- 금강산관광지구법 / 131
- 개성공업지구법 / 135

M46-4-4 KREI 북한농업동향 제4권 제4호

찍 은 날	2003. 1.	펴낸날	2003. 1.
발 행 인	이 정 환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포 커 스

-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 전망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 전망

권 태 진 (연구위원, kwontj@krei.re.kr)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간, 간척, 다락밭 건설 등 무리하게 농지를 확장하였으며 곡물 위주의 단작 생산체계와 고투입, 밀식 생산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게되자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개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식량사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성장과 농업개발만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농업개발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대북 지원에 대해 피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하반기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감소하여 수혜자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다. 어린이, 임신부 및 수유부, 노인 등 북한 주민의 1/3가량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북한 어린이 3명 중 1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식량 공공배급 대상이 되는 주민들도 1일 분배량이 최소영양요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줄어든 원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내의 지원대상자 선별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002년 국제사회는 유엔합동호소를 통하여 2억 1,979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 중 90% 이상은 식량지원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농업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농업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액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이후 북한 농업부문에 대해 실제로 지원이 이루진 것은 당초 목표액의 5.9%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국제기구, 개별국가, 민간지원단체 등을 통하여 북한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 북한은 7.1경제관개선조치, 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대북 원조가 중단되거나 유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그 어느 해 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유엔기구들은 2003년의 대북 지원 목표를 2억 2,529만 달러로 정하고 유엔합동호소를 통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만일 북한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인도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북한의 농업과 인도적 상황

북한의 농업 상황

북한은 불리한 자연여건에다 농업에 대한 투자도 미흡하여 생산기반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기술 수준도 낙후되어 있다. 비효율적인 계획생산과 분배 방식에다 생산수단인 토지와 농기계 등 모든 것이 집단 또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는 것도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다. 1960년대 초반에 설치된 관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은 이미 노후화 되었고 1990년대 중반의 계속된 기상재해로 인해 많은 시설이 붕괴 내지는 파괴되어 아직까지 완전하게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중 수리안전답 비율은 56%, 옥수수 재배면적 중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31%에 불과하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절반 이상은 시급히 교체해야할 상태이다.

북한은 1970-80년대를 통하여 농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간, 간척, 다락밭 건설에 치중하였으나 1990년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투자재원을 찾지 못해 농지의 외연적 확대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농지 확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30만 정보의 간척지개발은 실제 6~7만 정보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하였다. 새땅찾기운동의 일환으로 경사도 30°이상의 야산을 다락밭으로 개조하였으나 무리한 다락밭 건설은 농지의 유실, 매몰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농촌 야산지역에서 비밀리에 소위 뙈기밭이라고 불리는 미허가 경작지를 개발하여 식량난을 해결코자 하였으나 이 또한 산림파괴로 토사유출을 초래하여 해마다 농지를 침수 내지는 매몰, 유실시키고 있으며 저수지 바닥에 토사를 퇴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농업은 품종, 재배기술 등 시험장에서의 농업기술 개발수준은 중진국 수준이나 주체농법에 가려 생산현지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열악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품종개량을 비롯한 경종방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단보당 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수량위주의 작물 육종으로 농산물의 품질은 낮은 상태이다. 옥수수의 경우 사료용이 주류를 이루며 쌀의 품질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말부터 농지를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지의 이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어 2모작 재배의 확대와 간작 및 혼작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다. 과거 과도한 비료의 투입과 약탈적 농업을 지속한 결과 초래된 토지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물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지이용도 증가로 그 효과는 상쇄되고 있으며 농지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투입물의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료, 농약, 농기계 생산공장의 가동이 거의 중단되고 있어 이들 농자재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은 외환 부족으로 필요한 영농자재를 수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농자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상당한 수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으나 유류 부족, 부품 부족으로 농기계의 가동률이 매우 낮으며 에너지 효율이 낮고 노후화로 농기계의 대체가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소량의 트랙터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으며 에너지 부족이 계속되는 한 농기계 이용을 증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종자 생산 기술과 종자보급 체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종자의 질이 낮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식량생산량이 400만 톤이던 것이 한 때 27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360~380만 톤으로 회복되었다<표 1>. 그러나 낮게 추정하더라도 연간 식량 소요량은 500만 톤에 이르기 때문에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만 한다. 북한은 식량위기 이후 대부분의 부족량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생산이 감소한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사정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진입하면서 동맹국이었던 동구권과 구소련, 그리고 중국 등과의 교류와 협력이 차단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부터 집중 투자된 중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도입과 유류를 구입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사정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산업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이와 관련된 농업부문 관련 산업들의 침체를 가져와 농업생산에

표 1 1995~2002년 북한의 식량수습 추이

단위: 천 톤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국내공급량	4,077	2,995	2,663	3,481	3,420	2,920	3,656	3,840
생산량	4,077	2,837	2,663	3,481	3,420	2,920	3,656	3,840
이월량	n.a.	158	n.a.	n.a.	n.a.	n.a.	n.a.	n.a.
소요량	5,988	5,359	4,614	4,835	4,751	4,785	4,957	4,921
식용	3,688	3,798	3,874	3,925	3,814	3,871	3,855	3,893
사료용	1,400	600	300	300	300	300	300	178
기타	900	961	440	610	637	614	802	851
부족량	1,911	2,364	1,951	1,354	1,331	1,865	1,301	1,084
상업적 수입량	700	500	700	300	210	200	100	100
원조량	630	660	760	840	586	1,100	819	300
절대부족량	581	1,204	491	214	535	565	382	684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6-2002(각 연도).

필수적인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등 농자재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농업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나 일찍이 농업의 집단화 과정에서 농지를 대규모화하였으므로 농기계 없이는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극심한 유류 부족과 부품공급 부진 등으로 농기계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대부분의 농기계가 노후화 내지는 거의 쓸모가 없게 됨으로써 농업부분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집단농장체제에서 오는 생산성의 저하이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현상이다. 1980년대는 최근에 비해 식량 사정이 훨씬 좋았던 것은 사실이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집단농장체제하의 노동능률의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한 예로 북한정부가 허용한 개인처분이 가능한 텃밭의 단위당 수량이 집단농장의 2~3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북한 주민의 주식인 쌀, 옥수수 육종수준이 중진국 이상이면서 생산량이 낮은 것은 집단농장체제에 따른 능률 저하에 기인하는 바 크다.

세 번째는 김일성의 주체농법이 북한농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주체농법은 김일성 교시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북한의 지역특성과 자연조건에 따라 적합한 농작물을 선택하여 적기에 재배하도록 개발한 농법이라고는 하나 이는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과학적 검정절차나 이론적 배경 없이 농촌현지에서 즉흥적으로 농민에게 언급하는 농사지도 방법에 불과하다. 그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벼, 옥수수, 담배 등의 밀식재배와 다락밭 건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추진된 고투입의 밀식재배와 다락밭 건설은 오히려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네 번째는 연료난에 따른 산림의 황폐화가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게 되었다. 즉, 경제사정 악화는 도시나 농촌 모두 연료난을 가중시켜 산림훼손을 초래하고, 식량확보를 위한 무리한 산지 개간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을 황폐화시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매년 홍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토사유실은 평탄지의 논밭까지 영향을 미쳐 농경지를 매몰시키기도 한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

사회주의 시장의 해체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아직까지 인도적 상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련의 자연재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2002년 북한 당국은 국영기업의 관리 및 가격개혁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감소를 역전시키려는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신의주특별행정

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를 차례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취약계층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계속된 식량 불안정, 사회 지원의 약화에 따른 누적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20만 명의 여성, 300만 명에 달하는 열 살 이하의 어린이, 가정의 식량 불안정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55만 명의 노인들이 이러한 취약계층에 속한다.[1] 북한 주민 2,227만 명 중 상당한 비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이중적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인 보건, 물, 위생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해 더욱 심각하다. 특히 열악한 보건 서비스로 인해 665,000명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2년 11월 세계식량계획의 총재와 대변인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변인인 보우크(Gerald Bourke)는 함경북도에 있는 김책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25명 대부분이 옥수수를 먹고 있으며 지난 한달 동안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는 학생은 3명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한달 동안 옥수수 이외에 계란 한 알과 약간의 채소를 먹어본 것이 고작이었다고 전하고 있다.[2] 이는 북한 당국이 2000년 5월 5세 이하의 북한 어린이 가운데 4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1998년 9월과 10월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그 당시 6개월에서 7세에 이르는 북한 어린이의 2/3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16%는 위험한 영양실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1~2세 사이의 고아원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른들의 영양상태도 어린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6월 이후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 1인당 1일 식량 배급량은 고작 250~350g에 불과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영양섭취량인 700g에 턱없이 부족하다. 1995년 이후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어 왔으며 특히 1995년과 1997년 사이에는 더욱 고통스런 상황이 벌어졌다.

2년 연속의 좋은 작황에 힘입어 북한은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가구 수준의 식량안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도시 주민은 식량 구입능력, 시장의 불충분한 식량 공급, 다양하지 못한 먹거리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중장기적으로 가구의 식량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국가 내 취약계층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므로 인도적 지원계획의 전환과 유연한

---

1 United Nations,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2003 for the DPRK*, New York and Geneva, Nov. 2002.

2 *http://www.reliefweb.int(JoongAng Ilbo, DPR Korea: Famished and ill, children suffer most in North's food crisis, 10 Jan., 2003)*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2003년 양곡연도에 농민에게는 1일 600g씩 연간 219kg을 분배할 것이라고 한다. 이 양은 가구의 평균 곡물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이다.[3] 농민들은 이 외에도 텃밭이나 경사지에서 추가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도시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식량안보와 훨씬 다양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식량 사정도 일반 도시민에 비해 훨씬 나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는 식량사정이 훨씬 취약하다. 북한 당국은 2003년에 공공배급제도를 통해 1인당 270g 정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양은 매일 필요한 에너지의 45%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4] 나머지 55%는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인 식량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시 주민은 공공배급제도, 국영상점, 농민시장으로부터의 상품 구입을 포함하여 식량을 구입하는 데만 소득의 75-85%를 지출해야 한다. 이것은 국영농민들의 20-35%, 협동농장 농민들의 이 보다 더 적은 부담과 비교된다. 노인들도 식품 조달에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취약계층 노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연금 소득의 60-70%를 지불해야 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발생한 초과 노동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능력과 국가의 하부구조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북부와 북동부지역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도 요구된다.

유엔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의 특사 자격으로 최근 북한을 방문한 모리스 스트롱(Maurice Strong)은 현재 8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만큼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어렵다고 경고하였다.[5] 그는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인도적 위기 상황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힘없고 불쌍한 취약계층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001년 만하더라도 일본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원조의 절반을 부담하였으나 2002년에는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버렸다. 일본은 북일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001년

---

3 United Nations,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2003 for the DPRK*, New York and Geneva, Nov. 2002.

4 United Nations,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2003 for the DPRK*, New York and Geneva, Nov. 2002.

5 *http:/www.reliefweb.int(AFP, Eight million in life or death humanitarian crisis in N Korea, 18 Jan., 2003)*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340,000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였으나 2002년에는 불과 155,000톤만을 지원하였다. 2002년 6월 미국은 북한이 세계식량기구가 더 많은 군에 접근할 수 있고, 배급 지역을 임의로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식량이 분배된 기관 명단을 세계식량기구에 제공한다면 더 많은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6]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동향

다자간 대북 지원 동향

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국제기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개시하였다. 유엔기구의 북한에 대한 지원 방식이 처음에는 개별 기구 단위로 시도되다가 점차 기구간 연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기구간 통합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한 국제기구로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농업기금(IFAD) 등이 있다. 이들 기구들은 합동호소절차(CAP, Consolidated Appeals Process)를 통해 유엔 기구간 합동호소(UN Inter-Agency Consolidated Appeal)라는 방식으로 매년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1995년 이후 2002년 말까지 유엔합동호소에 의해 북한을 지원한 금액은 12억 2,768만 달러에 이른다<표 2>. 유엔합동호소에 의해 대북 지원이 달성된 비율은 지원 목표의 65.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02년의 경우 당초 목표 대비 실제 지원된 금액은 89.0%로 1995년 이후 가장 높았다<표 2>. 이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기구를 통한 주요 원조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 등이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 초기에는 식량을 위주로 지원하다가 점차 보건 및 의료, 농업개발 지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때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대북 지원 요청액 중 농업부분 비율이 30%를 넘어선 적이 있으나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점차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요청액과 실제 지원액을 비교해보면 1998~2002년 평균 5.9%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3>. 그리고 실제 지원액도 1998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2년에는 15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유엔기구를 통한 지원액의 90% 이상은 식량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그 동안 유엔기구는 북한에 대한 단기 식량 지원 이외에도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개발지원도 병행해 왔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식

---

6 *http://www.reliefweb.int(WFP, DPRK operation: funding crisis threatens more cutbacks in distribution of food aid, 7 Jan., 2003)*

량농업기구(FAO)는 1999년부터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사업(AREP)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투입물 프로그램, 농촌복구, 비료산업 재건, 산림 및 환경보호,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의 틀 안에서 개별 유엔기구, 개별 국가, 비정부조직이 각각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년도에는 이모작사업, 조림사업, 방조제 복구사업, 토끼 생산사업, 영양개선을 위한 온실사업 등에 총 3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2002년에는 이모작사업, 환경보호 및 복구사업, 종자증식사업 등에 총 150만 달러만이 지원됨으로써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였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1995년부터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잠업개발사업, 작물

표 2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2.12.31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1]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70	79.5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9, EU 860 등
3차 '97.4~12	18,439	15,781	85.6	미국 4,537, 일본 2,700, 한국 2,633, EU 2,752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EU 1,380, 한국 1,100, 캐나다 395, 노르웨이 239, 이집트 280, 호주 132, 체코 2 등
5차 '99.1~12	29,208	18,980	65.0	미국 17,50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호주 270, 노르웨이 200,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263	48.6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80	64.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5, 스위스 222, 노르웨이 212,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2] '02.1~12	24,684	21,979	89.0	미국 6,347,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노르웨이 176, 영국 171, 독일 135, 덴마크 103, 핀랜드 70, 룩셈브르크 56 등
총 계	186,825	122,768	65.7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지원을 약속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2)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표 3 유엔합동호소의 농업개발지원 규모

단위 : $

연 도	유엔합동호소 요구액			농업부문 지원액 (C)	C/B(%)
	총 액(A)	농업부문(B)	B/A(%)		
1998	415,648,979	23,053,825	5.5	6,041,274	26.2
1999	274,754,894	118,991,422	43.3	3,085,466	2.7
2000	197,466,381	63,137,389	32.0	3,035,948	4.8
2001	386,339,454	46,224,259	12.0	2,263,229	4.9
2002	258,138,111	19,111,646	7.4	1,525,017	8.0
합 계	1,532,347,819	270,518,541	17.7	15,950,936	5.9

자료: United Nations,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2003 for the DPRK*, New York and Geneva, Nov. 2002.

및 축산 복구사업,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잠업개발사업은 협동농장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기술을 지원하여 잠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업을 현대화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협동농장의 누에사육 확대, 잠종 및 뽕나무 묘목 연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인력 및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1995년 시작되어 2002년 6월 완료되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이 북한의 농업개발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585개의 협동농장에 비료, 농약, 트랙터 부품 등 주요 농업 투입물을 지원하는 작물 복구사업과 가금 사육, 농촌 신용대출, 염소 방목지 개발, 사료공장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 복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을 통해 해당 협동농장의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며 소규모 가축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개별 농가에 대한 소규모 대출사업은 북한체제에서는 이례적인 사업으로 농가의 개별 경영능력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은 2001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소득이 낮고 식량사정이 어려운 전작지대의 46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 작물생산체계 구축, 씨감자 공급, 개별가구 및 협동농장에 대한 대출사업,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 환경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97년부터 북한의 식량생산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긴급농업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핵심사업의 하나인 이모작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AREP사업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FAO는 감자생산 지원사업, 녹비작물 재배사업, 토양검정사업, 종자 검사센터 설립, 채소 재배기술 개선사업, 전작지대 소규모 수로관리사업, 토양분석 및 비료 개선사업, 소규모 유가공 처리능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개별국가의 대북 지원 동향

2002년 남북한은 서울에서 제2차 남북한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한은 2000년 6월 15일 발표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차 확인하고 경제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총 5억 3,87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 중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1995년 쌀 15만 톤, 1999년 비료 15.5만 톤, 2000년 비료 30만 톤, 2001년 비료 20만 톤, 2002년 비료 30만 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쌀 40만 톤을 차관 형태로 지원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 비료, 에너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1997년 중국은 북한

에 대하여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 등 176,905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원조하였다. 1998년에는 밀가루나 옥수수는 제외되고 옥수수 64,540톤, 쌀 24,500톤, 대두 28,229톤 등 총 117,269톤, 2001년에는 대두 14,000톤, 2002년에는 대두 15,000톤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중국은 식량이외에도 1998년 10월 북한에 80,000톤의 원유를 무상으로 원조하기로 약속하고 59,500톤은 1998년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1999년 초에 지원하였다. 중국은 1998년에 20,000톤의 질소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비료나 원유의 무상 지원을 줄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2년 비정부조직을 통해 유엔합동호소에 동참한 것 이외에 북한에 123,785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일본은 2002년 다자간 협력 및 양자간 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양자간 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상당한 양의 식량을 지원해왔다.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지원 동향

민간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추진된다. 개별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유엔합동호소에 참여하여 비상주 민간지원단체나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원조단을 통해 지원한다. 비상주 민간지원단체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지원중개단(FALU)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농업을 지원하는 주요 민간지원단체는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CRWRC(The Christian Reformed World Relief Committee), Cocern Worldwide, Heifer International, KASM(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 LWR(Lutheran World Relief), Mercy Corps,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V(World Vision) 등이 있다. AFSC는 협동농장에 대해 비료, 농기구, 종자를 지원하였으며 녹비작물 생산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AFSC는 미국의 긴급구호단체인 MCC(Mennonite Central Committee)와 함께 북한 농민을 미국에 초청하여 농장을 시찰하도록 주선하였으며 농업과학자들이 미국과 중국에 시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현재 AFSC는 농업과학원과 함께 질소 비료원이 되는 생물 자원의 개발과 윤작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CRWRC는 캐나다곡물은행(CFGB)을 통하여 북한의 식량안보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에 종자와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Concern Worldwide는 1997년부터 식량안보사업, 농업복구사업, 환경보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안보사업은 협동농장에 비닐, 트랙터 타이어, 농약, 인력분무기, 채소 종자, 밀 종자, 콩 종자, 감자 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식량 증산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호사업은 양묘장에 묘목과 양묘를 위한 기구를 제공하며 양묘 기술자를 교육시키

고 해외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WR은 2001년부터 북한의 서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농업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왔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과학자들을 훈련시키고 영농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여 토양비옥도를 증진시키고 비화학적 시비기술을 개발하며 종자의 유전적 특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포함한다. SDC는 1995년부터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01년부터 SDC는 인도적 지원에서 농업개발협력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였다. SDC는 향후 4년 동안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능력배양사업과 녹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사업은 종자생산, 종자 및 품종시험, 종자보증을 위한 시험소 설립, 작물 윤작, 작물 관리, 병해충종합관리(IPM), 농장관리와 지력증진을 위한 유축농업, 농기구 지원, 소규모 가공공장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WV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과 함께 수경재배를 통한 씨감자 생산, 채소생산을 위한 온실 건설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WV는 북한의 농업과학자들에게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자원기구연합(PVOC)은 Amios International, CARE, CRS(Catholic Relief Service), MCI(Mercy Corps International), WV(World Vision) 등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지원단체의 컨소시엄이다. 미국 정부의 직접지원이 있기 전 PVOC는 미국정부가 WFP를 통해 식량을 지원할 때 취로사업 등에 참여하였다. 취소사업은 주로 방조제 및 관개수로의 건설과 복구사업, 토지 평탄작업, 조림, 수계 관리 등에 집중되었다. 1999년부터 PVOC는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씨감자 증식사업, 감자 생산사업에 참여하였다. 1999년 4월 감자 및 식량 전문가로 구성된 PVOC 기술팀은 북한을 방문하여 감자 생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취로사업과 연계하여 북부 지역에 있는 20여 개의 협동농장에서 감자 파종 및 수확에 관한 시범재배를 실시하였다. 시범재배를 위하여 PVOC는 중국산 및 미국산 씨감자, 비료, 농약, 분무기를 지원하였으며 취로사업에 분배할 별도의 식량을 제공하였다.

3. 2003년 대북 농업지원 전망

2003년도에는 유엔합동호소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총 225,291,675달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유엔의 합동호소를 위한 국가팀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여기에는 유엔기구, 민간지원단체, 국제적십자연맹, 상주 양자간 원조국들이 참여하였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상주 민간지원단체뿐만 아니라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지원연락단(FALU)을 통해 운영되는 비상주 민간지원단체들 대부분이 유엔합동호소를 지원하고 있다. 원조국들은 일선에서 활동하는 민간지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적 또는 복구지원 모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국내 사정과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은 아직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상황 변화가 빠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 둘째, 국제기구의 합동호소절차(CAP)는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따라 처방해야 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도적 또는 개발지원 모두 유연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03년 유엔합동호소는 유엔국가공동평가(CCA)와 유엔개발지원틀(UNDAF)에 기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고 중기적인 국가 개발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셋째, 유엔합동호소는 가용한 재원과 인적자원에 바탕을 두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인도적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넷째, 북한이 긴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신의 노력과 전략에 의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그것은 인적 능력배양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과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중유 지원을 중단하고, 이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마저도 파기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식량을 포함한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2003년도 유엔의 합동호소 내용을 사업 분야별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전체 지원액의 97.5%는 국제기구가 담당하고 나머지 2.5%는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다. 전체 지원액의 87.5%는 식량지원이며 농업지원은 2.2%, 보건 및 영양 7.6%, 교육 0.5%, 나머지는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표 4 사업분야별 유엔합동호소, 2003

분 야	소 요 액	
	국제기구	민간지원단체
식량지원	197,166,595	-
보건 및 영양	14,554,350	2,457,000
물과 위생	2,509,500	1,945,000
교육	845,250	350,000
농업	4,066,000	820,000
조정 및 지원서비스	577,980	-
합 계	219,719,675	5,572,000
총 계 (국제기구 및 민간지원단체)		225,291,675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 19 Noverber, 2002)

식량지원

2002년 9~10월 사이에 FAO/WFP 작물 및 식량 공급평가단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2002/03 양곡연도) 동안의 식량 생산량과 필요한 식량 지원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였다.[7] 평가단은 최근 2년 간 비교적 좋은 작황에 힘입어 북한 당국은 농민 1인당 연간 219kg의 곡물을 분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생산량과 양자간 협력에 의해 지원되는 식량, 차관을 통해 도입된 식량은 공공배급제도를 통해 1,500만 명의 비농민들에게 1인당 99kg 정도 배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양은 2001/02년에 비해 7.5% 정도 감소한 것이다.

2002년 7월에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경제개혁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농민시장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높은 물가 인상은 염려스럽다. 또한 기업소들이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불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노동력의 과취업 현상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북한 당국과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영양실태조사의 분석이 완료되면 영양실조의 특성과 원인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개발계획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아직도 많은 가구들은 그들의 기본 식량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식량 접근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북부 지방과 북동부 지역의 주민은 낮은 농업생산 능력 때문에 그들의 식량 조달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공공배급제도의 의존률이 매우 높고 경제활동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시 가족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식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약성이 높은 계층을 목표로 식량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식량 접근기회가 계속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북동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식량사정이 취약하다.

세계식량계획은 2002/03년 양곡연도의 국내 식량생산량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2003년 1월부터 12월 동안 북한의 64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에게 512,000톤의 식량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다<표 5>. 세계식량계획의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의 식량지원 대상은 식량 지원이 없을 경우 살아남을 수 없는 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라고 한다. 식량 지원이 중단되면 여성, 어린이, 노인들은 특히 심각한 건강

7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Nov. 2002.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표 5 2003년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품목별 대북 식량 지원 목표액

품 목	물량(톤)	금액(달러)
곡물	428,437	77,118,660
식용유	15,116	9,825,400
두류	29,621	11,848,400
설탕	7,885	2,050,100
DSM	9,179	19,275,900
CMB/CSM	21,762	5,984,550
품목 소계	512,000	126,103,010
외부 수송비		40,832,000
LTSH		4,454,400
기타 직접 운영비(ODOC)		1,450,000
직접 운영비 소계		172,839,410
직접 지원비용(DSC)		9,906,940
간접 지원비용(ISC)		12,792,245
합 계		195,538,595

세계식량계획은 특히 공공배급제도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이라고 한다.

세계식량계획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영양강화혼합식품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혼합식품 생산은 1999년부터 지방에서 개시된 이래 2002년에는 50,000톤, 2003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2003년에 취로사업을 통해 지원하려는 식량 비율은 대략 13%이며 이는 주로 복구사업에 대한 일의 대가로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계층의 식량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머지 물량은 WFP와 북한 당국이 파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될 것이다. 유엔기구는 취로사업 참여자수를 725,000명, 참여자의 가족을1,45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상주 비정부조직에 의한 식량지원은 대부분 FALU(WFP 식량지원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신부와 수유부, 어린이 보호기관, 북동부 지역의 어려운 노동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할 것이다. 지원 계획, 실행, 감독, 평가의 모든 분야에서 자료의 분석과 취약성 분석을 통해 여성들에 대해 더 많은 배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 지원은 북한 당국이 실시하지만 국제기구에서 적절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분배의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당국에게 감시에 대한 제한을 줄이면서 더 많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최근 북한 내의 인도적 운영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북한 상대기관과의 정책 대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해결

되지 않은 몇 가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운영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같은 날 동일 지역에서 2개의 세계식량기구 팀이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세계식량기구 직원이 북한의 수혜자와 마주앉아 그들의 수입원, 식품, 일상생활, 식료품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 및 가족에 관한 정보는 세계식량기구가 식량지원에 대한 목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혜자 집단을 변경하는데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운영상의 개선점 중에는 통신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영양조사의 실행, 의료 문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세계식량기구는 평양의 본소와 5개의 분소에 인공위성 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합의하였다. 북한 당국은 긴급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세계식량계획이 국제기구 직원을 비행기로 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의 지원 하에 영양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말 임의 추출한 6,000가구로부터 어머니와 어린이들을 포함한 영양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영양조사는 최근 이루어진 국제기구의 식량지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며 향후의 식량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농업개발지원

북한 당국은 2003년 겨울 작물 이모작 목표 면적을 191,858ha로 정하였다. 이모작 계획 가운데는 주 작물을 재배하는 여름에 벼 21,050ha, 옥수수 18,470ha를 재배하고 난 다음 5개 도에서 겨울 작물로써 밀 37,020ha, 트리티케일 2,500ha를 재배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서는 800개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저투입농법을 실현코자 한다. 6월에 벼와 옥수수를 심고 9-10월에 수확한 다음 밀과 트리티케일을 파종하는 것이다. 2003년 가을에 파종하는 작물은 2004년 6월에 수확하게 된다. 이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농자재 조달로써 특히 옥수수와 벼 재배를 위한 농자재가 제 때 도착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포장 정지작업이 시작되자마자 3월과 8월에 수혜자에게 분배할 농자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기상이 좋을 경우 수량증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농업 및 환경복구사업(AREP)의 일환으로 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추진할 이모작 지원사업은 주 작물과 이모작 겨울작물을 대상으로 800개 협동농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 작물과 봄작물 대상으로 600개의 협동농장을 지원하는 별도의 이모작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모작 지원사업은 비단 이모작 작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녹비, 콩과 작물 종자, 종자살포기나 예초기 등 일부 기본장비 지원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화학농약 대신 각 포장의 요구에 따라 병해충 밀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다음 의사결정을 내리는 병해충종합방제(IPM) 전략을 확립하기 위한 기술지도와 인력양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 북한이 겨울 작물로써 밀이나 보리, 봄감자 재배 후 고구마, 여름 작물로써 벼나 옥수수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같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을 약탈하고 그 결과 토양 영양소의 결핍, 병충해의 확산과 밀도의 증대와 같은 역작용이 나타났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AREP사업의 일환으로 감자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감자와 다른 작물의 이모작뿐만 아니라 씨감자 저장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곡물 생산지역인 5개 도의 50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정부조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German Agro Action은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농지관리, 기술훈련, 능력배양의 종합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식량안보를 강화코자 한다. Concern Worldwide는 가구 수준의 식량안보를 증대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평안남도 2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농민들의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Concern Worldwide는 평안남도의 14개 협동농장에 훈련을 실시하고 투입재 지원을 통해 풀과 화목 생산을 증대시키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의 2개 도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산림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림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한계지의 토양유실을 줄이고 작물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는데는 커다란 제약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농업개발을 포함한 경제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농업개발지원은 일반적인 경제지원과 그 성격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도 구별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와 농업개발 지원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타결된다면 북한이 2002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도 본격화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 양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작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일본의 쥬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조일평양공동선언에서는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써 지역 내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의 관계 정상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일본은 외교적 관계의 정상화 이후 비정부 차원의 경제적 활동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국제협력은

행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원조 형태의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저리 장기차관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다. 북한의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 일본의 대화는 급 물살을 탈 것이다.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일본의 대규모 경제원조가 가능할 것이다.

2002년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대화나 북한과 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합의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외국의 투자 증대와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동북아지역 내 평화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

동 향 분 석

1. 축 산
2. 산 림
3. 감자 농사
4. 이모작
5. 양 어
6. 기타 보도동향

* 북한의 주요 신문인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과 <민주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의 농업관련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1. 축 산

식량난 해결을 위해 초식가축 증산을 목표로 1996년부터 축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토끼, 닭, 염소, 돼지 등 각지의 가축사육 동향을 중점 보도

강원도 안변군 비산협동농장에서는 닭사육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정미소, 작업반, 매 가정에서 대대적으로 닭을 사육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업근로자들은 위생방역사업에 역점을 두고 동물성먹이 생산을 위한 서식장을 만드는 등 닭사육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9.16)

개성시 장풍군 덕적협동농장 농장원 남기선의 가정에서는 3년 동안 해마다 120마리 이상의 염소를 길러내고 있음. 이 가정은 집 주변에 백 수십㎡의 염소우리와 먹이 창고를 짓고 봄부터 가을까지 산을 이용하여 염소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는 한편 온 가족이 틈틈히 산에서 풀을 베어와 5~6톤의 말린 풀을 장만해 놓고 겨울철에도 염소를 정상적으로 사육해왔음(민주조선 9.24)

평안북도 정주시 흑록협동농장 정미소에서는 달걀생산을 늘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닭우리, 놀이장, 부화실, 먹이가공실을 조성하고 지렁이서식장을 만들어 닭 사육에 필요한 동물성 먹이를 자체로 공급하고 있음. 정미소의 농업근로자들은 먹성이 좋고 알을 많이 낳는 닭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또한 닭의 영양상태를 호전시키면서 위생방역사업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10.1)

황해남도 신천군은 협동농장에서 품종이 좋은 어미염소를 확보하고 영양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자체적으로 초지면적을 2~3배로 확장하였음. 봉천, 안악군의 협동농장들은 이미 조직한 염소작업반, 염소분조의 염소사육 정형을 파악분석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한편 염소관리공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민주조선 10.6)

평안북도 염주군 련곡협동농장에 파견된 농장일군들은 비육분조에서 돼지 뿐만 아니라 닭, 오리, 토끼, 거위도 사육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조원들이 적극 나서 빈땅

을 찾아내어 먹이작물을 심고 가축우리를 조성하도록 하였음. 이로써 제 1, 7작업반 비육분조는 본래 사육하던 돼지뿐만 아니라 닭, 오리, 토끼, 거위를 기르게 되었고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농장은 종축작업반과 정미소에 부화실을 만들고 달걀과 오리, 거위알을 부화시켜 비육분조에 공급하도록 하였음. 올해 비육분조에서는 어미돼지 한 마리당 13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였으며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였음(로동신문 10.24)

함경남도 정평군 금진강발전소의 부업목장의 야외토끼우리에서는 관리공 한 명이 500마리 이상의 토끼를 기르고 있으며 야외에서 토끼를 사육하기 때문에 일손이 적게 들고 공기가 맑아 병에 걸리는 확률이 적다고 함. 또한 염소사육으로 지금까지 150톤의 염소젖을 생산했고 올해만도 많은 염소고기를 돌격대원들에게 공급했다고 함. 이와 함께 돌격대에서는 양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만도 2톤의 꿀을 생산했다고 함(로동신문 10.27, 민주조선 10.29)

지난 시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끼염소생산을 진행해 온 과정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축산전문협동농장은 시기를 바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새끼염소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음. 이에 따라 농장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종자염소들이 집중적으로 새끼를 낳도록 하였음. 새끼염소 생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염소들에게 영양가 높은 햇풀을 먹일 수 있었고 봄철의 기온과 먹이조건을 이용함에 따라 수의방역사업에도 유리하였으며 새끼염소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음. 농장은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종자염소들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다음 겨울철 종자염소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쏟았음. 이렇게 생산한 새끼염소 중에서 특별히 먹성이 좋고 빨리 자라는 염소를 종자염소로 이용하였음. 또한 염소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조건에 맞게 수의방역실을 따로 만들고 실험설비들과 제약설비들을 갖추어 놓았음. 수의사들은 염소들 중에 일부를 선정하여 아침마다 배설물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염소들은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병을 예방하였음(로동신문 10.30)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2작업반 누렁소가 낳은 흰송아지는 수컷으로 같은 시기에 태어난 누렁송아지보다 성장속도가 빨라 1주일만에 무게가 29kg, 10일동안에는 33kg이나 되었다고 함. 흰송아지를 낳은 누렁소는 5년생으로 첫배에 흰송아지를 낳았음(로동신문 11.1)

평양시 력포목장 소삼정분장은 돼지고기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과학적인 종축생산체계를 확립하기로 하고 직접 돼지를 사육하는 관리공들을 준기사로 양성하는데 힘을 쏟았음. 분장일군은 관리공들을 대상으로 갓 낳은 새끼돼지의 사

양관리방법, 첫 떼는 시기, 2개월 무렵, 후보돼지 무렵, 돼지의 골격상태, 새끼 밴 어미돼지의 전후반기 무렵, 살찌우기 무렵 등의 사양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관리공들을 준기사로 육성하였음. 그리고 순종돼지품종을 유지 갱신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일군들은 순종돼지 생산과 3원교잡을 분장의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11.2)

해마다 계획적으로 새끼사슴을 늘려온 청단사슴목장은 방목지가 점차 멀어지고 사슴이 늘어남에 따라 먹이가 부족해지자 방목지 근처에 관리공들이 생활할 건물을 건설하였고 관리공들은 풀판을 찾아내어 윤환식 방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앞선 방목방법을 받아들여 여름철에는 2배, 겨울철에는 1.4배로 방목시간을 늘였음(민주조선 11.22)

생산한 많은 새끼토끼를 농장원 세대는 물론 다른 협동농장에도 공급한 평안북도 삭주군 읍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은 주변과 산기슭의 빈 땅에 토끼 먹이작물을 심고 뒤그루 강냉이를 수확하기 전에 가을채소씨를 뿌려 겨울용 먹이와 작업반원들의 김장채소까지 해결하는 등 이모작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자체로 70여 정보의 풀판을 조성하고 영양가 높은 먹이풀을 많이 심고 있음(로동신문 11.24)

농업성의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염소가 120% 이상 증가했으며 각지에 새로운 축산기지들이 백수십여 개 조성되었음. 농업성 일군들은 축산기지 건설현장에서 기술적 지도를 하고 염소젖 생산을 높이도록 하며 우량종 염소를 늘려 각 축산기지에서 염소 마리당 젖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음. 함경남도는 함흥시청년염소목장과 함주군 평풍덕의 염소목장 등에서 축산성과를 거두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함경북도는 김책시 상평축산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 조성된 축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염소젖가공품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강도와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등 전국 각지에서도 축산기지를 조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로동신문 11.28)

집단사육을 위한 대규모 염소우리를 건설하기 위해 함경남도 청진시 청암구역 교원협동농장은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자재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사육할 염소를 확보하기 위해 일군들이 어미염소를 구해오고 새끼낳이에 힘을 쏟았음. 그리고 염소집단사육 경험이 부족한 염소관리공들을 숙련시키기 위해 책임일군들은 필요한 참고서적을 구해주고 경험이 많은 단위에 보내 염소집단사육을 배우도록 하였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몇 해가 지나자 염소가 10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민주조선 12.5)

평안북도 운전군 읍협동농장은 종금분조를 조직하고 알깨우기실, 먹이창고 등 오리와 거위 생산에 적합한 2층짜리 종금사도 건설하였으며 우량품종의 오리, 거위도 확보하였음. 또한 농장의 작업반 비육분조에서도 알깨우기시설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많은 오리와 거위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음(민주조선 12.6)

○ 염소젖 가공

발효연구소 연구사들은 치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응유효소 연구를 시작함.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응고시키는 천연효소가 필요한데 그 원가가 매우 높음. 연구사들은 여러 지역에 대한 토양분석과 수백 번의 시료채취, 실험을 통해 천연효소와 비슷한 균주를 발견해 내었음. 연구사들은 배양기와 온도, PH조건 등 응유효소생산조건까지 완전히 확정함으로써 몇 달 동안에 우리 식의 응유효소를 완성했음. 함경남도 함주군 평풍덕염소방목지에서 몇 년에 걸친 도입과정을 통해 우리 식의 응유효소가 기존의 천연효소에 못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음. 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연구소 내에 원심분리기와 누룩배양실 등 응유효소제 생산설비와 공정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효소추출액을 가루상태로 만들어서 축산기지들이 어려운 공정 없이 쉽게 이용하도록 함(로동신문 9.17)

식료기계연구소는 염소젖짜는 기계와 버터제조기 등을 제작하고 살균, 발효, 크림분리, 치즈 응고, 버터 이김에 이르는 가공설비들이 일률적으로 갖추어진 젖가공생산공정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하루에 여러 톤의 염소젖을 가공처리할 수 있는 젖가공생산공정 설계와 기술자료들을 평안북도의 여러 군, 단위들에 보내 현대적인 젖가공생산공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로동신문 9.17)

일반적으로 짜낸 염소젖은 4 ~ 5시간이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젖산발효를 시키고 있음. 이미 식료연구소에서는 활성이 좋고 향기와 맛을 좋게 하는 3종의 젖산균을 만들어 여러 축산기지들에 보내주었음. 그러나 각 축산기지에서 젖산균배양액을 보관하고 이용하는 공정이 복잡하여 염소젖을 제때에 가공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음. 우리식으로 가루상태의 젖산균을 만들기로 가설을 세운 연구사들은 균을 배양한 다음 그것을 가루로 만드는데 필요한 첨가제를 얻어내는데 성공함. 연구사들은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와 함경남도 정평군, 황해남도 신천군의 여러 협동농장에서 가루 젖산균의 효능을 실험했고 새로 만든 가루 젖산균으로 케피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제품을 만들어 4개월 이상이나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었음(로동신문 9.17)

염소젖은 짜서 바로 가공하지 않을 경우 산도가 높아져 원료로 쓸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염소젖은 곧바로 가공장소로 수송해야 함. 염소젖을 짠 곳으로부터 가공장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빨리 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젖을 짜자마자 찬물에 넣어 냉각시키면 5~6시간 정도 보관할 수 있음. 젖을 젖산발효시킨 신젖의 경우 완성된 제품의 보관은 10~15℃에서 6일을 넘지 말아야 함. 5~7℃되는 냉장고에서는 15일까지 보관할 수 있음. 젖두부는 젖단백을 응결시켜 콩두부처럼 만든 제품으로 완성된 제품은 수분이 75~80%이고 5℃에서 5~6일 보관할 수 있음. 치즈는 젖산균과 효소로 젖을 응고시켜 분리한 다음 그 응결물을 숙성시킨 제품임. 치즈생산공정에서 만든 치즈를 지하보관고에 보관하고 숙성시킴. 숙성기일은 치즈종류에 따라 다른데 최소 20~40일로부터 최고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는 것도 있음. 보통 4~6주 걸리는 것이 보통임. 지하보관고의 온도는 10~15℃가 보장되어야 함. 숙성에 제일 좋은 온도는 12℃임. 습도는 95%를 넘지 말아야 하며 숙성에 적당한 습도는 80~90%임. 숙성된 제품은 보관기일이 오래될수록 제품의 질이 떨어지므로 숙성이 끝난 제품은 곧바로 소비하는 것이 좋음(로동신문 9.30)

○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올해 염소, 토끼 등 초식가축을 지난해보다 늘인 강원도 통천군 벽암리는 최근 이틀 동안에만도 100톤 이상의 풀절임을 하고 수십 톤의 마른 풀을 준비하여 겨울용 가축 먹이로 준비하였으며 농부산물도 마련해 놓고 있음. 작업반과 분조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가축 먹이창고를 만들고 먹이들을 보관하여 가축우리에 찬바람이 들지 못하도록 밀폐식으로 보완하고 있음(로동신문 9.29)

황해남도 안악군 마명협동농장은 일군들이 염소, 토끼, 소 등 가축의 겨울먹이준비에 농장원들을 조직동원하고 있음. 제1, 3, 9작업반 비육분조는 말린 풀과 농부산물을 모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축산작업반은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먹이저장창고를 잘 정비하고 수십 톤의 질 좋은 겨울철먹이를 장만하여 보관하고 있음(로동신문 10.23)

자강도 축산부문 일군들은 올해 염소 1만여 마리, 소 350여 마리가 늘어난 실정에 맞게 도 차원에서 421동의 소, 염소우리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음. 또한 각 협동농장들은 이미 건설해 놓은 가축우리에 대한 수리보수사업을 위생학적, 수의방역학적 기준에 맞게 진행하고 있으며 고풍, 룡림, 우시군과 만포시에서는 근 100동씩에 달하는 소, 염소우리 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음. 각 협동농장들은 봄과 여름내 가꾼 풀판과 자체로 조성한 먹이기지, 자연풀판에서 생산해 말린 먹이를 실어내고 있으며 이미 말린풀생산계획을 111.6%로 초과수행하였음. 이와

함께 가축겨울먹이로 쓸 강냉이짚, 절임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로동신문 11.10)

평안북도 벽동군의 축산부문 일군들은 늘어난 가축수에 맞춰 초식가축의 겨울철 먹이준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마른 먹이풀을 방목지마다 쌓아놓고 그 보관관리를 잘하고 있는 동주협동농장의 모범이 일반화되고 있음(민주조선 11.28)

강원도 원산시 신성협동농장은 가축 증산을 위해 겨울철에도 가축의 분만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염소와 토끼 등 초식가축의 먹이를 충분히 확보한 축산작업반은 내년 1월부터 염소분만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어미염소의 먹이습성과 생리적 특성에 맞게 먹이를 공급하여 영양상태를 더욱 개선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가축우리의 온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예방접종과 우리소독 등 수의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밀폐식으로 조성한 가축우리들을 보수하는 등 겨울철 새끼분만에 유리하도록 사양관리를 하고 있음(민주조선 12.10)

○ 위생방역사업

구성닭공장은 우선 출입질서를 세워 종업원 이외에는 공장 구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상 공장 구내로 들어가는 성원은 반드시 위생통과실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위생통과실은 신발과 손을 소독하고 목욕을 한 이후에 소독된 옷, 위생복으로 갈아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음. 또한 호동 밖에서 작업하는 성원들이 정해준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을 닭병이 발생했던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며 갔을 경우에 해당 성원의 소지품까지 모두 소독하고 격리시키도록 하고 있음. 공장에서는 닭을 옮기기 전에 우리와 사양관리도구 소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며 전문일군의 승인 하에 닭을 옮기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사양관리도구에 표식을 하여 사양관리도구들이 다른 호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관리공들이 다른 공동작업에 동원될 때 호동 안에서 이용한 신발, 옷, 위생복, 모자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공동작업이 끝나고 다시 호동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소독을 하고 있음(로동신문 9.25)

현대화된 닭공장에서 닭의 전염병, 기생충을 비롯한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나 균의 확산요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 우선 닭에 대한 질병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병든 닭을 제때에 골라내야 하며 예방주사를 놓아야 함. 배합먹이가 병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이용하며 검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함. 닭에게 먹이는 물이나 관리도구, 닭우리를 청소하는 물은 반드시 소독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함. 공기는 물과 함께 병을 옮기는 원인이 되므로 닭관리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함. 닭우리에 대한 공기갈이를 잘하여 누기나 먼지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함. 닭공장과 주변의 토양관리를 위생방역의 기준대로 하며 10가지 수의방역시설을 철저히 갖추어야 함(로동신문 9.25)

10가지 수의방역시설에는 병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닭공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소독에 목적을 둔 방역울타리, 수의초소, 검역우리, 소독시설이 있음. 또한 병원체가 있는 전염원천을 없애고 확산을 방지하는 수의실, 도살장, 격리실, 퇴적장, 폐사처리장, 생물약저장고가 있음.

- 방역울타리는 닭공장과 외부를 차단하며 1차, 2차 방역울타리가 있음. 1차 방역울타리는 닭공장과 외부를 차단하며 2차 방역울타리는 닭공장 내에서 닭우리만을 둘러싼 것임. 방역울타리 안에 닭공장 운영사무실, 운수기재창고, 배합먹이창고와 알, 고기 판매장소를 배치함.
- 수의초소는 방역울타리의 출입문에 위치하며 손 및 운수기재소독시설, 탈의실, 목욕탕, 옷과 신발을 소독하는 방이 딸린 위생통과실이 있어야 함. 수의초소는 공장 내 출입을 단속하며 공장에 들어갈 경우 목욕 또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고 있음.
- 검역우리는 종금장에 들어오는 종자알과 닭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시설임. 검역우리는 방역선 안에 위치하지만 기본닭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검역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야 함. 또한 약 한달 정도의 먹이를 수용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함.
- 소독시설은 방역울타리를 출입하는 문, 닭우리, 부화실, 도살장, 검역우리, 격리우리에서 손과 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도구와 닭우리를 소독할 수 있는 약물분무기, 불길소독기와 수의실에 자외선 전등을 갖추어야 함.
- 수의실은 수의위생방역사업에 대한 검사사업, 닭에 대한 질병진단사업, 닭공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기구들을 갖추어야 함. 격리우리도 사람이나 개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하며 수도시설, 오수정화장, 퇴적장을 갖추어야 함.
- 도살장에는 건강한 닭을 잡는 곳과 병든 닭을 위생도살하는 곳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위생도살장에는 일정한 높이로 타일을 붙이고 밖에는 시멘트로 울타리를 해야 함. 죽은닭처리장은 위생도살장 안에 설치할 수도 있고 따로 지을 수도 있음. 따로 지을 경우 울타리를 쳐야 함(로동신문 9.25)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기지 현대화사업이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평양시 닭공장의 개건현대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제368군부대 내 염소목장과 옥포협동농장 종합축산기지, 운곡지구 종합목장 비육소 원종장을 현지지도

개건현대화공사가 한창인 두단오리공장은 최신설비를 갖춘 종합적인 오리고기생산 기지로써 부화에서 비육, 배합먹이와 오리고기가공, 물보장, 배설물처리 등 모든 생산경영관리를 컴퓨터로 자동조종하게 됨. 연간 오리고기 생산량이 지난 시기보다 거의 2배나 되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수도시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오리고기가 공급될 전망임. 이 공장기사장 김석곤에 따르면 모든 생산경영활동을 컴퓨터에 의해 자동조종함에 따라 생산자들은 보다 위생문화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며 1㎡당 오리마리수가 더 늘어나고 관리공 한사람이 관리하는 오리수는 종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나게 된다고 함. 또한 먹이단위라 줄어드는 반면에 오리 마리당 무게가 더 늘어나게 되며 부화율은 10% 높아지게 됨(로동신문 10.27)

평안남도 덕천닭공장 일군들은 닭공장을 원상복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호동과 살찌우기 1호동, 3층으로 된 3호동의 원상복구 그리고 연건평 2,000㎡의 양어장과 연간 10만매의 생산능력을 갖춘 기와생산기지, 염소우리, 토끼, 거위, 오리우리, 농기구창고, 6칸의 합숙을 석달동안에 건설하기로 함(로동신문 11.16)

평양시 만경대닭공장 준공식에서는 평양시 닭공장 개건현대화공사에 투입된 건설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홍성남 내각총리가 전달하였음. 감사문에는 작업여건이 어렵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닭사건축공사와 설비제작설치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마치고 모든 대상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였다고 건설자들과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4)

평양시닭공장 준공식에서는 개건현대화공사에서 위훈을 세운 건설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었으며 서포닭공장 준공식에서는 닭우리 건축공사와 설비제작, 설치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생산능력과 규모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른 닭공장을 건설하였다고 지적하였음. 하당닭공장 준공식에서는 생산공정의 컴퓨터화에 대해 언급하고 주어진 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장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6)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시 룡성닭공장, 마람배합사료공장 준공식에는 평양시닭공장 개건현대화공사에서 공을 세운 건설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

문이 전달되었음. 감사문에서는 이 공장들이 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마련된 나라의 재부라고 하면서 닭공장과 배합사료공장에서 현대화된 생산설비를 잘 관리하고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11)

개건현대화된 평양시 룡성닭공장의 컴퓨터종합실은 비육직장, 종금직장, 알깨우기실, 기술준비실 등을 전산을 통해 연결하여 과학기술적 문제들과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각 호동에 배치된 자종조종반의 관리공은 먹이공급장치의 시간을 조절하여 그릇에 닭먹이가 자동적으로 흘러 들도록 하며 닭상자마다 자동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음. 또한 배풍기에도 자동온도조절기가 있어 각 호동의 온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닭배설물 처리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로동신문 12.17)

개건현대화된 평양시 승호닭공장 준공식에서는 1968년 5월 김일성동지가 몸소 승호지구에 부지를 선정해준 닭공장이 김정일의 지도에 따라 현대적으로 개건된 것에 대해 말하였음. 그들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적인 기업관리를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26)

○ 조선인민군 제368군부대 내 염소목장 현지지도(10.15)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제368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염소목장을 시찰하였음. 부대에서는 염소목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올해에만도 수십 톤의 갖가지 유제품을 생산하여 부대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음. 김정일은 목장을 돌아본 뒤 염소를 비롯한 초식가축을 대대적으로 사육하는데 지침이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은 이곳 군부대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 염소사육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김정일은 이곳 군부대에서 유제품의 소비자인 군인들 가까이에 목장을 지은 것이 여러 모로 좋다고 하면서 염소목장을 공급단위에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염소 마리수가 증가하는 조건에 맞게 젖짜기를 비롯한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목장의 생산공정을 현대적인 기계들로 장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16)

○ 평안북도 창성군 현지지도(10.25)

창골혁명사적지, 창성군 문화회관, 창성식료공장, 창성직물공장, 창성종이공장, 금야

2호발전소를 차례로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옥포협동농장 종합축산기지를 현지지도하였음.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잘 만들어진 축사를 돌아본 김정일은 농장에서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많은 고기와 달걀, 젖과 양털을 생산하고 농장원들의 현금수입을 늘인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면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축산물 생산을 더욱 늘이도록 과업을 제시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26)

○ 평안남도 운곡지구 원종장 현지지도(12.20)

김정일은 원종장 건축물과 현대적인 기계설비, 소우리 등을 돌아보면서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김정일은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며 고기의 질도 높은 우수한 소품종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종장에 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또한 송아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수의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많은 고기와 우유가 생산되는 조건에서 인민들에게 질 좋은 유제품을 보다 폭넓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요구르트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가공기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20)

기타 보도 동향

가축질병 치료에 침자극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침은 마비상태에 있는 신경에 흥분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어 가축의 다리마비, 전신마비, 반신마비 등에 효과적임. 또한 만성위장염을 비롯하여 소화기계통 질병, 호흡기계통 질병, 안이비과계통의 염증치료에도 좋다고 함. 이밖에도 침은 가축의 질병치료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물요법과 기차 요법을 배합하여 사용하기도 함(로동신문 9.20)

평안북도당위원회 김평해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정일이 평안북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에 보낸 축산설비를 전달하는 모임이 11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12, 민주조선 10.13)

○ 목장 및 풀판 조성

이미 여러 곳에서 염소를 기르고 있던 함경남도는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거리가 멀어 생산한 염소젖을 제때에 운반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음. 이에 해발고도가 그리 높지

않고 풀판조성이 가능한 단천시에서 적지를 정했음. 도로닦기, 전기공사, 건축공사 등 단계별 과제를 세분한 시의 일군들은 그에 해당한 인력조직과 자재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웠으며 11가지 형식의 염소우리와 살림집, 진료소, 합숙 등 수십동의 건물이 갖추어진 단천시종합염소목장이 건설되었음(민주조선 10.3)

함경북도 김책시는 기존 도로의 기술개건을 실시하여 20.5㎞의 도로를 새로 건설하였고 100여 리의 윤환선 도로를 따라 6개 지역에 염소목장을 나누어 건설하였음. 이로써 68동에 126세대의 살림집과 60동의 염소우리, 학교,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상점, 목욕탕, 이발소, 미용원 등 문화 및 편의봉사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설을 끝마쳤음. 그리고 정수골에 하루 10톤의 가공능력을 보유한 현대적인 젖가공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민주조선 10.31)

작년 2월 버려져 있던 평양시 사동구역의 한 섬을 현대적인 타조생산기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돌입한 대성총국은 6만여㎡의 면적에 새끼타조우리와 만 7,000㎡의 어미타조놀이장, 알깨우기실, 고기가공장과 컴퓨터종합조종실, 공공건물을 건설하였음. 또한 올해에만도 수백 마리의 타조를 생산한 총국은 이미 연탄, 신흥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 많은 새끼타조를 보내주었음(로동신문 11.3)

평안남도에서 염소목장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음. 맹산군은 대흥지구에 1,500여㎡의 풀판적지를 자연풀판으로 전환한데 이어 4개월여 기간동안 공사작업을 벌여 17동의 염소우리와 250㎡의 젖가공실, 합숙, 자연냉장고를 건설하고 17개의 분장을 갖춘 염소목장을 건설하였음. 평성시는 자모지구에 20개의 분장을 갖춘 염소목장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30여㎞의 윤환선도로를 건설하고 젖가공품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냉장고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음. 녕원군, 증산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에서도 지대적 특성에 맞게 적지를 정하고 인력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한 전에 염소목장 건설을 끝내고 질 좋은 유제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이로써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 전체에서 95동에 2만 5천여 개의 염소우리와 20동에 2천 3백여 개의 염소젖가공실, 40동에 6천여 개의 방목공합숙 등 기타부속건물 50동이 성과적으로 건설되었음(로동신문 11.8)

량강도 혜산시는 염소사육에 유리한 해발 1,500여m의 고산지대에 100여 동에 달하는 염소우리와 먹이가공실, 젖가공장, 살림집, 학교, 목욕탕, 풀판과 윤환식도로를 갖춘 현대적인 염소목장 건설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며 완공단계에 이르렀음(민주조선 11.9)

황해북도는 시, 군마다 염소를 대대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목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풀판도 함께 조성하도록 하였음. 도에서는 각 시, 군마다 1,000정보 이상의 풀판을 조성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신계군, 은파군, 연탄군 등 많은 군에서 1,500정보 이상의 자연풀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풀판을 조성할 때는 나무를 띠모양으로 심어 바람을 막고 산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염소방목을 순환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가축먹이로 영양가가 높은 풀을 과학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아 가뭄이나 장마철에도 잘 견디는 풀을 찾아 많이 심도록 하고 칡, 싸리, 분홍꽃아카시아와 같은 것들을 잘 배합하여 심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풀씨채종체계를 세워나가면서 영양가 높고 수확이 많은 풀씨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거나 채종하여 인공풀판에 심고 자연풀판에도 뿌리고 있음(로동신문 11.24)

비교적 산과 골짜기가 많은 룡호, 해월, 동산리 등에 연 150여 리의 윤환식 도로를 건설한 황해남도 연안군은 도로 주변 곳곳에 총 건평 4,730㎡에 달하는 41동의 염소목장을 건설하였음. 남포시 항구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전리의 야산기슭 2,000㎡의 부지에 염소목장을 건설하였음. 목장은 420㎡의 염소우리와 토기우리, 먹이가공실, 젖가공실, 절임탱크, 먹이보관창고, 우물 등 가축사육과 가공에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민주조선 12.5)

황해북도 서흥군은 백암리지역 6개 골짜기에 염소우리와 먹이가공 및 젖가공실, 보조건물을 갖춘 염소목장을 건설 중에 있음. 현지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목장건설 위치를 정한 군 일군들은 단계별, 일정별 계획을 세우고 목장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음(민주조선 12.14)

몇 해 전 염소를 대대적으로 사육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황해북도 황주군 황주군은 염소젖생산기지를 소비지에 최대한 인접시키는 원칙에서 적지를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현지조사를 벌여 삼훈지구를 염소목장 적지로 확정하였음. 현재 건물들이 목장 곳곳에 들어서고 있으며 건설을 끝낸 여러 단위들에서 염소사육을 시작하였음. 젖가공기지도 소비지와 가까운 조건에 맞게 항시 가공품을 운반해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건설되고 있음(로동신문 12.29)

2. 산 림

산림조성을 위해 양묘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카시아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을 것을 장려하는 동향을 보도

○ 나무모 생산 동향

자강도 강계시 석현지구 장자강 기슭에 건설 중인 수목원은 산림과학연구사업을 위한 건물과 나무모를 키워 내는 온실이 들어서게 됨. 특히 조직배양실은 무균상태를 철저히 유지하고 현대적인 실험설비가 갖추어져 나무모 조직배양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들과 새 품종의 나무들을 채종 및 육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게 됨. 새로운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수백㎡의 나무모 온실은 컴퓨터로 온습도와 채광조건을 조절하게 되어 있음. 또한 용재림, 경제림, 보호림, 풍치림 등 모든 산림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꽃나무와 산과실나무, 기름나무를 비롯한 근 200종에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됨. 수목원에는 많은 나무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심게 되며 받아들일 나무종류들도 실험적으로 심게 됨. 이에 따라 수목들에 미치는 일조량의 영향, 추위에 견디는 정도, 필요한 수분의 정도, 환경조건, 번식방법 등 식물학적 연구를 시행하게 됨(민주조선 9.24)

평안남도 덕천시산림경영소는 추가적으로 10여 정보의 나무모밭을 조성하기 위해 대흥군, 장진군, 부전군에 종자따기조는 파견하여 10톤의 종자를 따냈고 해마다 종자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갔음. 경영소는 골짜기가 많은 덕천시 주변 산지에 나무모밭을 골짜기별로 정하고 숲사이 나무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였음. 또한 리별 골짜기단위로 40여 개의 산이용반을 조직하여 종자를 심고 가꾸며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함(로동신문 10.1)

평안북도 태천군은 나무모밭을 실정에 맞게 정하고 조성하였으나 나무종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당장 씨를 뿌릴 수 없었음. 국토환경보호관리부 책임일군은 종자따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짧은 기간에 계획보다 많은 나무종자를 마련하였으며 제 철에 씨를 뿌리게 되었음. 지난 기간 산림경영소는 나무심기를 군중적으로 실시하면서 멀리 운반하여 심은 일부 나무들과 땅이 나쁜 지역에 심은 나무들의 사름

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음. 해당부분의 한 일군으로부터 닥풀을 이용하면 나무의 사름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산림경영소의 일군은 수십 평에 닥풀을 심어서 말린 다음 나무심기를 할 때 부수어 진흙물에 풀고 그 물에 나무모뿌리를 담구었다가 옮겨 심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먼 거리로 수송하거나 땅이 나쁜 지대에 심은 나무도 사름률을 높이게 되었고 이를 확증한 국토환경보호관리부는 나무를 심을 때 닥풀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였음(로동신문 10.14)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큰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모를 조직배양하기 위해 산림과학원에서는 나무모조직배양온실 건설에 나섰음.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건설되는 나무모조직배양온실은 기본건물과 온실을 포함해 총 수천㎡의 부지면적에 조제실, 멸균실, 무균접종실, 배양실, 온실, 순화온실 등이 갖추어지게 됨. 나무모조직배양온실에서는 아카시아나무모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들과 종자로 번식시키기 힘든 나무모들을 조직배양하게 됨(로동신문 12.21)

○ 아카시아 나무 식수동향

땔감문제 해결을 위해 아카시아나무림을 조성한 평안남도 평원군 덕제리는 산림면적을 구획별로 나누어 순환식으로 나무를 베도록 하였으며 한 구획 안에서도 아카시아나무림의 조성상태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였음. 즉 나무의 상태에 따라 용도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채벌되어 산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또한 구획을 나누어 조성상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산림조성과 관리를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음(로동신문 9.27)

평양시는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많은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운데 이어 시국토환경보호관리국 산림처 일군들은 현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군에 아카시아나무 심기계획을 확정해주고 있음. 현재 아카시아나무종자따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동군, 상원군, 승호구역 등 시의 구역, 군일군들은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적지를 돌아보고 나무모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 자재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음(로동신문 10.14)

황해남도는 지난해보다 1.5배 확장된 면적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웠음. 은천군은 올해 210정보의 면적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아카시아나무 심을 적지를 확정하여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정확히 분담을 주어 나무심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은률군, 벽성군은 나무심기작업 준비를 마치고 며칠 사이에 수십 정보의 면적에 아카시아나무모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옹진군, 배천군, 안악군 등 여러 군에서도 많은 면적에 아카시아나무모를 심고 있음(민주조선

10.27)

강원도 원산시 죽산협동농장은 도룡골에 천여 평에 달하는 나무모밭을 만들고 많은 양의 씨앗을 마련하였음. 해마다 식수절에 100여 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이 조성되었고 올해 봄, 아카시아나무림에서 곁가지와 그루솎음을 하여 80여 정보의 채소밭에 필요한 모판용 활창대를 수만 대나 생산했으며 3~4년생 나무에서 핀 아카시아꽃에서 수백kg의 꿀을 생산하여 산모, 농장원들에게 공급하였음. 또한 적지 않은 땔감을 생산하여 탁아소와 유치원 등 공공건물과 일손이 부족한 농장원세대에 공급하였음. 이와 함께 아카시아나무림에서 올해 200여 마리의 종자토끼로 1,000여 마리의 새끼토끼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먹이를 해결하였으며 300여 마리에 달하는 염소의 먹이문제도 해결하였음(로동신문 11.23)

땔나무림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황해남도에서 강령군은 군당과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등 군급기관 일군들은 물론 복합미생물비료공장, 고구마가공공장 등 공장의 노동자와 부민, 오봉, 쌍교, 인봉리의 농장원, 학생 등이 나무심기계획을 초과달성하기 위해 나서 5일 동안에 대략 300정보의 땔나무림을 조성하였음. 삼천군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량정사업소 등 많은 공장, 기업소와 추릉, 덕천, 룡천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장들, 학생들까지 나서 최근 4일 동안에 180여 정보의 아카시아나무를 심었음. 벽성, 신원군 등 다른 군에서도 땔나무림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도 전체적으로 1,400여만 그루의 아카시아나무를 심었음(로동신문 11.27)

○ 육종 과학연구

산림과학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산과 들에 아카시아나무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가시가 없고 일반 아카시아나무보다 움재생능력이 강하며 잎생산량이 많아 땔감 및 가축먹이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카시아나무와 줄기가 곧고 종전에 비해 정보당 생산량이 1.4배이상 되는 목재용아카시아나무, 꽃차례수가 2.3배, 꽃 피는 기간이 6일이나 길고 정보당 꿀생산량이 1.5배에 달하는 밀원용아카시아나무 품종들을 육종해냈음. 산림과학원 육종학연구소 연구사들이 육종한 포플러는 심어서 10년이 지나면 정보당 80~100㎥의 통나무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좋기 때문에 거리와 마을, 도시미화에 적극 이용되고 있음. 또한 물황철나무와 평양포플러를 교잡하여 솜털이 날리지 않으면서도 추위에 강한 포플러나무를 육종하여 널리 번식시키고 있음. 이 밖에도 순안찔광이나무, 흰씨잣나무 등 육종한 새로운 품종의 나무들도 경제적 가치가 큼(로동신문 10.31, 민

주조선 11.8)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을 통해 식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용도의 산림조성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

함경북도는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아카시아와 분홍꽃아카시아를 기본으로 수천 정보의 면적에 많은 나무를 심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경성군, 길주군, 은덕군은 종자를 딸 수 있는 원천을 확보하고 빠른 기간에 많은 양의 나무종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청암구역, 회령시, 김책시 등 도내 여러 시, 군에서는 나무모 생산을 앞세워 수종이 좋고 튼튼한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고 있음(민주조선 10.3)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평안남도 성천군, 은산군, 북창군은 필요한 나무모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천시는 송암동굴 주변을 수림화하기 위해 4천여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있음. 다른 시, 군에서도 고속도로 주변을 수림화하여 도시와 마을의 풍치를 가꾸기 위해 나무심기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10.31)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맞아 량강도 혜산시는 도로보수와 강하천정리, 나무심기 등을 수행하고 있음. 압록강관리소는 압록강 호안림 조성을 위한 전망계획과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양묘장을 조성하였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황철나무, 버드나무 등을 떠다가 강유역에 심었음. 또한 시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동원된 가운데 가을철나무심기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음(민주조선 10.31)

황해남도 옹진군은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과제를 분담시켜 많은 나무를 심도록 하고 이와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구랑, 장송, 삼산, 대기지구를 비롯한 산지에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으며 군산림경영소 양묘장 등 산이용반에 조성된 수십 정보의 양묘장에서는 나무종자파종에서 거름주기, 물주기와 김매기 등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모에 대한 관리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민주조선 11.17)

평양시 대성구역은 아카시아나무, 평양단풍나무 등 10만여 그루를 주변의 산, 거리와 살림집구역들에 심을 계획을 세웠음. 구역 국토환경보호관리부 일군들은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구역 일군들은 현장에서 구덩이파기와 계단짓기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토양에 따라 심을 나무의 품종을 정확히 선택하고 나무모를 나르는데 필요한 도구도 미리 준비하였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은 물론 학교와 동, 인민반

에서 나무심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로동신문 11.19)

나무모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산림 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한 개성시는 개성산림경영소에서 10여 정보의 산에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등을 심었으며 개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무모를 생산하여 주변 산에 10여일 동안에 73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을 새로 조성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3)

황해북도 산림부문 일군들은 나무모생산을 늘리기 위해 멀리 장진군에까지 가서 이깔나무종자를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종이 좋은 나무모종자를 해마다 6톤씩 채취하여 750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으며 1,500정보의 산림을 조성하였음. 지난 10년 동안 1만 410여 정보의 면적에 나무를 심어온 신평, 곡산, 연산, 수안군은 공업림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군의 산림경영소는 지난 10년 간 용재림, 기름나무림, 땔나무림을 1만 2,400여 정보나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2.5)

10년 전부터 수유나무림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황해남도 송화군 구탄협동농장은 주변 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유나무림 조성적지를 파악하고 나무모확보사업을 벌였음. 토양과 경영관리조건이 유리한 제2작업반 지역에 수유나무림 조성적지를 선정하고 수 정보의 수유나무를 심은데 이어 수유나무관리분조를 조직하여 거름공급, 김매기, 병충해방지작업 등을 기술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5년째 되는 해부터 열매를 수확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 짠 기름으로 질 좋은 비누를 생산공급하고 있음(민주조선 12.14)

기타 보도 동향

전나무과에 속하는 원산구상나무는 송도원의 원산식물원에서 수십 년 째 보호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음. 그 중 1호 나무의 높이는 1.3m, 너비는 9m, 가슴높이에서 직경은 30㎝로 껍질은 잿빛이 나는 흰색이며 얇게 터짐. 나무모양은 원추형을 이루고 있는데 분비나무와 비슷하며 줄기는 전나무와 비슷함. 바늘모양으로 된 원산구상나뭇잎의 길이는 9 ~ 14㎜이며 너비는 2 ~ 2.5㎜로 한 개 잎이 살아 있는 기간은 3 ~ 6년임. 겨울눈은 타원형이며 털이 없고 송진으로 덮여 있음. 구상나무는 주로 남부지역의 고산지대에 분포되어 자라는 특산식물로 중부 해안지대인 원산기방에 풍토순화되어 자라고 있는 나무로써 그 수세가 매우 좋음(민주조선 10.8)

양지바르고 수분이 적당한 마른 땅에서 자라는 은행나무는 북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심을 수 있음. 은행나무에는 살균, 살충성분이 있으며 공해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가로수나 정원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임. 은행나무의 열매는 결핵이나 천식에 매우 좋으며 레시틴과 비타민B의 모체가 되는 에르고스테린이 들어 있어 뇌혈관작용을 원활하게 하므로 뇌졸중, 신경쇠약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함. 은행씨는 예로부터 불에 구워 4~5알씩 먹으면 정력에 좋다고 하며 밤에 오줌을 싸는 아이에게 날마다 구운 은행시를 대여섯알씩 먹이면 효과가 좋다고 함. 은행나무잎은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심장기능을 도와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폐를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등의 효능이 있어 가슴앓이, 가래 및 천식, 설사, 백태, 상피증 등을 치료하는데 널리 사용하고 있음. 최근 은행나무잎에 함유된 긴크골리드 A, B, C와 긴놀, 플라보노이드성분은 말초혈관장애, 노인성 치보 등을 치료예방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함. 특히 우리나라의 은행나무잎은 다른 나라의 은행나무잎보다 유효성분 함유량이 많다고 함. 은행을 이용하는데서 유의할 점은 은행씨에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 빈속에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중독될 위험이 있음. 오랜 의학책에는 은행씨를 많이 먹으면 복통, 구토, 설사, 발염증세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음. 은행씨에 중독되었을 때는 사향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감초 달인 물을 마시면 독이 풀린다고 함(민주조선 10.15)

가을철에 심을 나무모는 수종이 좋으면서도 불리한 환경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나무종류를 선택해야 함. 창성이깔을 비롯한 이깔나무류와 잣나무 등 바늘잎나무들, 아카시아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평양단풍나무, 황철나무, 오리나무를 비롯한 넓은잎나무들이 좋음. 가을철나무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임. 이 시기는 지대별로 다른데 바다기준높이 800m 이상되는 높은 지대에서는 10월 하순, 중간지대는 11월 초순, 500m 이하되는 낮은 지대에는 11월 중순부터 나무심기에 들어가야 함. 또한 너무 마른 곳이나 바람이 센 곳, 습기찬 곳은 피해야 함. 나무모는 뜨는 즉시 심어야 하는데 나무모를 운반할 때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구덩이는 너무 깊이 파면 나무모의 줄기 밑부분이 썩을 수 있고 얕게 팔 경우에는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대로 구덩이를 파야 함. 나무모를 심은 다음에는 흙을 잘 다져주고 그 위에 작은 돌이나 나뭇잎 등을 덮어 습기가 금새 빠지지 않도록 함(로동신문 11.5)

20일 진행된 전국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과학기술토론회에서는 김정일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인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

로 꾸리자 에서 제시된 과업에 따라 전국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논문들과 과학기술자료들이 발표되었음. 「온 나라 수림화, 원림화에 대하여」,「수림화, 원림화기술기준에 대한 연구」,「도시수림화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방도」등의 연구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음. 또한 잡종버드나무 번식문제, 청년영웅도로 주변의 수림화, 원림화문제, 아카시아나무로 검덕지구를 수림화하기 위한 문제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음(민주조선 11.21)

울릉도가 원산지인 오동나무는 현삼과 오동나무속에 속하는 참오동나무로써 비슷한 종의 오동나무로는 작은 오동나무, 백화오동나무, 란고오동나무, 추목잎오동나무, 남방오동나무 등과 그 교잡종이 있음. 이 밖에 오동나무에는 능소화나무와 향오동나무속에 속하는 향오동나무와 청오동나무과 청오동나무속에 속하는 벽오동나무(청오동나무)가 있음.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는 목재, 섬유제지용 식물로 포플러, 아카시아나무보다 목재생산성이 높음. 경지 재배 시 10년생 후부터 정보당 250 ~ 300㎥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음. 오동나무 목재는 곧고 연하며 무늬가 아름답고 윤기가 날 뿐만 아니라 말라도 트지 않고 소리울림이 좋아 악기, 가구, 건축용재로 널리 쓰임. 열매에는 약용성분이 함유되어 여러 가지 치료에 사용됨. 꽃이 많이 피고 2개월 이상 지지 않아 아카시아나무보다 꿀생산량이 많으며 잎에는 단백질이 많아 가축먹이로도 좋음. 또한 나무모양이 고와 원림용으로 많이 심으며 대기 중의 이산화유황을 흡수하여 제련소 주변에 심으면 공해를 막는데 효과적임.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나무 사이에 밀, 보리 등 농작물이나 차나무, 삼나무를 심으면 실리를 보장할 수 있음(로동신문 11.29)

오동나무는 아열대에서 기원하여 오늘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함경남도 이남의 바다가 낮은 산지대와 서부의 낮은 산기슭, 마을 주변에 분포되어 있음. 북부한계선은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리 중평마을의 오동나무로, 산림한계선은 대체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동해안지역과 평안남도 중부산지의 해발 400m정도로 보고 있음. 오동나무는 햇빛을 좋아하고 비교적 따뜻한 기후조건에서 잘 자라며 토양은 비옥하고 수분이 적당한 조건에서 잘 자라지만 가뭄에도 잘 견디는 편임. 그러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함. 오동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며 움되살이능력이 강함. 참오동나무는 높이가 10 ~ 15m이고 가슴높이 직경이 60㎝인 잎이 지는 키나무임. 잎은 크기가 20 ~ 30㎝에 둥근 달걀모양으로 그 주위는 매끈함. 꽃은 송이꽃차례로써 5월에 가지끝에 고깔모양의 연한 가지색 꽃이 피며 열매는 달걀모양으로 길이가 2 ~ 3㎝이며 두쪽으로 벌어짐. 번식은 뿌리심기와 씨앗으로 하는데 해가 잘 들고 배수가 잘되며

토심이 깊은 땅에서 잘 자람. 참오동나무는 황해도 이남의 해발 400m 이하의 낮은 산지와 마을 주변에서 많이 자라고 있음(로동신문 12.6)

산림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으로 공고히하고 산림자원을 더욱 늘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그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1992년 12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을 채택하였음. 산림법이 채택된 이후 당의 조치에 따라 중앙에서부터 지방의 하부 말단까지 나무심기를 위한 군중체계가 확립되고 해마다 식수절과 식수월간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대중들이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게 되었음. 또한 중앙양묘장과 함께 각 시, 군에 모체양묘장이 조성되어 지난 시기에 비해 양묘장 면적이 2.5배로 늘어나고 나무모 생산을 2배로 높일 수 있었음. 이와 함께 산불, 병해충피해 방지대책이 강화되는 등 산림보호사업을 통해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장수산 등의 명승지들이 보존되었음. 산림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산림자원을 조사장악하고 산림자원이용정형과 변동 등을 등록하며 산림법에 준하여 산림자원이용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통제하는 사업이 강화되었음. 또한 산림경영에 있어서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의 산림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파악, 지도하며 산림경영사업이 산림건설 총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였음. 특히 산림경영사업 지도에서 과학기술지도가 강화되면서 최근에 새 품종의 아카시아나무와 포플러 연구를 비롯해서 산림과학분야에서 다양한 성과가 이룩되었음(민주조선 12.11)

지대적 특성에 맞는 오동나무 우량품종 육종연구가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서는 목재의 출재율이 높은 여러 가지 줄기형 오동나무 육성방법을 완성하였음. 또한 관수를 받아들여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집약적인 재배방법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오동나무를 산림조성계획에 따라 재배하고 원림부문에서 도시녹화에 이용하였음. 특히 최근 새품종 오동나무에 대한 시험재배를 통해 전국에 확산시키도록 한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 인민무력부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에서는 빨리 자라고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의 참오동나무를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로동신문 12.13)

3. 감자 농사

주요 농정과제의 하나인 감자농사혁명이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량강도 대홍단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가 있었으며 시범농장으로 지정된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을 중심으로 감자농사와 감자가공공장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

○ 량강도 대홍단군 현지지도(10.8)

태홍단 신사동에 새로 건립된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고 대홍단군 홍암농장에서 감자수확기의 작업모습을 살핀 김정일은 올해 대홍단군의 감자작황을 알아보고 군내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감자농사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만족스러워하면서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김정일은 대홍단군의 경험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심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영농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면 감자수확고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고산지대에서 감자를 많이 심는 것이 알곡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라고 말함. 또한 대홍단군에서처럼 감자농사에 인력과 기계를 집중하고 과학적인 농법을 도입하면 감자수확고를 몇 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백암, 부전, 장진 등 산간지대에서 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함께 생산된 감자를 제때에 수확하고 가공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감자를 짧은 기간에 가공할 수 있는 대규모 가공공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김정일은 현대적으로 건설된 각종 종자저장고를 보면서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건설하고 과학기술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음. 이어 김정일은 대홍단군에 있는 감자연구소를 현지지도했음. 연구소 일군들로부터 감자연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여러 연구실을 돌아보면서 감자연구사업 진행정형을 파악했음. 김정일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더 많이 육종하고 감자농사에서 나타나는 제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로동신문, 민주조선 10.10)

김정일의 2002년 10월 8일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량강도 대홍단군 일군들과 근

로자들의 궐기모임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과학중시사상에 맞게 감자농사를 과학화하고 다수확품종을 심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며 감자종자보관과 관리를 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감자연구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확립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반영하며 무바이러스감자종자 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지적함(로동신문 10.20, 민주조선 10.19)

○ 감자 캐기 및 종자 확보

함경남도 부전군은 감자캐기에 앞서 인력조직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와 달구지, 보습, 호미, 삼태기 등 감자캐기에 필요한 농기구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캔 감자를 제때에 실어 움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감자움을 새로 짓거나 보수정비하였음(로동신문 9.26)

량강도 대홍단군은 감자캐기 작업에 앞서 홍암농장에서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농기계 대당 작업실적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한 문제를 실제 농기계를 가동하면서 시간별로 측정하고 합리적인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참가들에게 보여 주었음. 농기계작업소에서는 최근에만도 6종의 설비부속품을 새로 생산하여 트랙터와 연결농기계의 수리정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수확작업에 지장이 없게 준비함. 또한 17대의 감자숲자르는 기계를 새로 제작완성하여 감자캐기에 이용하고 있음(민주조선 9.29)

감자캐기작업을 진행하면서 량강도 풍서군은 일군들을 각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지대적 특성과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감자종자를 다음해 감자파종면적에 통알로 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타산한 것에 기초하여 종자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농장기사장을 책임자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기술원과 농장원들고 종자고르기조를 조직하고 작업반, 분조감자농사에 필요한 감자종자를 엄선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여 군의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마다 다음해 감자농사에 필요한 다수확품종의 감자종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음(민주조선 11.16)

다음해 감자농사에 사용할 물거름 생산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자강도 랑림군 읍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종축작업반과 비육분조에서 수시로 물거름 생산정형을 파악하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일정계획을 수행하도록 이끌고 있음. 종축작업반은 겨울철에도 물거름을 중단없이 생산하기 위해 물거름받이시설을 갖추어 놓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매일 많은 양의 물거름을 받아내고 있음(민주조선 11.17)

량강도 대홍단군 농업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농사방법의 제한성과 대홍단식 감자농사방법의 우월성을 대비하여 분석하면서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또한 김정일이 현지지도에서 높이 평가한 홍암농장 제4작업반의 감자농사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대대적으로 증식하며 재배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각 농장에 건설해 놓은 30여 개의 감자종자저장고를 적극 이용하여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의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자밭 지력향상을 위해 정보당 100톤 이상의 질 좋은 유기질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민주조선 11.23)

다음해 감자농사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세운 함경남도 부전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면적 확대에 따른 종자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감자캐기작업에 맞춰 실시하였음.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통알감자종자의 기술적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편향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주는 등 종자선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음. 또한 크기와 품종별 부패상태를 가려 보관움에 넣도록 하였음(민주조선 11.29)

○ 감자가공공장 생산동향

량강도 대홍단 감자가공공장 분탕직장에서는 분탕건조설비를 개조하여 건조온도를 자동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분탕생산에서 중요한 풀쑤기공정의 자동온도조절장치도 해결하였음. 엿포장에서는 수작업이 필요없는 연속식냉각설비를 마련하였고 발효공정의 완전자동조종체계를 완성하였음. 또한 되돌이장치, 회수장치 등을 받아들여 음료의 질을 개선하였음. 감자전분직장은 감자전분 생산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 밭에서 캔 감자의 흙, 모래처리를 기계화하기 위한 물모임장과 수백㎥의 물탱크 건설 작업을 벌려 전분생산 이전인 8월에 흙, 모래 처리공정을 새롭게 만들었음(로동신문 10.7)

함경남도 함흥기초식품공장에 완성된 감자가루식품 생산공정은 감자선별공정과 세척공정, 익힘공정, 냉각공정, 껍질분리공정, 검사공정, 압출공정, 혼합공정, 국수공정, 건조공정, 절단공정, 포장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선별공정에서 선별된 감자가 벨트컨베어를 타고 들어와 초벌세척공정과 완전세척공정을 거쳐 익힘기에서 익혀지고 냉각공정에서 식혀져 껍질분리기에 들어감. 껍질이 벗겨진 감자는 검사대를 거쳐 압출식감자분쇄기에서 마른 가루와 혼합되어 국수기에 들어가 국수가 되어 나온 다음 건조기에서 말려짐. 건조된 국수는 절단공정에서 적당한 크기로 절단

되어 제품으로 포장됨(로동신문 10.12)

현대적인 전분생산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질 좋은 감자전분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전분직장장 강명국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방대한 흙을 처리하여 1차물모임장 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들과 함께 돌모래분리기를 개조하고 감자접수장에 기중기를 새로 설치하여 전분생산율을 30%이상 향상시켰음. 공장 일군들은 물저장능력을 종전보다 배로 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전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자처리에서 나오는 섬유찌꺼기 처리능력을 강화하여 전분생산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전분직장 세척공정의 노동자들은 감자세척기와 분쇄기의 가동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기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제공정설비를 담당한 기계공은 과학기술적으로 전분거둠률을 높이고 있음(로동신문 11.13)

○ 감자농사 지원사업

량강도 대홍단군을 지원하도록 한 김정일의 뜻에 따라 인민보안성에서는 해마다 창평농장 제2작업반에 일군들을 파견하였으며 올해에도 해당 작업반을 돕기 위해 창평농장 제2작업반에 현대적인 산업건물을 새로 건설하기로 계획하였고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일군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건설작업을 끝마쳤음(로동신문 10.22)

올해 2월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의 가르침을 전달받은 농근맹중앙위원회는 여러 명의 일군을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감자종자생산을 위한 영농공정별 사회주의경쟁 총화에 필요한 많은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음. 5월 초에는 책임일군이 감자종자심기가 한창인 삼지연군과 대홍단군, 백암군에 내려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감자종자 재배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설해 주었음(로동신문 12.6)

김정일은 량강도 대홍단군과 삼지연군, 백암군농장의 감자농사를 적극 지원한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 감사를 보냈음. 인민보안성에서는 창평농장 제2작업반에 연건평 1,1000여㎡에 달하는 감자종자저장고, 농기구보관고, 청년학교 등을 건설해주었으며 삼지연군의 농장들에서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영농자재를 공급해주고 생산건물과 제대군인들의 살림집을 보수해주었음. 또한 내각사무국 내각수도건설위원회, 도시경영성, 내각대외봉사국 등에서도 백암군의 농장에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벌이는 등 감자농사를 적극 지원하였음(로동신문 12.14, 민주조선 12.11)

국가관광총국의 모든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행사에서 외국인 안내사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총국 내 해당 부서들과 아래단위에서는 기본 임무를 수행하면서 감자농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7월에 총국에서는 부처장급의 일군을 책임자로 하는 적지 않은 인원을 대홍단군 서두농장 제1작업반에 파견하고 많은 자재를 보내주었으며 지원하기로 계획한 작업을 10월까지 끝낼 수 있었음(로동신문 12.26)

생산된 감자의 저장 및 보관과 우량 품종 감자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 성과에 대해 보도

○ 감자 저장

황해북도는 지대적 특성과 감자종자 보관관리에 적합한 저장고를 건설하기 위해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있었던 단위들부터 감자종자 저장고를 건설하고 이를 본보기로 다른 리에 일반화하도록 함. 770여 동의 감자종자 저장고 건설을 시작하여 현재 330여 동이 완공되었고 다음해 농사에 사용할 감자종자를 보관하게 됨(로동신문 9.29)

량강도 대홍단군 창평농장 제2작업반에서 건설한 감자종자저장고에는 지하저장고와 200여㎡의 유리를 씌워 햇빛이 잘 들게 한 종자싹틔우기장이 있음. 지하저장고는 품종별, 규격별로 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12㎏씩 담은 상자가 쌓여 있으며 2대의 송풍기로 저장고의 온습도 조절을 하고 있음. 또한 한번에 300~500㎏의 종자를 싹틔우기장으로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감자종자싹틔우기장은 씨붙임철에 제때에 종자싹틔우기를 할 수 있음. 백산농장에는 7개, 신흥농장과 신덕농장에는 각각 5개, 농사동농장에는 3개의 감자종자저장고가 훌륭히 건설되었음(로동신문 10.21, 민주조선 10.29, 11.23)

○ 우량 품종 감자 생산 연구 동향

량강도 대홍단군 감자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원종생산공장 건설에 돌입하여 7월 초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음. 지금 연구소에서는 11월까지 수십 만개의 감자알을 전부 수확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미 많은 감자알을 수확했음. 관리공들은 온습도 조절과 농약치기, 늙은잎 따주기 등 식물체 가꾸기에 대한 작업을 과학적으로 실시하면서도 동시에 일일 감자알수확계획을 초과달성하고 있음(로동신문 10.22)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에 10여 개의 온실로 된 연건평 5,700여㎡의 공장이 건설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생산하게 되었음. 온실에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한 영양액을 자동적으로 식물체에 분무하여 무바이러스감자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가 갖추어져 있음(로동신문 10.23, 민주조선 10.22)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의 일군들은 김정일의 지원 속에 조성된 현대적인 원종생산기지에서 무비루스잔알감자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음. 연구사들은 어떤 추위에도 영양액의 온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하여 띄우개식 전기난방장치를 만들어 냈음. 관리공들도 무바이러스잔알감자 생산현장에서 원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크기의 잔알감자를 생산하는데 노력해온 결과 지난 한달 여 동안 무바이러스잔알감자 생산량을 종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1.11)

백암군의 감자농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 김정일의 지적에 따라 보건성을 비롯한 해당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량강도 백암군에 감자조직배양공장 건설을 추진하였음. 몇 달 동안에 고압증기가마, 무균작업조작대, 극동기, 조직배양온실 등을 갖춘 현대적인 감자조직배양공장을 완공하였고 이 감자조직배양공장에서는 우량품종의 무바이러스감자종자를 생산하여 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의 감자조직배양기지에 공급할 예정임(로동신문 11.20)

량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종자생산과 감자수확고에 따르는 거름시비, 비배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감자종자 생산을 과학화하기 위해 무바이러스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도내 전반적 지역에 확대재배할 수 있도록 도감자조직배양공장과 시, 군협동농장 감자조직배양온실에서 다음해 감자농사에 필요한 무바이러스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또한 감자밭의 지력 향상을 위해 감자정당 수확량에 적합한 물거름과 유기질거름, 흙보산비료, 화학비료 시비량을 구체적으로 정해 토양성분과 감자의 품종에 따라 거름을 과학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민주조선 12.29)

기타 보도 동향

김정일이 발표한 노작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발표한지 4주년이 되었음. 노작에서 김정일은 종자문제로부터 감자를 통알째 심는 방법, 속성거름을 많이 생산하는 것과 함께 축산을 잘하여 물거름을 생산하는 문제, 감자농사에서 과

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감자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음. 최근에만도 김정일은 대홍단군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감자수확고를 높이는데 따르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었으며 우량품종의 감자종자도 보내주고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위해 현대적인 농기계를 지원해 주었음. 현재 대홍단군 뿐만 아니라 량강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북부고산지대는 물론 온 나라에 감자농사가 도입되어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리고 각지에 감자농사의 과학화를 위한 과학연구기관과 감자조직배양공장이 건립되어 중앙으로부터 하부까지 다수확감자종자 생산체계가 확립되는 등 감자농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민주조선 10.1)

량강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감자전분은 불순물이 없고 잡냄새가 없으며 전분은 백색도가 89%로써 희고 결정광택이 남. 단백질 3.27%가 포함되어 있는 전분은 질이 매우 좋아 많은 급식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쉽게 끊어지지 않고 고유한 맛이 나는 분탕은 감자가 함유한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지방, 광물질,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음. 끈적한 황색의 맑은 액체로 건물질 함량이 75%이상이며 당도 55%인 물엿은 여과를 잘하여 보기에도 좋고 맛은 꿀맛임. 물엿을 굳힌 강엿도 맛 좋고 건강에 좋음(로동신문 10.7)

1998년 10월 1일, 대홍단군을 방문한 김정일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기풍을 세워 감자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감자가공사업을 발전시키고 식생활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감자주식물 가공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인 경공업과학분원 곡물가공연구소는 대홍단군 현지에서 연구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리 식으로 감자쌀과 감자마른국수, 감자가루, 감자빵 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연구를 완성하였음. 이 감자주식물 가공방법은 가공과정에 에네르기를 이용을 최소화하고 감자가 변색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질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임. 곡물가공연구소는 대홍단군에 감자주식물 생산공정을 조성하였으며 국수연구실에서는 감자마른국수 생산공정 연구를 완성하고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여러 단위들이 감자마른국수 생산공정을 도입하게 되었음.

- 감자밥 : 껍질을 벗긴 감자를 끓이다가 그 위에 쌀을 고루 넣어 밥을 지음.
- 감자농마국수 : 감자농마가루에 끓는 물 75%를 넣고 반죽하다가 물이 고루 퍼진 후에 70 ~ 75℃의 물 25%를 넣고 반죽하여 국수분틀에 넣고 누름.
- 감자지짐 : 껍질을 벗긴 감자를 갈아 변색된 윗물을 버린 뒤 소금, 파, 마늘을 잘게 썰고 노릇하게 익힘.
- 감자오그랑죽 : 감자를 갈아 채에 거른 뒤 농마를 섞어 반죽하여 오그랑떡을 만듬. 먼저 강낭콩을 삶아 푹 익힌 다음 감자오그랑떡을 넣어 익히고 이때 쌀을 씻

어 조금 넣음(로동신문 12.19)

감자농사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해온 량강도 대홍단군, 삼지연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음. 해당 군에서 각기 표창식을 열어 표창을 수여한 뒤 진행된 결의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감자농사를 철저히 과학화하고 다수확품종을 심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며 감자종자보관과 관리, 감자가공을 잘해나갈 것에 대해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22)

4. 이모작

주요 농정추진 과제의 하나인 이모작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모작 작업 동향과 함께 기름작물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

○ 이모작 작업 동향

함경남도 고원군 전탄협동농장에서는 올가을에 앞그루로 씨붙임을 해야할 포전들을 확정하고 가을보리심기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웠음.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에서 추수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가을보리 씨뿌리기에 필요한 인력과 여러 가지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동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제4작업반에서는 밭갈이 등 밭준비와 중소농기구 준비를 해놓고 각 공정 간 연계를 합리적으로 하여 씨뿌리기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특히 제2분조에서는 가을보리심기에서 보리의 평당 씨뿌리기양을 정하고 종자를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민주조선 9.28)

황해북도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좋은 종자를 선택하여 공급하는 한편 직접 이모작 적지를 선정하여 앞그루밀, 보리씨붙임 일정계획을 수립하였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앞그루밀, 보리씨붙임을 위한 방식상학을 진행하였으며 시, 군과 기계공장에서 300여 대의 북토기와 파종기 생산을 분담하여 이모작용 농기계생산을 활발히 진행 중임(로동신문 9.27)

오래 전부터 앞그루로 보리를 심어왔던 황해남도 연안군 읍협동농장은 몇 해 전부터 논앞그루로 감자를 심기 위해 생육기일이 짧으면서 소출이 높은 우량한 품종을 선정하도록 하고 거름을 많이 내도록 함. 또한 이랑 너비와 평당 포기수도 지대적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정하였음. 앞그루 감자농사정형을 분석한 농장일군들은 감자가 한창 자랄 때 그 둘레 경작지의 논에서 실시하는 써레치기로 발생하는 냉습피해를 막기 위해 앞그루감자포전을 작업반 단위로 집중배치하였음(로동신문 9.30)

앞그루작물로 감자, 밀, 보리를 심고 뒤그루작물로 벼, 강냉이를 심고 있는 평안남도

개천시는 거름을 많이 낸 포전에 생육기일이 짧으면서 수확고가 높은 종자를 적기에 심고 김매기와 비료주기, 물관리를 주체농법대로 실시하도록 함. 올해 시일군들은 좋은 감자종자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서 적기에 심도록 하였음. 또한 물거름생산시설을 조성하고 생산량을 늘였으며 감자포전마다 물거름을 제때에 공급하도록 함. 시일군들은 앞그루작물 추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뒤그루 벼모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함(로동신문 9.30)

황해북도 은파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1.2배 확장된 면적에 가을밀보리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실시함.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전산협동농장에서 밀보리심기와 관련된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모든 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를 주체농법대로 해나가도록 함. 례로협동농장은 밀보리심기와 벼추수가 겹치는 상황에 맞게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씨뿌리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마련한 여러 가지 비료를 밀보리 심을 논밭에 충분히 내고 평당 씨뿌리는 양을 기술규정대로 준수해 나가고 있음. 신촌협동농장 등 군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가을밀보리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민주조선 10.4)

김순옥이 일하는 협동농장에서는 낟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음해 이모작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관리위원장 김순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농장의 실정에 맞는 다수확품종을 이모작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장일군들은 각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는 소출이 높은 앞뒤그루종자를 준비하고 적지를 선정하여 이모작 면적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또한 농장에서는 토양성분을 분석하고 석탄재, 물거름, 복합미생물비료 등을 혼합하여 경작지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음. 제2작업반은 이모작지에 칠 두엄을 돼지우리, 소우리, 염소우리에서 매일 받아내고 있으며 제4작업반은 감자농사를 위해 좋은 감자종자를 전량 마련해놓고 그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민주조선 11.2)

이모작에서 앞뒤그루작물을 알맞은 시기에 심기 위해서나 이모작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재가 보장되어야 함. 평안북도 정주시 암두협동농장에서는 기계화를 통해 많은 인력을 절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두둑을 지으면서 동시에 흙을 덮는 연결농기계를 만들어 가을밀심기의 일손을 크게 덜어 주었음. 이와 함께 앞뒤그루작물 심는 시기와 앞그루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에 농장의 비생산부문의 인력과 기타작업반의 모든 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음. 비생산부문과 기타작업반의 인력을 여러 조로 나누고 구체적인 작업량과 계획을 제시하여 가을밀심기를 성과적으로 끝마쳤음(로동신문 11.8)

강냉이 대 감자로 이모작을 실시하고 있는 평안북도 룡천군 동하협동농장의 이모작

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이그루로 감자를 심은 것임. 키 큰 작물인 강냉이를 두 줄씩 모아 심고 그 사이에 키 낮은 작물인 감자를 두 줄로 심었으며 강냉이와 감자 사이의 이랑을 종전보다 넓게 하였음. 이처럼 키 큰 작물 사이에 키 낮은 작물을 심음으로써 밭면적에 관계없이 일광조건이 좋아지고 바람이 잘 통해 농작물의 생육에도 도움이 되었음. 또한 강냉이와 감자 사이의 이랑이 이전보다 넓어 후치질을 하기가 편리하고 감자포기에 북을 많이 줄 수 있었음. 지난 시기 이모작을 할 때는 앞그루 감자를 수확하고 뒤그루 강냉이를 심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였으나 강냉이 사이그루로 감자를 심은 뒤부터 감자수확과 강냉이를 심는 시기가 달라 일손부족을 덜 수 있었음. 농장의 경험에 따르면 강냉이 사이그루로 감자를 심고 가꾸는데 있어서 과학기술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같은 밭에 서로 다른 작물을 심는 조건에서 이랑너비와 포기사이 거리를 정확히 유지해야 평당 포기수를 보장할 수 있고 높은 수확고를 낼 수 있음. 강냉이와 감자이랑이 좁을 경우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감자로 인해 강냉이가 가뭄을 타게 되며 두 작물 사이의 이랑을 넓게 할 경우 한정된 면적에 심는 포기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없음. 농장은 강냉이사이그루로 감자를 심고 가꾸는데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농업부문 과학자들과 연계하여 강냉이와 강냉이이랑 사이의 거리, 강냉이와 감자이랑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합리적인 작업도구를 만들어 과학적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음(로동신문 12.7)

타음해 이모작 농사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에 여념이 없는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은 앞그루로 심을 감자, 보리의 재배적지를 정하고 작업반에 계획면적을 할당하여 종자와 거름준비, 가을갈이를 하도록 하였음. 작업반장, 기술원 등 제2작업반 초급일군들은 필지별, 포전별 토양성분을 분석하고 지난해와 그 전해에 감자와 보리를 심었던 포전들을 고려하여 적지를 선정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 작업반에서는 해비침율이 적은 조건에 맞게 감자나 보리를 5~7일 정도 일찍 심어 생육기일을 보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작업반에서는 수확률이 높은 감자와 보리종자를 확보하고 그 보관관리를 주체농법에 맞게 실시하면서 생산한 거름을 이모작지에 공급하였음(민주조선 12.13)

이모작에 사용할 자급비료생산이 한창인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이미 씨붙임을 한 가을밀, 보리밭에 낼 덧거름준비를 하고 있으며 봄밀, 보리씨뿌리기 시기에 쓸 거름준비도 함께 하고 있음. 전체 경작지 30%에 달하는 면적에 이모작을 실시할 목표를 세운 봉산군 청계협동농장은 앞그루작물 추수와 뒤그루작물 씨뿌리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봄철의 일손부족을 덜기 위해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모작 앞그루로 감자를 많이 심는 신계군 침

교협동농장은 감자종자저장고에 보관한 무바이러스감자종자들을 기술규정대로 보관관리하고 있음(로동신문 12.21)

○ 기름작물농사 동향

농업성 일군들은 좋은 기름작물종자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 왔음. 가을철이나 봄철에 앞그루로 기름채소를 심는데 가을철에 심은 기름채소가 기름생산량이 더 높음. 그러나 추위에 강한 기름채소종자가 없어 많은 지방에서 가을철에 기름채소를 심지 못했음. 이에 농업성 일군들은 가을철에 심어도 추위를 잘 견뎌내는 강한 기름채소종자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과학원 공예작물연구소의 방조 속에 추위에 강한 좋은 기름채소종자를 육종해냈음. 그리고 이 기름채소종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국 대부분의 도에 공급함으로써 기름함유량이 높은 기름채소씨를 앞그루로 가을철에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1.5)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와 시주변구역,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기름채소면적을 지난해보다 4배 확대하고 적지선정을 바로 하여 적기에 기름채소를 심도록 하였음. 시와 주변구역, 군의 일군들은 일손이 부족한 추수철에도 불구하고 인력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기름채소심기를 실시하였고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20톤 이상씩 공급하였음. 강남군과 만경대, 사동구역의 농촌들도 질 좋은 거름을 넉넉히 내고 씨뿌리기를 하고 있음(로동신문 11.5)

해마다 이모작의 앞그루로 기름작물을 심어온 황해남도 옹진군은 올해 가을에는 1,440여 정보의 밭에 기름채소를 심었음. 모든 협동농장은 최적기에 기름채소를 심어 씨붙임이 잘 되었으며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기름채소의 겨울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기름남새가 추위에 이상이 없도록 매운재를 뿌려주거나 북을 주고 있음(로동신문 11.5)

기타 보도 동향

○ 선군시대의 이모작 경험 - 박문범이 사업하는 단위 산하농장

박문범이 사업하는 단위의 산하농장은 경작지가 매우 척박하여 앞그루작물종자 선택 문제에 무엇보다 큰 힘을 쏟았음. 농장은 종자들을 면밀히 살펴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좋은 앞그루 밀보리종자를 마련하였음. 생육기일이 75~80일인 이 밀보리는 땅을 가리지 않고 가뭄에 강하며 바람에 잘 넘어지지 않아 수확고가 안정적이며

비료소요량은 다른 밀보리가 비슷하고 싹트임율은 오히려 높기 때문에 심고 가꾸는데도 유리하였음(로동신문 10.12)

농장지도일군들은 좋은 앞뒤그루종자를 확보한 것을 토대로 이모작 면적을 확장하기로 함. 일년에 한번 농사하는 것에 비해 이모작은 인력과 기계수단 등 더 많은 영농물자가 필요함. 앞그루밀보리를 수확하고 뒤그루강냉이 심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 바쁜 영농시기에 농장에서는 수확한 밀보리를 탈곡장으로 운반하지 않고 포전에서 낟알털기를 함으로써 일손을 크게 줄이는 등 알곡 대 알곡농사를 지으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영농공정별, 시기별로 인력과 자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체계적으로 이모작 면적을 확장하였음(로동신문 10.13)

농장은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결하고 앞뒤그루농사를 주체농법에 따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추수작업의 기계화 실현을 위한 사업을 앞그루밀보리 수확과 낟알털기, 뒤그루논벼, 뒤그루강냉이 추수 등 작물별로 실시하였음. 또한 이미 확보된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지대적인 특성에 맞는 현대적인 농기계를 배합하였음. 현대적인 농기계를 선정할 때는 농장의 지형조건에 맞고 농장원들이 다루기에 편리한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김정일이 가르친 대로 크고 작은 농기계들을 배합하도록 하였음. 농장에서 확보한 현대적인 종합씨뿌리는 기계는 밀보리, 강냉이뿐만 아니라 콩 심는 일까지 기계화가 가능함. 이 기계는 밭을 갈고 써레를 치며 씨뿌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다른 농기계들에 비해 기름소비량이 훨씬 적다고 함. 농장에서는 이모작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면서 인력을 대상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대책을 세웠음(로동신문 10.14)

토지가 매우 척박한 이 농장은 수확한 앞그루 밀보리를 탈곡장으로 옮기지 않고 이동식 탈곡기를 이용하여 포전 가까이에서 낟알털기를 진행하였음. 털어 낸 밀보리짚에 닭배설물을 5:1의 비율로 섞어 유기질비료로 생산하였음. 밀보리짚에 닭배설물을 섞을 때는 물에 풀어서 짚 사이사이에 골고루 뿌려주면서 개어 놓은 다음 흙으로 덮게 하였음. 그 다음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한번 뒤집어 주면 당해연도에 앞그루 가을밀보리를 심을 때나 다음해 봄에 밑거름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농장에서는 종축작업반과 작업반 비육분조를 통해 모든 농장원 세대들이 돼지, 닭 등 가축을 많이 기르도록 함에 따라 농장의 거름생산량도 늘어났음. 농장에서는 열두바닥파기와 부식토생산도 실속있게 하여 이모작지를 더욱 기름지게 가꾸었음(로동신문 10.15)

자연샘을 이용하여 만든 농장 새 동네 앞 굴포는 가뭄철에도 물이 마르지는 않았으나 물량이 적어 가뭄철에 굴포 주변 논밭에 관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방도를

찾는 과정에서 농장 주변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종종 바닥을 드러내는 작은 강 상류로 유입시켜 굴포에 흘러 들게 하는 혁신안이 제기되었음. 각 작업반은 굴포의 규모를 확장하고 물길을 따라 흐르는 저수지의 물을 받았고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울 수 있게 되었음. 농장에서는 앞그루 밀보리나 뒤그루 강냉이포전들의 모양에 맞게 굴포나 우물을 이용하여 비탈밭에서는 고량관수를, 평지밭에서는 트랙터강우기관수를 하거나 선진적인 물공급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앞뒤그루 농작물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였음(로동신문 10.16)

이모작에서는 앞뒤그루의 품종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여 배치하며 씨뿌리기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봄밀보리 재배면적이 많았던 박문범이 사업하는 단위산하 농장은 좋은 가을밀보리종자를 마련하여 심었음. 우선 봄에 지온이 낮았던 것에 비해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경작지의 온도와 습도가 씨붙임에 알맞았음. 또한 가을에 심은 밀보리의 싹트임율은 봄에 심은 것보다 더 높았음. 이 뿐만 아니라 가을에 심은 밀보리는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봄에 심은 밀보리보다 가뭄에 강하고 초기생육도 좋았음. 또한 밀보리의 생육기일이 최대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속의 영양물질을 충분히 흡수하여 잘 자라고 여무는 정도도 봄에 심은 것보다 빨랐음. 이모작에서 일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앞그루작물을 수확하고 뒤그루작물을 심을 때로 앞그루밀보리를 가을에 심음으로써 봄에 심은 것보다 빨리 여물어 수확을 보통 한주일 정도를 앞당길 수 있었음(로동신문 10.18)

농장에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모작에서 논앞그루로 밀, 보리를, 뒤그루로 논벼를 심도록 하였음. 농장에서 뒤그루 논벼농사에 이용한 종자는 정보당 종자소요량이 2.5 ~ 3kg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나래와 박막을 절약할 수 있으며 모뜨기에 동원되는 일손을 줄일 수 있음. 또한 모심기한 벼모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에 병해충 피해를 없애고 초기생육을 좋게 하며 생육기일이 짧기 때문에 뒤그루 논벼농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음. 농장에서는 뒤그루 논벼농사에서 모심기한 벼모가 뿌리를 내린 뒤에 고온현상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내기에 지장이 없고 물공급 조건이 좋은 논을 뒤그루 논벼농사적지로 정함. 농장은 3개의 대형굴포를 만들어 논농사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는 한편 선풍기날개의 원리를 이용하여 트랙터로 양수할 수 있는 설비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음. 논물관리공들은 벼모가 뿌리를 내린 뒤에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앞선 물공급방법을 받아 들였음(로동신문 10.22)

논이모작과 함께 밭이모작을 실시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밭이모작에서 뒤그루 강냉

이농사를 기본으로 하여 앞그루로는 밀보리를 심어왔음. 대체로 메마른 땅이 많은 이 농장의 경우 처음 밭이모작을 실시할 때 뒤그루로 강냉이를 심었음. 그러나 장마철이 되자 땅이 질퍽해져 김매기와 후치질을 하기가 힘들었음. 추수가 끝난 다음 비교해보니 습한 땅의 강냉이 수확고가 낮았음. 이를 통해 농장에서는 뒤그루 강냉이적지를 정할 때에는 습한 땅을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 밭이모작은 앞그루 밀보리를 수확한 다음 곧바로 밭을 갈고 강냉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크게 부족함. 어느 해에는 비가 내린 다음 조건이 좋은 때에 강냉이심기를 하면서 일부 면적에서 밀보리를 세워둔 채로 강냉이를 심은 적이 있었음. 강냉이를 수확해보니 그런 포전들의 수확고가 낮았음. 위의 경험으로 농장지도일군들은 앞그루 밀보리를 거둔 다음 반드시 밭갈이를 하고 뒤그루 강냉이를 심도록 하였음. 또한 밭갈이를 하고 심으면 김매기를 한번 실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농장에서는 밭갈이준비를 하고 밀보리 수확이 끝나는 대로 제때에 논밭을 갈아엎고 뒤그루작물을 심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였음. 그리고 밭을 갈 때에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고 깊이갈이를 하도록 하여 강냉이의 초기생육을 돕고 높은 소출을 거두었음(로동신문 10.23)

밭이모작에서 뒤그루로 강냉이와 함께 콩농사도 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앞 뒤그루로 여러 가지 작물을 선택하여 대비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뒤그루 콩농사의 이점을 확신하게 되었음. 농장에서는 본래 다른 밭작물보다 수확고가 낮은 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확고가 높다는 콩종자를 가져다가 심어 보았으나 토양과 기후조건이 달라서인지 수확고가 그리 높지 않았음. 농장일군들은 콩종자를 이 지방의 조건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벌농사에서는 물론 뒤그루로 심어도 다른 품종보다 소출이 거의 2배나 높은 우량한 콩종자를 얻어냈음. 경사가 10°이상인 비탈밭이 많은 농장에서는 비탈밭에 뒤그루로 콩을 심고 땅이 척박한 조건에 맞게 밑거름을 충분히 낸 다음 후치질과 김매기를 하면서 이모작을 하였음. 우선 콩은 크게 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었고 생육기일이 짧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뒤그루작물 심기를 제때에 할 수 있었음. 그리고 비탈져서 영농작업에 불리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알곡 대 알곡 위주의 이모작을 실시하여 생산을 늘일 수 있었음(로동신문 10.25)

박문범이 사업하는 단위산하 농장의 지도일군들은 기술일군과 연계하여 농장기술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앞뒤그루 품종배치문제와 씨뿌리기방법,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여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씨뿌리기로부터 수확에 이르는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는 문제 등 종자문제,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비롯하여 당의 이모작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원만

히 해결해 나가고 있음. 이 농장의 경험은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이모작방침관철에서 과학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토대로 앞뒤그루농사를 잘 지으면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음(로동신문 10.28)

5. 양 어

식량사업의 일환으로 양어 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협동농장 및 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한 양어 사업의 추진 동향에 대해 보도

평안북도 대관군 송남협동농장 2중3대혁명붉은기 제1작업반은 세 개의 양어못에 잉어 등 여러 종의 새끼물고기를 넣어 키워 한해에 1톤 이상의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음. 평안북도 염주군 반곡협동농장 종축작업반은 버섯을 재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과 가축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물고기의 자연먹이를 생산하고 있음. 또한 물고기를 여러 층으로 기르면서 양어못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민주조선 10.4)

함경남도 함흥시 영광청년양어사업소는 분쇄기, 혼합기, 성형기 등 먹이가공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질 좋은 배합먹이를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생산하고 있음. 관리공들은 각 못마다 물을 충분히 대주고 자연먹이조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또한 각 못마다 처리한 가축배설물을 넣어 미생물이 물고기들이 자연먹이로 이용되도록 하고 있음. 벌레잡이등을 설치하고 양어못에 많은 곤충이 떨어지게 하여 질 좋은 단백질 먹이로 이용하고 있음(로동신문 10.13)

1997년 6월 말 김정일이 황해남도 룡연군종합농장 룡정분장(당시) 양어장을 방문하여 양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말씀은 우리나라 양어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 계기였음. 김정일은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양어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해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우량품종의 물고기를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주었음. 이에 따라 황해남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북도에만 각각 수백 개 이상의 새로운 양어장이 조성되었으며 기존의 양어못과 양어시설이 새롭게 보수정비되었음. 양어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함께 수산성 양어관리국과 각 도, 시, 군양어사업소는 늘어나는 양어장 수요를 맞추기 위한 물고기 확보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년 간 양어장 면적은 4.6배, 민물고기 생산은 3.6배 증가하였음(민주조선 11.17)

130여 개의 실내, 야외양어못으로 구성된 평양메기공장은 양어못에 대한 온수공급에서부터 알깨우기실, 여러 가지 먹이서식장들과 먹이가공실, 냉동실, 계량실 등이 모두 현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메기양어에 대한 연구사업조건과 시설도 완비되어 있음. 잡식성물고기인 메기는 영양관리, 기술관리에 따라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화한 뒤 3개월에 300g이 되며 5개월이면 500g까지 성장함. 올해 평양메기공장에서 부화시켜 넣은 메기는 최고 6kg, 평균 900g에 달함(로동신문 11.28)

대규모의 현대적인 메기생산기지로 자리잡은 평양메기공장은 수도의 상점들과 식당 등에 메기를 공급하고 있음. 김정일은 동평양화력발전소의 폐수를 메기공장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기발한 착상을 통해 메기공장 건설을 이끌어 주었음. 또한 메기공장 건설정형을 항시 살피고 20여 차례에 걸쳐 가르침을 주었으며 현대적인 설비들과 윤전기재 등 공장관리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주었음. 메기생산에서 중요한 먹이문제에 대해 김정일은 동물성단백먹이를 자체로 해결하도록 방도를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메기생산 보고를 받고 메기를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음(로동신문 12.3)

박인철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양어장의 종업원들은 물고기의 생물학적 특성과 계절적 조건에 따라 과학기술적으로 물고기를 길러 증체율을 높이기 위해 각 물고기못에서 물고기들의 성장속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우는 한편 최신양어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선진양어방법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자연먹이의 비중을 높여 칠색송어를 비롯한 민물고기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민주조선 12.4)

○ 박인철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양어장 현지지도(10.16)

김정일은 산 속의 샘줄기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된 양어못을 차례로 돌아보면서 양어장 확장공사 진행정형과 양어실태를 알아보았음. 김정일은 양어장의 종업원들이 양어장을 규모있게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양어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에 민물고기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많이 공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의 작업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김정일은 최근 전국 도처에 현대적인 양어장들이 건설되고 사양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민물고기 생산이 증가하였고 인민들이 그 덕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김정일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양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양어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는데 지침이 되는 강

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17)

김정일은 수로식으로 만든 양어장에서 돌로 수로를 쌓은 것에 대해 만족해하면서 시멘트로 수로를 쌓을 경우 부식작용이 있어 양어에 좋지 않다고 가르쳐 주었음. 김정일은 물고기 먹이 주는 방법, 양어장 건설과 물고기들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관리방법,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양어를 해온 사람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순간에 포착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음. 24호, 25호못에 이른 김정일은 물고기못의 크기에 대해 알아 보고 물고기를 기르는데 편리하도록 못을 막아 물고기가 자라는데 좋은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양어못을 지나 수원지에 이른 김정일은 숙소에서 사용하고 난 퇴수가 양어못에 흘러들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었음(로동신문 10.25, 민주조선 10.27)

○ 양어장 건설 및 확장공사

강원도는 메기생산과 새끼고기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메기공장 건설을 추진함. 도인민위원회는 온천물을 이용하여 사철 메기를 기르기 위해 갈산온천지구에 메기공장을 건설할 목표를 세웠음. 3,000㎡의 부지에 물혼합장과 먹이서식장, 합숙 등이 건설되며 1,500㎡의 야외못이 조성될 예정임. 메기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46℃의 온천물을 찬물과 혼합한 27℃~28℃의 물을 종어장과 비육장에 공급하게 되며 겨울철에도 물고기를 기를 수 있게 됨(민주조선 9.24)

평양시 강동군 고비협동농장농장 주변에 있던 벽돌공장에서 벽돌생산을 위해 파놓은 웅덩이 자리에 양어장을 조성하자는 안이 제기되었고 청년동맹원들이 나서서 양어장을 규모있게 조성하였으며 둘레에 버드나무 등 나무도 많이 심었음. 농장은 다른 양어장, 양어사업소와 연계하여 새끼물고기를 공급받고 두명의 농장원으로 하여금 양어장 관리를 하도록 하였음(로동신문 11.4)

욕평벽돌공장은 수십 년 동안 원토장으로 이용하던 웅덩이를 손질하여 양어장 건설을 추진함. 진흙을 퍼낸 구덩이를 규모있게 정리하고 600여㎥의 돌로 양어장 둘레에 옹벽을 쌓았음. 이어 양어장못에 물을 채우고 새끼물고기를 넣어 관리공을 배치하는 등 짧은 기간에 양어장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민주조선 11.12)

평안북도 벽동군은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짧은 기간에 1만 7,000㎥의 토량을 처리하고 1,000m의 물길을 내어 양어장을 건설하였음. 800㎥의 돌을 운반하여 장석공사를 끝마치고 수원지를 건설하여 양어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음. 이어 여러가지 새끼물고기들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음(민주조선 11.16)

함경북도 새별군은 대다수 강과 하천들을 물살이 급하고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장마철에는 홍수위험이 있어 대규모의 양어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음. 그러나 제방을 쌓은 룡천강 상류 바깥쪽 수십 정보 면적의 자갈밭을 양어장 적지로 선정하였음. 강바닥자리인 그 자갈밭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양어장 적지로 적합하지 않았고 장마철의 홍수를 막기에도 어려운 조건이었음. 일군들은 시멘트 대신 이 곳에 흔한 돌로 석축을 하여 건설자재를 보장하고 바닥을 파서 진흙다짐을 함으로써 물이 새는 것을 막았음. 또한 일대에 흔한 돌로 제방을 보강하고 상류에 언제를 막아 발전소도 건설하여 홍수피해를 막고 양어장 관리에 필요한 전기문제를 해결하자고 건설구상을 제시하였음. 이로써 일년 남짓한 기간에 보강된 오룡천가의 제방을 따라 2㎞ 길이에 120m의 폭을 갖춘 양어장을 건설하였음. 양어장에는 수십 개의 양어못과 과학기술지식선전실, 알깨우기실, 먹이가공실, 오리와 돼지를 사육하는 가축우리가 현대적으로 건설되었음(민주조선 12.5)

기타 보도 동향

○ 양어의 과학화

양어과학연구소연구소는 종자물고기 생산방법과 원리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메기 등 물고기의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자연먹이실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지에서 실정에 맞는 메기의 초기먹이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물고기배합먹이실에서는 물고기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배합먹이연구사업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집약화양어연구실에서도 메기공장, 양어장에서 새끼메기와 어미메기의 나이와 크기에 맞게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민물고기번식연구실에서는 생산량이 높고 번식이 빠른 새로운 종류의 물고기를 확산시켜 그 생산을 늘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11.22)

메기공장들과 양어장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메기와 붕어 등 더운물에서 자라는 종자물고기에 대한 물관리와 영양관리, 온도와 산소보장을 기술규정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함. 또한 칠색송어를 비롯한 찬물물고기들의 산란준비를 해야 하는데 1월 칠색송어의 산란시기에 맞춰 영양관리, 물관리를 잘하는 한편 산란, 부화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여야 함. 양어사업소에서는 우리의 자연먹이원천, 우리 식의 배합먹이처방, 우리 식의 배합먹이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영양가 높은 물고기배합먹이를 적극 생산이용하도록 해야 함. 또한 양어부

문 일군들과 양어공들은 양어를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기술학습을 진행하여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방침을 관철해 나가야 함(로동신문 12.28)

양어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제5차 전국양어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생산부문에서 최중화가 일하는 양어사업소에서 발표한 '컴퓨터에 의한 물고기먹이배합기술에 관한 연구'가 큰 관심을 끌었음. 170여 건의 물고기먹이대상 선정과 70여개 지표의 성분함량의 조사, 프로그램 작성, 우리나라의 원료를 이용한 첨가제의 생산과 물고기들의 종류별, 생육단계에 따르는 과학적인 배합먹이 처방이 작성됨으로써 어디서나 각종 배합먹이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또한 최중화가 일하는 양어사업소는 속성양어인 메기양어에서 먹이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면서 짧은 기간에 속성비육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 물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물고기의 증체율과 생산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이 양어사업소는 같은 먹이를 가지고 물고기생산계획을 125% 이상 초과달성하였음(로동신문 12.28)

○ 양어공장 조업식 개최

6일 진행된 평양메기공장 조업식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메기공장 완공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정일이 공장이름을 평양메기공장으로 명명하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되는 메기를 수도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해 준 것에 대해 언급함. 이와 함께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메기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7)

서해기슭에 새로 건설된 뱀장어양어장은 5만 8,000여㎡의 부지면적에 3개 호동의 양어장과 여러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수백 톤의 뱀장어를 생산하게 됨. 13일에 진행된 뱀장어양어장 준공식에서 보고자는 김정일이 뱀장어양어장을 뱀장어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건설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령적인 말씀을 주었으며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조치하여 주신 것에 대해 언급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14)

6. 기타 보도동향

과수 부문

황해남도 벽성군 읍협동농장 3대혁명붉은기 과수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벌이면서 올해 과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을 농장의 결의목표에 반영하였음. 거름생산원천이 부족한 실정에서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군소재지와 해주시까지 나가 진거름원천을 찾아냈고 물길가셔내기, 가축우리 바닥파기 등 모든 가능성과 방법을 동원하여 거름을 생산하였음. 트랙터 운전수들도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여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생산한 거름을 운반하였음. 작업반은 올해 수천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였고 과수밭 정보당 60톤씩 냄으로써 과일생산량을 늘일 수 있었음. 또한 올해 대용농약을 만들어 미연에 과일나무 병충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과일나무모를 자체로 생산하여 과일나무 수종을 개량하며 일터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조성한 것은 작업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노력한 결과임(민주조선 11.9)

황해북도 황주과수농장은 1~2년 사이에 과일이 열리는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어 성과를 보고 있음. 이전의 키큰 사과나무는 나무모를 심어서 4~5년이 지나야 열매가 열렸으나 키낮은 사과나무모는 1~2년 사이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음. 또한 키가 작기 때문에 약뿌리기와 과일따기 등 과수작업이 수월하여 과일농사의 과학화·전문화·기계화에 유리함. 과일나무 사이에 녹비작물을 심도록 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농장에서는 키낮은 사과나무 사이에 오리새를 비롯한 질 좋은 녹비작물을 심어 땅을 기름지게 가꾸었음. 특히 풀을 깔게 된 이후부터 부식퇴비를 내지 않고도 땅을 기름지게 유지할 수 있었음(로동신문 9.16)

과일농사를 과학화·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종자혁명을 이루어야 함. 과수학연구소와 과수농장들은 과수업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일나무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하며 과일농사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확립해야 함. 과일생산을 전문화하는 것도 중요함. 황해남도 과일군을 과일생산기지로 육성하여 이를 본보기로 과수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당의 의도를 훌륭히 관

철해야 함. 과일군에 새로운 품종의 과일나무모와 현대적인 농기계, 영농자재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며 모든 단위들은 과수원 조성사업에서 경제적 실익을 거두어야 함. 또한 농장들은 과일농사에서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작업공정을 기계화하여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작업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또한 과수밭을 규모있게 정리하여 영농작업을 기계화하고 단계별로 그루바꿈을 실시하여 과수밭을 정리하도록 함(로동신문 9.16)

과일농사의 과학화·현대화를 실현하는 기본은 종자혁명이며 중요한 공정인 과일나무 접붙이기를 성과적으로 실시해야 함.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는 전국적인 과일나무 접붙이기경기를 조직하였고 평양과수농장, 황주과수농장, 평원군 등 여러 지역 농장의 접공들이 참가하였음. 이번 경기에서 평양과수농장의 김광철을 비롯한 6명의 접공들이 기술상을 받았고 평원군에서 온 접공 고금순은 하루 2,300여 그루를 접붙여 이번 접붙이기경기에서 특등의 영예를 안았음(로동신문 9.16)

토지정리 부문

김정일이 교시한 토지정리를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평안남도돌격대원들의 결의모임이 25일 평성시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연료와 부속품을 절약하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통해 작업능률을 높여나갈 것을 강조함. 또한 기술일군들은 시공에서 자재, 인력을 절약하고 기술적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함(로동신문, 민주조선 9.26)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는 그 면적이 총 9만 정보로, 2단계로 나뉘어 진행하게 되어 있는 방대한 대자연개조사업임. 수도 주변 농촌의 토지정리를 담당한 평양시, 개성시돌격대원들은 봄철에 이미 3,45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였으며 가을철토지정리를 진행하여 총 계획의 50%를 완수해냈음. 이로써 현재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4만 4,000여 정보의 토지가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었으며 1단계 과제가 기본적으로 완수됨에 따라 2단계 토지정리가 진행되고 있음(로동신문 12.17)

김정일은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 토지정리에 참가하고 있는 각도 돌격대원들에게 은정을 베풀어 주었음. 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전체 건설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 김정일은 돌격대원들에게 솜옷과 가족들과 설을 잘 보내도록 식료품을 보내주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31)

○ 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평안남도 숙천군, 평원군 등 도내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토지정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김정일은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에 이어 평안남도와 평양시, 남포시의 토지정리사업이 원만히 추진됨으로써 영농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고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하였다고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김정일은 새땅을 개척하여 알곡생산을 늘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지정리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토지정리를 진행한다면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의 토지정리를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여러 도의 토지정리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선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의 토지정리를 완수하고 난 뒤에 황해북도와 개성시, 함경남도에 역량을 집중하여 토지정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김정일은 토지정리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질 좋은 거름을 많이 공급하여 지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13)

기타 영농 부문

○ 추수동향

강원도와 황해남도, 평안북도의 농촌과 개성시, 남포시 그리고 북부고산지대에서도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 모든 협동농장은 추수준비를 마치고 곡식이 여무는 대로 거두어 들여 추수를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강냉이추수에서는 평양시가 앞서나가고 있고 이모작지에서는 추수에 이어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연이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황해남도의 모든 군에서는 강냉이 추수에 인력과 운반수단을 적극 동원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있음. 북부고산지대인 대홍단군과 삼지연군, 백암군 등 량강도, 자강도에서도 감자캐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로동신문 9.20)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벼수확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작업반, 분조에서 벼수확기에 보조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기계화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정방협동농장은 벼베기와 단묶기, 동가리치기 등 공정별 작업들을 흐름식으로 진행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있음(로동신문 9.26)

강원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각 협동농장에서 벼수확준비를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벼모를 낸 날짜와 작황정형을 따져서 벼가 잘 익은 논부터 추수를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음. 안변군 풍화, 천삼협동농장에서는 벼추수 일정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총집중하여 섬멸전으로 벼를 베고 있으며 철원군 마장협동농장을 비롯한 철원군의 협동농장에서는 벼베기와 볏단묶기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운반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음(민주조선 9.27)

황해남도 청단군의 양화, 화산협동농장은 볏단 운반 매 공정마다 벼이삭을 흘리는 현상을 막으면서 탈곡을 하고 있으며 연안군의 아현, 소정, 룡호, 해월 등 10여 개 협동농장은 탈곡에서 벼이삭을 흘릴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대책을 세우는 등 탈곡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배천군의 모든 협동농장들은 매일 작업을 결산하면서 낟알허실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탈곡작업을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11.12)

볏단운반과 탈곡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볏단운반과 탈곡에서 함흥시 풍호협동농장이 앞선 실적을 올리고 있음. 풍호협동농장은 트랙터, 소달구지 등의 운반수단과 함께 등짐으로 볏단을 운반하여 하루 볏단운반 실적을 일주일 전에 비해 1.5배 이상 올리는 등 계획보다 많은 볏단을 운반하여 탈곡장에 실어 들이고 있음. 구흥, 부민, 동흥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볏단운반 실적을 올리고 탈곡을 하고 있음(민주조선 11.15)

○ 기름작물 농사

새로운 품종의 유채육종 연구사업을 시작했던 농업과학원 공예작물연구소 유채연구실에서는 앞그루로 가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유채품종을 육종하여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나 추위에 약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릴 수 없었음. 평양시 일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유채품종 연구에 돌입한 연구사들은 추위에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은 유채품종을 육종해냄. 새 품종은 9월 중순경에 심어서 다음해 6월 5일 경에 수확하기 때문에 이전의 품종보다 10여 일이나 일찍 수확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뒤그루 알곡수확고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수확량을 보장할 수 있음(로동신문 9.22)

가을유채밭 관리의 기본은 겨울이 되기 전에 식물체를 튼튼히 키우는 것으로 씨솎음을 3회 정도 실시해야 함. 1회는 식물체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솎아 주고, 2회는 본잎이 2 ~ 3매 되는 시기에 포기 사이 간격이 4 ~ 5㎝정도 되게 하며 3회는 본잎이 4 ~ 5매 되는 시기에 포기 사이 간격이 6 ~ 7㎝되도록 솎아 줌. 4월 중순경에는 흙

을 긁어주는 식으로 김매기를 하며 4월 중하순에는 2차 덧거름을 주고 뒤이어 1~2회 후치질을 해줌. 유채는 꽃망울이 생겨서 꽃이 피고 여무는 기간에 적어도 2~3회 이상의 물대기를 해야 함. 이 시기에 유채의 물흡수량이 제일 많은데 우리 나라에는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물대기를 하지 않으면 씨앗소출이 낮아짐(로동신문 9.22)

평안남도 안주시 운송협동농장은 기름아마를 이모작의 앞그루로 심고 있는데 3월 중순에 씨뿌리기를 하고 6월 하순에 추수하고 있음. 기름아마는 자라는 기간동안 꽃과 잎이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데 땅에 떨어진 꽃과 잎은 좋은 거름원천이 되어 뒤그루로 심은 벼와 강냉이에 유익함. 또한 기름아마짚은 고급종이원료로 사용이 가능함(로동신문 9.23)

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곡물가공연구소는 여러 단위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는 키낮은해바라기, 기름채소, 기름아마, 수유나무, 기름밤나무 등의 열매에서 먹는 기름을 생산하는 방법을 우리식으로 완성하는 것과 함께 그 실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연구소는 키낮은해바라기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껍질벗기는 기계를 창안제작함으로써 기름실수율을 종전보다 3~5% 더 높일 수 있게 하였음. 기름아마씨에서 기름을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음. 또한 기름채소를 협동농장과 여러 공장들의 기름생산공정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정제방법을 연구완성함으로써 기름생산과 실수율을 보다 높일 수 있게 하였음. 기름밤의 껍질을 벗기는 새로운 기계를 설계제작하여 기름실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수유나무열매에서 짠 수유기름의 쓴맛을 없앨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새롭게 밝혀냄으로써 수유기름이 먹는기름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로동신문 10.18)

○ 채소 재배

평안남도 평성시 덕산협동농장은 여름내 장만한 유기질거름의 성분함량을 따져가며 채소의 생육상태에 맞게 공급하고 후치질과 김매기를 실시하고 있음. 배산협동농장은 도시의 유기질거름 원천 확보에 힘을 쏟고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제때에 포전에 실어내고 있으며 모든 공정별 작업을 기술규정대로 해나가고 있음. 후탄, 자산, 백송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에서도 자체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시의 유기질거름을 실어내어 덧거름을 채소밭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채소밭 주위에 물도랑을 터서 고인물 피해와 병충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민주조선 9.20)

개성시는 강냉이뒤그루 채소가꾸기를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협동농장에서는 뒤그루채소 포기마다 덧거름을 충분히 주고 김매기를 잘하여 채소의 생육조건을 보장하고 있음. 덕암, 송도 등 시주변협동농장과 개풍군 해선, 연릉협동농장에서는 가을채소덧거름주기를 비롯한 채소가꾸기를 주체농법대로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10.4)

황해북도 토산군 석봉리 채소작업반은 채소밭 김매기를 실속있게 하면서 물대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3대혁명붉은기 제1작업반 등 다른 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도 김매기와 배수로치기 등 가을채소밭 가꾸기를 성실히 해나가고 있음. 평안남도 평원군 송석협동농장 제1, 2작업반은 김매기를 질적으로 실시하면서 덧거름주기도 제때에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음(로동신문 10.9)

황해남도 옹진군 립석협동농장은 제7작업반에 태양열채소온실을 본보기로 건설한 뒤 이 온실에서 보완할 사항들을 파악,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태양열을 많이 받도록 온실앞면의 각도를 지형조건에 맞게 바로 정하고 밤에도 온실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열저장장치를 연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농장일군들은 제7작업반의 태양열채소온실을 개방하여 다른 작업반들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음. 각 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은 태양열채소온실 건설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각 작업반 특성에 맞게 온실위치를 정하였으며 필요한 자재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등 짧은 기간에 태양열채소온실이 모두 완공되었음(민주조선 12.8)

○ 잠업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은 산중턱에서 흐르는 샘물을 이용하여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뽕나무밭에 분수식 관수를 실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물탱크를 비롯한 관개설비, 자재를 힘겹게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투쟁을 거듭하여 짧은 기간에 무동력 분수식 관수체계를 도입하였음. 이 무동력 분수식 관수체계는 산중턱에서 샘물을 자연 흐름으로 뽕나무밭 최상층에 설치한 물탱크에 흘러 들게 하고 물탱크 내에서 생기는 수압으로 분무기를 돌려 관수를 하게 되어 있음(민주조선 9.20)

금풍농장 잠업작업반은 봄누에고치 생산계획을 105% 달성한데 이어 가을누에고치 생산에 한창임. 작업반에서는 뽕나무잎 생산을 늘이고 누에관리를 기술규정대로 하며 적합한 온습도를 보장해주고 있음(로동신문 9.24)

황해남도 청단군 소정협동농장 잠업작업반 윤정옥은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올해 현재까지 1톤 280여kg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뽕밭 정보당 고치생산량과 일인당 고치생산량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기록임. 윤정옥은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밭에 내고 비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누에먹이를 충분히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도 여러 단계 누에치기방법을 적극 도입하였음. 또한 누에의 생육조건에 맞게 온습도를 조절하는 한편 자리 갈아주기, 누에치기 자재소독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민주조선 9.24)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잠업분조는 누에가 잘 걸리는 고름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랜 노력 끝에 찾아냈음. 우선 매운 고추를 짓이겨 우려낸 다음 고추를 우려낸 물에 혀를 댔을 때 약간 매울 정도로 물을 탐. 그것을 뽕잎에 발라서 누에에게 매일 하루 한번씩 먹이니 고름병이 전혀 생기지 않았으며 설사 고름병에 걸린 누에라도 금새 병이 없어졌음. 분조에서는 누에가 자라는 것에 맞게 먹이를 조절해주고 잠실의 온도, 습도를 과학기술적 기준에 따라 준수하고 있음(로동신문 10.24)

자강도 잠업관리국 일군들과 잠업부문 과학자, 연구사들은 북부고산지대의 기후특성과 토양에 적합한 여러 가지 우량품종의 뽕나무를 육종하였고 뽕밭 정보당 뽕잎생산을 늘이기 위해 계응상 사리원농업대학 잠학연구실의 연구사들과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도의 실정에 맞는 뽕나무초밀식 기르기방법을 연구완성하였음.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에게 뽕나무초밀식 기르기방법을 지도하였고 조의 잠업전문농장, 고치농장, 협동농장의 잠업작업반, 잠업분조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종전에 비해 뽕잎생산을 3배 이상 늘일 수 있게 되었음(로동신문 11.12)

기초식품공장

자강도의 기초식품공장들은 현행 생산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서 정보산업시대에 걸맞게 기초식품 생산공정에 현대과학기술성과를 받아 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강계기초식품공장에서는 된장, 간장생산의 중요공정인 곡자생산공정, 효소분해공정의 컴퓨터화를 실현하고 장작업반의 찌꺼기공정, 균접종공정 등 여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만포장공장은 발효탱크의 온도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실시하고 장의 수분과 염도보장 등 기술지표를 준수함으로써 기초식품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을 늘렸음. 전천장공장, 고풍장공장, 중강장공장, 동신장공장 등 기초식품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에서는 기초식품생산공정을 보다 현

대화하기 위한 기술학습과 기술전습을 강화하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에 힘을 쏟고 표준조작법을 준수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음(민주조선 9.24)

최근 전국적으로 16개의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이 건설 및 개건확장되어 큰 생산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평양시, 남포시,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하여 도, 시, 군에 건설된 기초식품공장에서는 된장, 간장 등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음. 평양기초식품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북창기초식품공장 등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한편 설비의 가동을 높여 기초식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음. 삭주식료공장은 생산공정마다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생산계획량을 초과달성하고 있음. 남포기초식품공장은 지난해 2단증자법을 연구하여 생산에 도입한데 이어 올해에도 여러 건의 기술혁신을 진행하여 생산공정의 부문구조를 완비해 가고 있음(로동신문 9.26)

황해북도 곡산군식료공장은 어린이식료작업반에 콩우유생산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원료기지 개간작업을 벌려 해마다 콩우유 생산용 콩을 수십 톤 이상씩 생산하였음. 공장은 읍지구의 중학교는 물론 군의 8개 리에 있는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25개 단위의 수천 명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일 콩우유를 공급하고 있음(로동신문 9.26)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공급하기 위한 김정일의 구상에 의해 조성된 함경남도 함흥기초식품공장은 일주일 이상 배양하던 젖산균과 효모균을 새로운 방법을 24 ~ 48시간 배양하여 메주배양에 동시이용함으로써 40일이 소요되던 된장 숙성기일을 열흘로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지금 공장에서는 콩우유생산공정과 감자식품생산공정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로동신문 12.22)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각도, 시, 군에서는 이번 총동원기간에 아카시아나무 등 수종이 좋고 이용가치가 큰 나무들을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특히 고속도로와 관광도로 등 중요도로 주변에 수림 조성을 준비중이며 강하천정리와 해안방조제 보수를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도, 시, 군에서는 올해 장마철기간에 수해를 입었거나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청천강, 압록강, 두만강 등 90여㎞의 강들과 1,200여㎞의 중소하천들에 대한 강바닥파기와 물길곧추펴기, 제방공사, 돌쌓기공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로동신문 9.16, 민주조선 9.17)

국토관리총동원기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새 세기에 맞게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 풍족한 경제자원을 마련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경제 전반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와 관련되지 않은 인민경제부문이란 없음. 김정일은 최근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토지정리사업을 몸소 발기영도하였고 전선시찰과 현지지도를 통해 항상 국토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음.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의 국토건설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국토관리총동원기간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함.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나무심기에서 주요 도로와 철도 주변을 수림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좋은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함. 또한 내년 봄철에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사업도 계획성 있게 해놓아야 함. 전반적 도로들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며 강바닥파기, 제방쌓기 등 홍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하천정리사업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함. 특히 올해 장마철에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이번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파손된 주요 도로들의 포장면과 굴, 다리, 옹벽, 연석 보수를 하여 피해를 입은 강하천 제방을 신속히 보수정리하도록 해야 함. 또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 등 바다를 낀 도에서는 해일피해를 막기 위한 해안방조제 보수공사도 적극 실시해야 함. 지방정권기관들과 국토관리기관들은 매 단위들의 인력실태와 수송수단, 공구준비, 나무모와 자재보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사업 분담을 치밀하게 조직해야 함. 특히 시, 군 인민위원회는 국토관리총동원기간사업이 진행되는 실태를 단위별·일별로 파악하고 결산하며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민주조선 10.4)

평안남도 덕천시는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26만 4천여 그루의 나무심기와 수㎞의 제방건설 및 보수 등을 목표로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대동강관리소는 시와 연계하여 삼탄제방건설과 제남제방건설 및 보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또한 시랑강, 형봉천, 무창천제방 등 강하천 제방보수와 대동강호안공사를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11.17)

이번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시는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할 목표를 세우고 시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 확립사업을 실시하여 나무모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음. 강원도청년동맹위원회는 일주일 동안에 50여 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을 조성하였으며 평안북도 염주군은 도로 주변 320여 정보의 산에 계단을 만들고 다음해 봄철에 나무를 심을 200여 만개의 구덩이를 파놓았음. 70개 대상의 우회도로 건설목표를 세운 황해북도를 비롯하여 량강도 김정숙군, 평안북도 삭주군 등에서도 도로 보수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이정표와 안내표식물, 위험방지석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 수송능력을 높이고 교

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하천 정리사업을 벌려 회령천의 700여m 구간과 팔을천의 6,400여m 구간을 정리하였으며 함경남도 리원군은 10일 동안에 4만 4,000여㎥의 강바닥파기와 제방쌓기, 1만 9,000여㎡의 석축공사를 진행하여 군 내 중소하천을 정리하였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 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20여일 동안에 6,800여 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근 2,000㎞의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사업과 1,000여㎞의 크고 작은 강하천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이 기간에 1만 4,000여 정보의 토지가 정리되고 2만 5,000여 동의 살림집, 공공건물이 보수되었으며 50여 개의 양어장이 건설되었음(민주조선 11.19)

농촌문화주택 건설과 메탄가스 이용

최근 몇 해 사이에 전국적으로 11만 3,600여 동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새롭게 건설되어 농업근로자들이 집들이를 진행하였음. 이 기간에 황해남도는 1만 5,000여 동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이 건설되어 110여 개의 새마을과 15개의 60동 마을이 생겨나고 평안북도는 370여 개의 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등 도처에 수많은 농촌문화주택 마을이 생겨났음. 각지에 새로 건설된 농촌살림집 내부에는 여러 칸의 살림방, 전실, 목욕탕이 있고 야외에는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에 맞게 가축우리, 퇴적장과 부속건물이 갖추어져 있으며 집 둘레에는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들이 심어져 있음(로동신문 10.7, 민주조선 10.5)

매 가정세대들이 메탄가스로 취사를 하도록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협동농장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150㎥의 메탄가스발효탱크 2개를 건설하여 농촌살림집의 메탄가스화를 실현하였음. 농장일군들은 각 세대의 메탄가스화가 더욱 효과를 발휘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11.1)

농촌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 김정일의 뜻에 따라 전국적으로 610여 개의 새 농촌마을이 건설되음. 자강도와 량강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건설된 610여 개의 농촌마을은 농장원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모든 시설을 다 갖춘 2칸, 3칸짜리 농촌살림집으로 이루어져 있음. 특히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의 55동마을과 같이 전기난방화된 살림집들도 적지 않음(로동신문 11.13)

태용연료생산기지로써 메탄가스생산기지를 조성한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은

수십㎥의 메탄가스 발생탱크 2개와 메탄가스 저장탱크, 현대적인 발전기실을 갖추고 메탄가스와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로 트랙터 등 농기계부속품 생산과 살림집의 조명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트랙터와 4마력 원동기를 돌려 논밭갈이, 모내기, 김매기를 하고 있음(민주조선 11.17)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에 36세대의 문화주택과 탁아소를 비롯한 문화후생시설이 짧은 기간에 건설되었고 21일에 새집들이를 하였음. 살림집들은 두 칸의 살림방과 전실, 부엌, 세면장, 위생실이 있고 가구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야외에는 창고와 가축우리들이 있음(로동신문 11.22, 민주조선 11.23)

함경남도 함주군은 올해 1,313동에 1,725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제대군인과 전쟁노병들의 터전을 마련해주었음. 금야군도 올해 읍지구에 7동에 193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등 모두 264동에 712세대의 살림집을 완공하였음. 영광군도 올해 517동에 699세대, 홍원군도 550동에 586세대, 허천군은 306동에 331세대의 살림집을 각각 건설하였음. 이에 따라 함경남도는 올해 5,297동에 8,483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1.29)

겨울철에도 메탄가스를 생산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학원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겨울철에도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발효탱크의 보온방법과 원료보장방법을 우리식으로 밝혀냈음(로동신문 12.22)

기타

평안북도 삭주군 내옥협동농장은 실정에 맞게 버섯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버섯재배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도록 농장원들을 이끌고 있음. 버섯작업반 박상선을 비롯한 농장원들은 영지버섯 생산에 힘을 쏟고 있으며 분조장 박상택과 분조원들은 버섯생산의 첫공정부터 과학기술적 기준을 준수하여 종균배양율을 높이고 있음. 관리공들은 재배장에서 온습도 보장을 위한 공기갈이와 물주기를 제때에 하여 버섯의 생육조건을 좋게 하여 버섯생산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민주조선 9.29)

계응상사리원 농업대학에서 크기가 작고 사용하기 편리한 밀폐식 만능소형종합탈곡기를 제작하였음. 탈곡기는 탈곡살을 어떻게 잡는가가 중요한데 개발자들은 탈곡동에 철판을 감은 다음 용접으로 원의 접선방향으로 탈곡살을 붙였으며 채판도 종

전의 그네식이 아니라 키질을 하는 식으로 만들었음.또한 송풍기를 새롭게 설치하여 탈곡할 때 나는 많은 먼지를 흡수함. 이 탈곡기는 벼, 강냉이, 밀, 보리 등 모든 알곡작물의 탈곡이 가능함(로동신문 10.11)

평양농기계작업소 가공작업반은 트랙터 수리에 필요한 수십 가지의 부속품 가공에서 새로운 가공지구를 도입하여 수리기간을 단축했으며 수리의 질을 향상시켰음. 농기계작업반원들은 함께 유색금속주조로를 무동력을 개조하여 전기를 쓰지 않고 트랙터 수리에 필요한 피스톤, 늪메달 등을 생산하여 쓰고 남는 것은 다른 단위들에 보내주고 있음. 그리고 3연식틀보습, 작조기, 살써레, 복토기 등을 생산하여 영농작업의 기계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로동신문 10.29)

개천-태성호물길은 대동강물이 전기없이 자연흐름 그대로 흘러 태성호를 비롯한 나라의 서부지구 저수지를 채우고 있음. 개천-태성호물길은 우리나라 관개건설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흐름물길로 자랑스러운 대기념비적 창조물임. 개천-태성호물길공사가 완공됨으로써 농업생산을 더욱 늘이며 국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고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됨. 개천-태성호물길의 완공으로 평안남도, 남포시, 평양시의 15개 시, 군, 구역의 10만 정보의 경작지에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385개소의 양수장과 536대의 양수기가 없어졌으며 많은 전동기와 변압기가 필요없게 되어 전기를 수만㎾나 절약하게 되었음(로동신문 11.10)

3대혁명붉은기 원산농업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은 나라의 농업을 기계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음. 원산농업대학에서는 논밭갈이기계로부터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 비료주는기계, 벼수확기 등 나라의 농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연구하여 보급할 수 있었으며 나라의 농업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종자와 농사법을 연구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하였음. 특히 논벼재배를 컴퓨터로 조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큰 진전을 보였으며 량강도 대홍단군에서 감자재배를 컴퓨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도서 주체농법을 비롯한 1,400여 종에 100만 페이지 이상의 교과서, 참고서를 집필하였음. 현재 원산농업대학은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3대혁명붉은기대학으로 공화국2중영웅, 2중노력영웅을 비롯한 20여 명의 영웅들과 30여 명의 교수, 박사, 500여 명의 부교수, 학사들을 키워낸 농업대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음(로동신문 11.19)

황해남도 재령군 장수산유원지 2단계건설이 지난해 진행되었고 근 1만㎡의 부지에

4동의 건물이 들어선 농민휴양소는 자연경치와 잘 어울리는 독특한 건축미를 갖추고 있음. 2층 휴양각에는 문화오락실 등 휴양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화오락기재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장수산을 등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선발된 노력혁신자들이 12월 1일부터 휴양생활에 들어간 가운데 농민휴양은 다음해 봄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로동신문 12.6)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과학적인 영농방법의 시범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2월에는 량강도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감자 증산을 통해 대홍단감자가공공장에서 농마 뿐만 아니라 분탕과 엿, 술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문제 등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의 영도 하에 감자농사, 이모작을 우리 농업의 주체적인 영농체계, 우리 식의 농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종자론을 중심으로 과학을 중시해야 농업생산을 늘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로동신문 12.13)

과학원 생물분원 고려생물약센터는 식물성 농약의 연구과정을 분석하고 그 방법론적 기초와 원료 및 주요성분을 밝히는 등 여러 단계의 연구사업을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척시켰음. 농약과 비료를 동시에 대용할 수 있는 고려약비료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여러 협동농장에 시험도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고려약비료 생산을 공업화할 수 있는 과학이론적 담보가 마련되었고 선천군 등 수십 개의 협동농장에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2.14)

전국 각지의 농업부문 과학연구기관, 농업대학, 생산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알곡작물육종분과, 기름 및 채소작물육종분과, 농작물재배분과, 토양 및 농업화학분과, 수의축산분과, 과수 및 잠업분과, 농기계분과, 정보 및 농업경영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전시 및 발표회에서는 새로 육종한 박막을 쓰지 않고 비료를 적게 사용하면서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는 벼품종들, 우리나라의 기후풍토 및 지대적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알곡, 채소, 기름작물품종들, 감자농사와 이모작의 종합적 기계화공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음. 또한 먹이소비가 적고 생산성이 높은 여러 가지 가축품종을 육성하고 초식가축들의 사양관리기술을 개선하여 축산물 생산을 늘일 수 있도록 한 과학연구성과들, 컴퓨터에 의한 농업생산지원체계 등 농업생산과 과학연구사업에 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자료들도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음(로동신문 12.14)

당의 종자혁명방침에 따라 연초부터 감자농사에 필요한 무바이러스 원종잔알감자 생산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농업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이모작에 좋은 품종의 논, 밭작물들과 채소, 기름작물들을 육종하였음. 또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방법을 완성하여 새 품종의 사과나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모작에 이로운 작물재배방법을 완성하고 능률높은 여러 가지 농기계를 제작하는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2.28)

○ 사설 깡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뜻 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해 나가자 ’

김일성 탄생 90주년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을 기념한 뜻 깊은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성대국 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음.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완공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생산적 앙양이 일어났음. 안변청년2호발전소와 금진강제6호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개건확장되었음.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과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모작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감자농사에서도 전환이 일어났음. 농업부문의 전체 근로자들은 당면한 낟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며 다음해 농사차비도 실속있게 해 나가야 함.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는 월동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겨울철에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제부문 일군들은 새 세기에 맞게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생산활동 및 사업에서 생산자대중을 적극 불러 일으켜야 함(로동신문 11.12)

○ 사설 뜻 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 온 나라는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마지막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음.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의 공동사설을 사업의 지침으로 삼고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제시된 경제건설노선에 따라 해당한 과업을 조항별로 따져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함. 인민경제의 중심적인 단위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연말작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하며 농업부문은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과 이모작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중심으로 토지정리를 추진하며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준비사업을 실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함(민주조선 12.3)

○ '사회주의농촌경리 관리운영에서 지켜야 할 강령적 지침'- 평안남도 숙천군 농업경영위원회 김주관 위원장

김일성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62년 11월 13일에 고전적 노작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여 우리 식의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였음. 오늘날 김정일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새 세기에 적합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완성하여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조직된 역사적인 고장인 숙천군은 지난 기간 군농업경영위원회를 현실발전에 걸맞게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업으로 삼아 농업생산을 기업적기술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서들을 기사, 기수, 전문가로 조직하고 경영위원회 산하에 관개관리소,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종자관리소를 비롯해 농업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확립하였음(로동신문 11.13)

○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김일성이 불후의 고전적 노작 「군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를 발표한지 41주년 되는 오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 등 전 인민은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조직에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여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를 확립하도록 한 김일성지의 업적을 되새기고 있음. 노작에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 필요성, 경영위원회의 기구와 부서들의 임무,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바로 잡으며 지도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함께 농촌기술혁명을 추진하는 문제 등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수립에 대한 문제들이 전면에 밝혀져 있음.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성과는 량강도 대홍단군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홍단군 농업경영위원회는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에 따라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적극 개선하고 모든 경제사업을 사회주의원칙과 실리주의원칙에 준하여 추진하였음.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심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영농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감자농사를 주체농법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감자수확을 크게 높일 수 있었음. 대홍단군을 비롯한 우리 농촌에서 이룩되고 있는 이 모든 성과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확증으로 지금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따라 농업생산에서 보다 큰 결실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함(민주조선 12.18)

○ 다음해 농사차비를 적극 다그치자

올해농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다음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농사차비의 의의와 중요성을 숙지하고 이 사업을 지금부터 빈틈없이 실시해야 함. 나라의 화학비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동농장에서는 거름생산을 대대적으로 벌려 다음해 농사에 사용할 질 좋은 유기질거름과 부식토 등 여러 가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내며 냉습지를 적극 개량해야 함. 또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촌기계화초병들, 농업근로자들은 부속품을 충분히 생산하고 수리조직을 짜고 들어 트랙터 등 농기계수리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하며 호미와 낫, 후치 등 중소농기구 수리 및 생산에 적극 나서야 함. 모내기를 최적기에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협동농장에서는 비닐박막에서부터 바람막이바자, 말장과 활창대 등 모든 자재를 미리 확보해 놓는 등 냉상모판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이와 함께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는 농촌을 적극 지원해야 함. 공업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효능높은 비료와 농약, 농기계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철강재 등 각종 영농물자와 자재를 계획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각급 지방정권기관에서는 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 인민반 주민들을 적극 이끌어 다음해 농사에 사용할 질 좋은 거름과 냉상모판자재, 중소농기구를 더 많이 마련하여 농촌에 지원하도록 해야 함(민주조선 12.28)

현지지도 및 기념행사

○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농장의 농업부문 사업 현지지도(10.1)

김정일은 농장의 6작업반에 새로 건설된 문화주택들과 현대적인 농기계 및 관수시설을 돌아보았음. 이어 뒤그루로 심은 강냉이와 벼포전에서 농장일군들로부터 영농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뒤그루농사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 김정일은 뒤그루로 심은 작물들의 작황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음. 부대에서 새로 마련한 묘목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우리나라의 기후풍터에 맞는 나무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 연구사업에 힘쓰고 있는 이곳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고 산과 들에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나무를 전 군중적으로 심어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일은 이 농장에서 앞그루로 밀보리를 심고 뒤그루로 강냉이, 벼, 콩을 심어 높은 소출을 냄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이모작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농촌에서 이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함(로동신문, 민주조선 10.2)

○ 함경남도의 여러 공장 및 기업소 현지지도(10.17)

금진강발전소를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청년건설자들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부업목장을 돌아보았음. 김정일은 염소, 토끼, 돼지, 닭, 거위 등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목장을 둘러보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의 노력을 칭찬하였음. 또한 함흥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자세히 알아보고 된장, 간장 등 질 좋은 여러 가지 기초식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만족을 표시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18)

○ 조선인민군 제 507군부대 시찰(10.22)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제549군부대의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무를 비롯한 채소밭과 현대적인 농기계들의 작업모습을 보면서 올해 농사작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김정일은 군부대에서 부업농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채소와 알곡을 생산하고 여러 가지 가축을 길러 군인들에게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풍족히 공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24)

○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10.24)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이날 리영남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기업소의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하였음. 김정일은 강냉이밭과 채소밭, 돼지목장을 돌아보면서 농목장 운영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소에서 부업지와 목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해마다 많은 알곡과 고기를 생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식생활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것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로동신문, 민주조선 10.25)

○ 완공된 개천-태성호물길과 토지정리된 평안남도 운곡지구 내남협동농장 현지지도

김정일은 개천-태성호물길 완공으로 평안남도와 그 일대의 용수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물길 관리운영에서 지침이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또한 앞으로 평안북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모든 지대에 물길공사를 실시하여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어 토지정리된 평안남도 운곡지구 내남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돌격대원들이 몇 달 사이에 농장의 토지를 정리한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작업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현지에서 각종 농기계를 살핀 김정일은 우리나라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능률적이며 현대적인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집단경리의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20)

○ 기념 행사

김일성의 평안남도 숙천군 성남협동농장 현지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가 1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9.23, 민주조선 9.24)

김정일의 평안남도 맹산군 현지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가 24일에 진행되었음(로동신문 9.27, 민주조선 9.26)

자강도잠기구공장 조업식이 7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8, 민주조선 10.9)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총비서 추대 5주년 경축 농근맹원들의 모임이 7일 당창건기념탑 앞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8)

함경남도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식이 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10, 민주조선 10.12)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20일 량강도와 강원도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23, 민주조선 10.22)

평안남도 증산군에 신흥저수지 준공식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27, 민주조선 10.26)

김정일의 2002년 10월 17일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함경남도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25일 함흥광장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28, 민주조선 10.27)

김정일의 2002년 10월 24일, 25일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평안북도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12일에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1.13)

전국리농근맹경제선동대경연이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1.13)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종업원들과 평안북도 창성군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1.22)

전국농촌군중문화예술소조 열성자회의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2.19, 민주조선 12.20)

김정일의 2002년 12월 11일, 18일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평안남도군중대회가

22일 평성시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2.23, 민주조선 12.25)

조선인민군 리풍길 소속부대와 개성시 개풍군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식이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2.25)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평안남도 숙천군, 순천시, 개천시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28)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한 지원 동향
  3. 교류협력사업 동향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3.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2년 9월 중 남북교역액은 197품목 6,225만 달러로 전월 219품목 3,947만 달러에 비해 57.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234품목 3,791만 달러에 비해서 64.2% 증가하였음.

○ 반입은 82품목 2,252만 달러로 전월 76품목 1,607만 달러에 비해 40.2%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은 95품목 1,842만 달러에 비해 22.3% 증가하였음.
- 반입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32.2%, 섬유류 45.5%, 철강금속제품 11.1% 등임.

○ 반출은 131품목 3,972만 달러로 전월 173품목 2,340만 달러에 비해 69.7%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163품목 1,949만 달러에 비해서는 103.8% 증가하였음.
- 반출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 2.8%, 화학공업제품 36.3%, 섬유류 20.2%, 철강금속제품 3.6%, 농림수산물 30.8%, 전자 및 전기제품 4.1% 등임.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2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725만 달러로 전월 586만 달러 대비 23.7% 증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가하고, 전년 동월 716만 달러 대비 1.2% 증가했으며, 9월 전체 반입액 2,252만 달러의 32.2%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채소류 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24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0.7%), 로얄제리 기타 축산부산물 등 축산물이 58,000달러(전체 반입액의 0.3%),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56,000달러(전체 반입액의 0.2%), 어패류 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47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2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225만 달러로 전월 183만 달러 대비 569.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731.2%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 쌀 등 농산물이 1,17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9.7%), 모류 쇠고기 등 축산물이 4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1%),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8%)를 차지했음.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2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231품목 9,794만 달러로 전월 197품목 6,225만 달러에 비해 57.3%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207품목 3,862만 달러에 비해서 153.6% 증가하였음.

○ 반입은 80품목 3,754만 달러로 전월 82품목 2,252만 달러에 비해 66.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80품목 2,329만 달러에 비해 61.2% 증가하였음.

- 반입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20.3%, 섬유류 64.0%, 철강금속제품 8.2% 등임.

○ 반출은 183품목 6,040만 달러로 전월 131품목 3,972만 달러에 비해 52.0%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152품목 1,533만 달러에 비해서는 294.0% 증가하였음.

- 반출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 5.6%, 화학공업제품 23.1%, 섬유류 7.3%, 철강금속제품 7.5%, 농림수산물 46.8%, 전자 및 전기제품 6.1% 등임.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2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762만 달러로 전월 725만 달러 대비 5.1% 증

가하고, 전년 동월 757만 달러 대비 0.6% 증가했으며, 10월 전체 반입액 3,754만 달러의 20.3%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채소류·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22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5.9%), 어패류·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53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4.4%)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2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828만 달러로 전월 1,225만 달러 대비 130.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195%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밀가루 등 농산물이 2,70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4.7%), 기타 가축·쇠고기 등 축산물이 10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7%),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1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조개·기타 연체동물 등 수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2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236품목 12,665만 달러로 전월 231품목 9,794만 달러에 비해 29.3%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225품목 3,295만 달러에 비해서 284.3% 증가하였음.

○ 반입은 90품목 6,850만 달러로 전월 80품목 3,754만 달러에 비해 82.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82품목 2,272만 달러에 비해 201.4% 증가하였음.

- 반입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14.8%, 섬유류 20.5%, 철강금속제품 2.3% 등임.

○ 반출은 172품목 5,815만 달러로 전월 183품목 6,040만 달러에 비해 3.7%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167품목 1,022만 달러에 비해서는 468.7% 증가하였음.

- 반출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 18.4%, 화학공업제품 7.2%, 섬유류 7.9%, 철강금속제품 7.0%, 농림수산물 53.2%, 전자 및 전기제품 4.3% 등임.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2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014만 달러로 전월 762만 달러 대비 33.1%

증가하고, 전년 동월 1,181만 달러 대비 14.1% 감소했으며, 11월 전체 반입액 6,850만 달러의 14.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채소류·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24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6%), 기타 축산부산물 등 축산물이 10,000달러(전체 반입액의 0.01%), 어패류·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76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1.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2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092만 달러로 전월 2,828만 달러 대비 9.3%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209%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감귤 등 농산물이 3,00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51.6%), 쇠고기·분유 등 축산물이 3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7%), 합판 등 임산물이 1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명태·기타 어류 등 수산물이 3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6%)를 차지했음.

표 1 2002년 9월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604,289	2,420	10.7	**농산물**	47,078,168	11,783	29.7
기타 곡실류	38,370	58		쌀	46,933,344	11,439	
기타 채소	38,382	84		밀가루	68,200	15	
고사리	148,237	631		기타 채소	200	1	
송이버섯	28,826	977		송이버섯	1,857	7	
표고버섯	2,660	23		제조담배	34,444	203	
기타 버섯류	1,204	41		소주	800	1	
식물성 액즙	1,150	21		맥주	18,288	11	
제조담배	40,000	295		정당	15,000	5	
식물성 한약재	254,515	238		기타 음료	2,392	67	
기타 주류	15,945	37		곡류가공품	1,231	17	
물	20,000	7		기타 농산가공품	2,413	18	
면류	15,000	9					
축산물	376	58	0.3	**축산물**	164,637	449	1.1
기타 가축	28	21		쇠고기	152,242	329	
기타 축산물부산물	144	8		모류	12,395	120	
로얄제리	204	29					
임산물	286,000	56	0.2	**임산물**	3,600	18	-
목재식탁용품	286,000	56		기타 목재류	3,600	18	
수산물	1,423,377	4,720	21	**수산물**	-	-	-
명태	75,840	49					
뱀장어	36	-					
기타 어류	17,700	72					
꽃게	5,100	13					
기타 게	29,348	123					
문어	147,047	307					
피조개	2,895	4					
기타 조개	164,220	112					
기타 연체동물	316,916	508					
명란	4,984	25					
기타 염장수산물	36,000	66					
건조수산물	322,392	2,620					
기타 수산가공품	245,843	779					
수산부산물	49,940	36					
기타 수산물	5,116	5					
합 계		7,254	32.2	합 계		12,250	30.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5호(2002.9.1 ~ 9.30).

표 2 2002년 10월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836,629	2,225	5.9	**농산물**	108,364,548	27,008	44.7
기타 곡실류	9,610	12		쌀	107,979,479	26,331	
기타 채소	142,472	210		밀가루	100,000	12	
고사리	105,132	471		기타 곡분	1	-	
고비	3,500	25		감귤	6,707	16	
송이버섯	672	23		가지	16,430	16	
표고버섯	17,980	122		기타 채소	8,000	12	
기타 버섯류	43,722	535		고비	3,700	12	
기타 견과류	20,000	5		사료	59,968	32	
제조담배	50,000	369		된장	1,000	8	
인삼류	1,184	12		제조담배	89,089	424	
식물성한약재	386,430	393		소주	16,150	9	
소주	1,682	2		맥주	1,720	1	
기타 주류	2,235	10		위스키	825	20	
물	20,000	10		브랜디	94	6	
면류	30,000	16		정당	40,000	11	
기타 농산물	2,010	10		기타 당류	29,380	30	
				곡류가공품	6,542	49	
				빙과류	5,465	20	
축산물	-	-	-	**축산물**	252,368	1,052	1.7
				기타 가축	7,925	85	
				쇠고기	150,915	282	
				로얄제리	210	14	
				분유	80,848	578	
				난류	3,795	9	
				모피	8,675	84	
임산물	-	-	-	**임산물**	131,632	183	0.3
				건축용목제품	44,132	79	
				기타 목재류	87,500	104	
수산물	2,317,080	5,397	14.4	**수산물**	28,576	38	0.1
명태	2,060	1		넙치	100	1	
넙치	1,890	14		기타 어류	255	2	
기타 어류	236,659	319		기타 게	644	4	
꽃게	79,724	164		기타 조개	12,600	7	
기타게	14,092	108		기타 연체동물	10,743	11	
오징어	5,487	23		건조수산물	2,370	7	
문어	103,801	224		기타 수산가공품	1,864	6	
낙지	5,233	9					
피조개	14,080	58					
기타 조개	1,017,155	940					
기타 연체동물	263,468	358					
기타 해조류	5,200	7					
명란	15,080	49					
기타 염장수산물	54,000	99					
건조수산물	287,636	2,381					
기타 수산가공품	192,566	366					
기타 수산물	18,949	277					
합 계		7,622	20.3	**합 계**		28,281	46.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6호(2002.10.1 ~ 10.31).

표 3 2002년 11월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689,645	2,440	3.6	**농산물**	119,721,784	30,017	51.6
녹두	500,000	297		쌀	117,177,307	28,535	
기타 곡실류	6,980	11		감자	25,600	189	
기타 채소	288,747	364		밀가루	330,000	65	
고사리	55,520	246		감귤	2,006,666	609	
고비	3,090	7		기타 채소	33,600	19	
표고버섯	84,263	400		송이버섯	2,569	8	
기타 버섯류	23,985	116		농산물왁스	18		
호도	181,345	404		사료	70,647	50	
기타 견과류	78,950	46		커피조제품	40,500	419	
식물성액즙	300	14		맥주	2,580	2	
고추장	44,993	35		위스키	1,384	35	
제조담배	20,000	148		브랜디	3,469	67	
식물성한약재	316,013	297		정당	25,000	7	
포도주	10,333	11		사탕	121	5	
기타 주류	4,621	10		면류	2,324	6	
면류	58,005	32					
기타 농산가공품	12,500	6					
축산물	1,651	11	-	**축산물**	144,222	392	0.7
				쇠고기	114,465	290	
기타 축산물부산물	1,651	11		로얄제리	135	1	
				분유	28,187	88	
				모류	1,435	14	
임산물	11,000	2	-	**임산물**	107,503	143	0.2
기타 목재류	11,000	2		합판	29,900	74	
				목재틀	70	1	
				젓가락	1,658	7	
				기타 목재류	75,875	61	
수산물	4,975,319	7,695	11.2	**수산물**	374,596	368	0.6
명태	15,400	36		명태	368,640	348	
넙치	549	4		넙치	361	4	
기타 어류	32,604	118		기타 어류	2,315	7	
꽃게	1,500	6		기타 조개	2,119	4	
기타 게	40,428	264		기타 연체동물	1,161	6	
오징어	84,500	76					
문어	186,979	408					
굴	86,600	111					
피조개	16,521	23					
기타 조개	3,808,827	3,643					
기타 연체동물	255,132	354					
명란	4,680	20					
기타 염장수산물	50,000	92					
건조수산물	254,533	2,070					
기타 수산가공품	131,819	401					
기타 수산물	5,247	70					
합 계		10,149	14.8	**합 계**		30,921	53.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7호(2002.11.1 ~ 11.30).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교역수지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A+B)	(B-A)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23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827	80	176,298	495	87	18,249	194,547	△158,049
1995	1,124	109	222,855	2,720	166	64,436	287,291	△158,419
1996	1,648	128	182,400	2,980	166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2	193,069	2,185	281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5	92,264	2,847	376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1	121,604	3,421	404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6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402,957	50,617
소 계	20,685		1,794,717	21,311		1,134,458	2,929,174	△660,259
2002.1	444 (253)	91 (81)	20,008 (9,316)	218 (164)	123 (104)	7,392 (6,348)	27,400 (15,664)	△12,616 (△2,968)
2002.2	355 (212)	75 (57)	15,952 (8,178)	232 (200)	163 (131)	12,785 (12,965)	28,737 (21,143)	△3,167 (4,787)
2002.3	335 (333)	87 (83)	15,303 (13,281)	264 (306)	154 (174)	16,579 (26,475)	31,882 (39,756)	1,276 (13,194)
2002.4	375 (279)	89 (64)	14,095 (10,735)	243 (230)	151 (158)	27,876 (19,777)	41,971 (30,512)	13,781 (9,042)
2002.5	461 (317)	82 (75)	15,208 (8,846)	284 (252)	153 (135)	41,071 (56,705)	56,279 (65,551)	25,863 (47,859)
2002.6	436 (308)	85 (80)	15,445 (12,909)	263 (291)	143 (129)	13,223 (11,755)	28,668 (24,664)	△2,222 (△1,154)
2002.7	191 (335)	59 (84)	7,800 (12,204)	321 (300)	133 (155)	18,602 (12,810)	26,402 (25,014)	10,802 (606)
2002.8	374 (410)	76 (84)	16,070 (16,077)	395 (287)	173 (133)	23,408 (14,810)	39,478 (30,887)	7,338 (△1,267)
2002.9	375 (528)	82 (95)	22,526 (18,423)	363 (286)	131 (163)	39,729 (19,494)	62,255 (37,917)	17,203 (1,071)
2002.10	641 (548)	80 (80)	37,543 (23,290)	443 (223)	183 (152)	60,402 (15,330)	97,944 (38,621)	22,859 (△7,960)
2002.11	568 (654)	90 (82)	68,500 (22,729)	370 (249)	172 (167)	58,154 (10,225)	126,655 (32,954)	△10,346 (△12,504)
소 계	4,555 (4,177)	192 (192)	248,449 (155,989)	3,396 (2,788)	480 (477)	319,222 (206,693)	567,670 (362,682)	70,773 (50,704)
총 계	25,240		2,043,165	24,707		1,453,679	3,496,845	△589,486

주: 1) ( )안은 2001년 동기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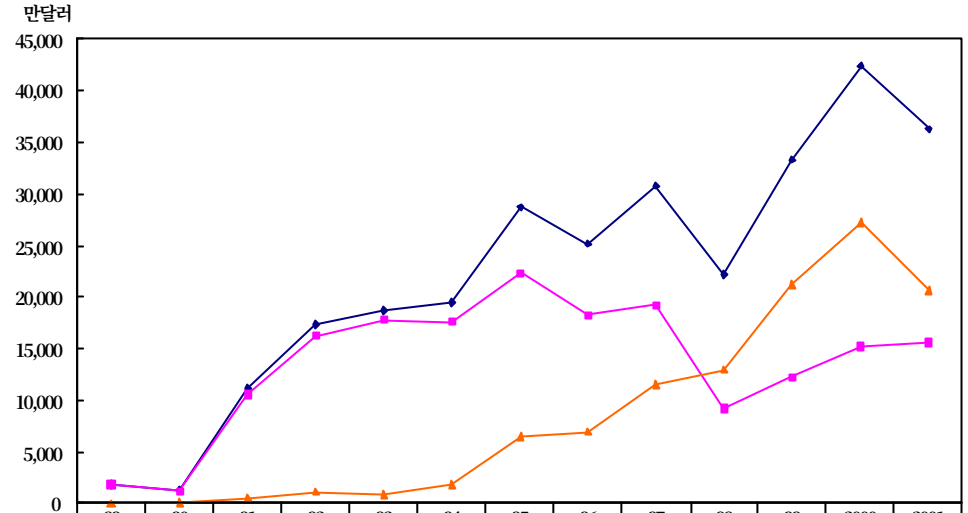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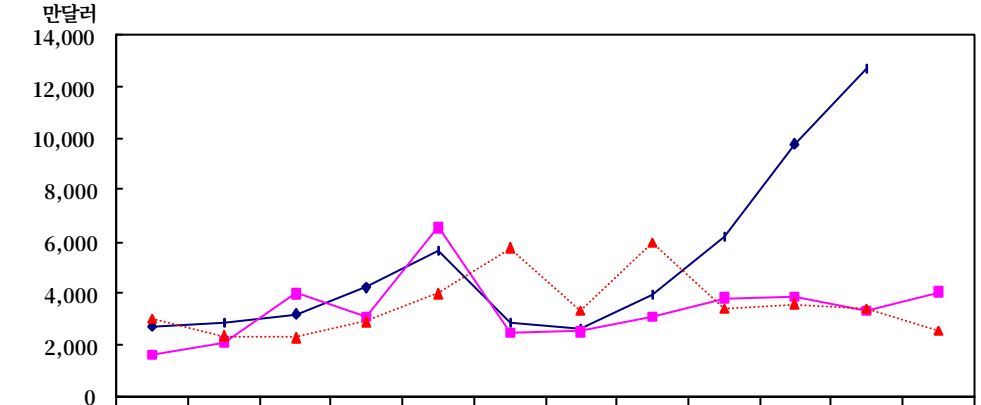
137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총액	1,872	1,347	11,127	17,343	18,659	19,455	28,729	25,204	30,834	22,194	33,344	42,515	36,268
반입	1,866	1,228	10,572	16,286	17,817	17,630	22,286	18,240	19,307	9,226	12,160	15,237	15,599
반출	7	119	555	1,056	843	1,825	6,444	6,964	11,527	12,968	21,183	27,278	20,669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1	2	3	4	5	6	7	8	9	10	11	12
02년	2,740	2,873	3,188	4,197	5,628	2,867	2,640	3,947	6,225	9,794	12,66	
01년	1,566	2,114	3,976	3,051	6,555	2,466	2,501	3,089	3,792	3,862	3,295	4,028
00년	3,014	2,311	2,272	2,930	4,010	5,742	3,309	5,985	3,425	3,577	3,401	2,538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교역수지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A+B)	(B-A)
1989				7,924	-	-	-	-	-	-
1990					-	-	-	10	-	-
1991	-	-	-	10,818	-	-	-	1,607	12,425	△ 9,211
1992	-	-	-	16,906	-	-	-	64	16,970	△16,842
1993	-	-	-	12,015	-	-	-	69	12,084	△11,946
1994	-	-	-	15,250	-	-	-	3,317	18,567	△11,933
1995	-	-	-	22,319	-	-	-	9,306	31,625	△13,013
1996	-	-	-	23,455	-	-	-	6,714	30,169	△16,741
1997	-	-	-	27,326	-	-	-	17,024	44,350	△10,302
1998	7,895	3,526	13,377	21,798	18,732	510	398	19,640	41,438	△ 2,258
1999	15,057	4,484	28,327	47,868	15,682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7,014	41,566	71,932	23,910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81	5,717	45,316	89,814	29,096	424	2,977	32,494	122,304	△57,320
소 계	-	-	-	277,611	-	-	-	100,797	378,408	△176,814
2002.1	4,972	8	6,481	11,461	810	228	53	1,091	12,552	△ 10,370
	(3,050)	(977)	(1,900)	(5,927)	(812)	(0)	(27)	(839)	(6,765)	(△5,088)
2002.2	3,049	0	5,132	8,181	1,530	55	7	1,592	9,773	△ 6,589
	(1,267)	(90)	(2,914)	(4,271)	(799)	(14)	(1,153)	(1,966)	(6,237)	(△2,305)
2002.3	1,388	1	5,794	7,183	1,168	39	4	1,211	8,394	△5,972
	(3,805)	(494)	(2,947)	(7,246)	(11,147)	(230)	(1,169)	(12,546)	(19,792)	(5,300)
2002.4	1,625	0	4,594	6,219	1,200	76	150	1,426	7,645	△4,793
	(2,514)	(338)	(2,888)	(5,740)	(3,991)	(51)	(142)	(4,183)	(9,923)	(△1,557)
2002.5	1,806	0	6,756	8,562	1,836	30	79	1,945	10,507	△6,617
	(1,852)	(535)	(3,277)	(5,664)	(615)	(1)	(60)	(676)	(6,340)	(△4,988)
2002.6	2,819	7	7,211	10,036	1,180	34	36	1,249	11,285	△8,787
	(2,164)	(148)	(3,868)	(6,179)	(1,412)	(42)	(236)	(1,690)	(7,869)	(△4,489)
2002.7	1,297	8	2,558	3,864	1,525	228	124	1,877	5,741	△1,987
	(2,488)	(193)	(3,607)	(6,288)	(828)	(2)	(0)	(830)	(7,118)	(△5,458)
2002.8	2,217	0	3,646	5,862	1,795	23	13	1,831	7,693	△4,031
	(2,929)	(474)	(3,283)	(6,686)	(562)	(6)	(0)	(568)	(7,254)	(△6,118)
2002.9	2,478	56	4,720	7,254	12,232	18	0	12,250	19,504	4,996
	(3,804)	(945)	(2,437)	(7,186)	(1,363)	(74)	(37)	(1,474)	(8,660)	(△5,712)
2002.10	2,225	0	5,397	7,622	28,060	183	38	28,281	35,903	20,659
	(3,444)	(542)	(3,581)	(7,567)	(1,199)	(0)	(33)	(1,232)	(8,799)	(△6,335)
2002.11	2,451	2	7,695	10,149	30,409	143	368	30,921	41,070	20,772
	(4,815)	(462)	(6,566)	(11,843)	(1,304)	(4)	(31)	(1,339)	(13,182)	(△10.504)
총 계	-	-	-	364,004	-	-	-	184,471	548,475	△179,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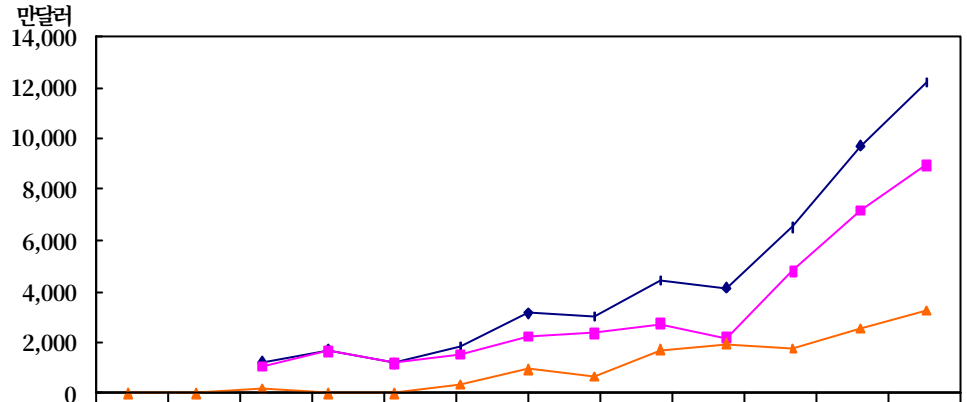
주: 1) ( )은 2001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축산물은 농산물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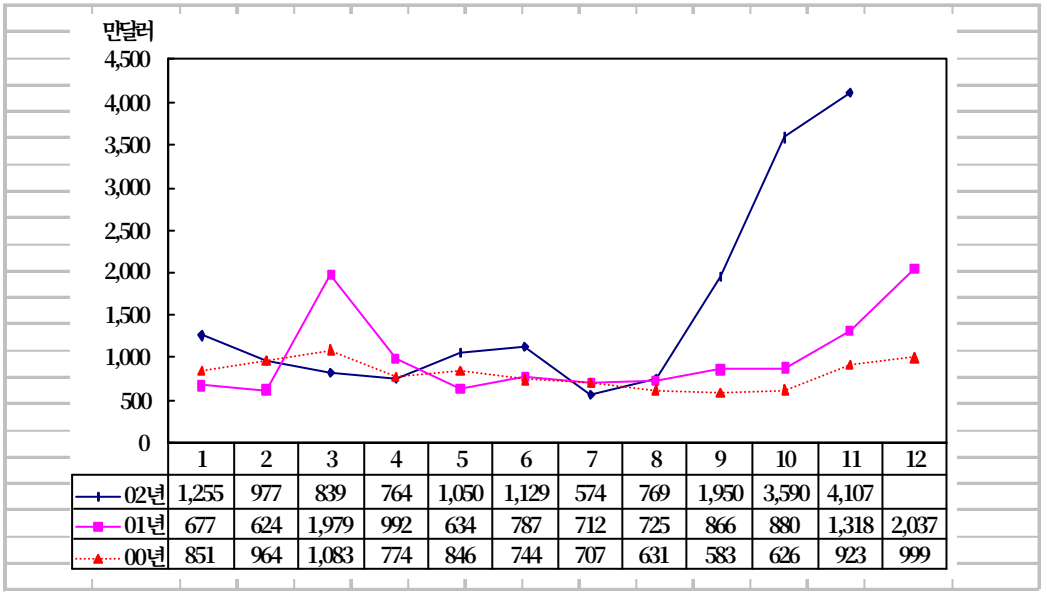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37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89	90	91	92	93	94	96	97	98	99	2000	2001
총액			1,243	1,697	1,208	1,857	3,017	4,435	4,144	6,554	9,731	12,230
반입			1,082	1,691	1,202	1,525	2,346	2,733	2,180	4,787	7,193	8,981
반출	-	1	161	6	7	332	671	1,702	1,964	1,767	2,538	3,249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	2	3	4	5	6	7	8	9	10	11	12
02년	1,255	977	839	764	1,050	1,129	574	769	1,950	3,590	4,107	
01년	677	624	1,979	992	634	787	712	725	866	880	1,318	2,037
00년	851	964	1,083	774	846	744	707	631	583	626	923	999

2. 대북한 지원 동향

9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23억 8,372만원

○ 2002년 9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23억 8,372만원으로 전월의 민간차원 지원액 58억 2,317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표 6 9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대한적십자사	옷감 10,000m, 상추종자 10kg, 연유 100kg, 전지분유 400kg, 농업용 밴드 1,184kg 등	5,198
Good Neighbors (한국이웃사랑회)	합석판 1,000㎡, 시멘트 168톤, 골밀도진단기 1세트 등	5,39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국수 400톤, 스프 1톤	8,750
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	제빵기계 및 설비 1식	16,991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이유식 1.2톤	2,324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두유생산설비자재 19종, 유제조용첨가제 2.5톤, 설탕 15톤, 구충제 300만 캅셀, 항생제 200만 캅셀	167,488
	식용류 15톤, 대두 60톤, 텍스트린 20톤	6,176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연어부화장 건설자재	26,048
총 계	238,372만원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5호(2002.9.1 ~ 9.30).

10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60억 4,154만원

○ 2002년 10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60억 4,154만원으로 전월의 민간차원 지원액 23억 8,372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7 10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주)한국엔보트	액상조제우유 10만통	26,044
SK 글로벌	인쇄용지 500톤	43,750
천주교 인천대교구	성인용내의 7,500벌, 탈지분유 10톤, 이유식 등	12,60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기계수리공장 지원 기기(용접기 등)	424
	밀가루 68톤	1,861
	기초수액제 포도당 26종	3,867
	사료 11,200kg	395
	젖염소 140두	10,990
	배합사료, 수의약품	2,192
	인쇄용지 200톤	17,500
	이유식 3,996톤	4,166
Good Neighbors (한국이웃사랑회)	육아원 지원벽지, 커튼	950
	사진현미경, 건조기, 온도조절기, 가열기	6,510
	종란 24,000개, 컨테이너 2대, 수의약품	1,253
	양계사료 100포	103
	철근 474톤	18,770
	우유냉동차량	412
	분유, 육아원용 버스(25인승)	49,076
기독교북한동포돕기후원회	밀가루 100톤, 분유 6.6톤, 유아복, 아동용품	90,131
월드비전	씨감자 · 채소 생산 온실설비	34,846
한국 JTS	전지분유 10톤, 설탕 20톤, 이유식, 쌀	6,189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분유, 내의, 생필품(치약, 칫솔, 비누 등)	5,267
남북강원도협력협회	토목공사 · 건축 · 전기공사 자재 등	81,575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옥수수 1천톤, 밀가루 300톤, 비닐 375롤	29,975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원단, 아목사실린 130만 캡셀	9,796
한민족복지재단	내시경카메라, 인공수정체, 의료용품 등	74,441
국제옥수수재단	유기질 비료, 복합비료 각 500톤, 자전거 25대	11,781
새마을운동중앙회	산란종계장 시설 자재, 병아리, 사료 등	59,287
총 계	604,154만원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6호(2002.10.1 ~ 10.31).

11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101억 5,271만원

○ **2002년 11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101억 5,271만원으로 전월의 민간차원 지원액 60억 4,154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8 11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대한적십자사	이유식 18,864캔, 학용품 세트 5천개	12,90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밀가루 30톤, 스프 1톤	8,750
	가나마이신, 비스타마이신(항생제) 각 3천정, 소화제 2만정	320
	농기계수리공장 지원(농기계)	5,298
Good Neighbors (한국이웃사랑회)	디젤발전기, 소형굴삭기, 건설자재	38,471
	승합차 1대	1,502
	육아원 주방용품(냉장고, 가스렌지, 밥솥, 선반 등 기타), 온풍기 10대, 라이에이터 10대	1,581
	의약품 24종	309,580
	배합사료 2400포, 무균장갑, 수의약품 7종	6,275
유진벨	수술장비, 5톤 트럭, 지게차, 경운기, 결핵약 5천명분, 발전기 23대, 현미경 13세트, 온실 24세트, X-RAY필름, 휠체어 등	92,686
	결핵약 키트 1만명분, X-RAY부품, 경운기 승합차 수리부품, 수술실 소모품	58,459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구충제(아벤다졸) 등 의약품 3종	129,090
원불교	담요 6,500장	14,724
남북농발협	씨감자	25,640
기독교북한동포돕기후원연합회	분유, 유아복, 아동복, 아동용품 등	199,470
한국 JTS	전지분유 13톤, 설탕 25톤, 비닐봉투, 의류, 비누, 수건 등 생필품	6,701
남북강원도협력협회	토목자재, 건축자재, 기계설비, 전기자재	4,447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밀가루 30톤, 의류2만2천장	4,033
건강관리협회	구충제 2백만정	95,338
총 계	1,015,271만원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7호(2002.11.1 ~ 11.30).

대북 지원액 추이, 1995.6 ~ 2002.11

단위: 만원

연 도	민간차원			정부차원	합 계
	한적창구	독자창구	소 계		
1995	· 1995.9 ~ 1997. 5 (한적,국적경유)		396,915	18,500,000	27,397,160
1996	· 1997.6 ~ 1997. 7 (한적 1차지원) · 1997.8 ~ 1997.10 (한적 2차지원)		757,000 810,000	240,000	
1997	· 1998.3 (한적 2차추가)		28,000	2,400,000	
1998	· 1998.4 ~ 1998. 6 (한적 3차지원) · 1998.9 ~ 1998.12 (한적 3차추가)		1,309,045 1,416,200	1,540,000	
1999	-	-	2,235,920	3,390,000	5,625,920
2000	1,132,988	3,069,230	4,202,218	9,435,722	13,637,940
2001	-	-	7,944,634	8,495,400	16,440,034
소 계	-	-	19,099,932	44,001,122	63,101,054
2002.1	18,490 (87,494)	866,591 (17,385)	885,081 (104,879)	0 (0)	885,081 (104,879)
2002.2	- (66,856)	- (431,316)	285,294 (498,172)	650,000 (0)	935,294 (498,172)
2002.3	- (1,665,751)	- (463,766)	390,606 (2,129,517)	390,000 (690,000)	780,606 (2,819,517)
2002.4	- (59,651)	- (286,414)	264,314 (346,065)	1,120,000 (780,000)	1,384,314 (1,126,065)
2002.5	- (564,754)	- (435,234)	296,223 (999,988)	4,290,000 (5,665,400)	4,586,223 (6,665,388)
2002.6	- (23,259)	- (286,846)	618,431 (310,105)	2,150,000 (1,360,000)	2,768,431 (1,670,105)
2002.7	- (0)	- (253,942)	138,251 (253,942)	0 (0)	138,251 (253,942)
2002.8	- (0)	- (240,697)	582,317 (240,697)	0 (0)	582,317 (240,697)
2002.9	- (32,310)	- (1,318,370)	238,372 (1,350,680)	0 (0)	238,372 (1,350,680)
2002.10	- (0)	- (419,040)	604,154 (419,040)	2,780,000 (0)	3,384,154 (419,040)
2002.11	- (0)	- (135,997)	1,015,271 (135,997)	0 (0)	1,015,271 (135,997)
소 계	-	-	5,318,314 (6,789,082)	11,380,000 (8,495,400)	16,698,314 (15,284,482)
총 계	-	-	24,418,246	55,381,122	79,799,368

주: 1) 통일부가 발표한 반출 승인기준 금액에 근거하였으며 통관기준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　　)은 2001년 동기 실적임.
3) 대북지원창구 다변화(99.2.10) 이후 민간 대북지원은 한적창구와 독자지원창구로 구분됨.
4) 2월 민간지원액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국제기구를 경유하여 지원한 85,605만원이 제외된 것임.
5) 3월 정부지원액은 통일부의 3월 발표자료에는 710,000만원(내의 150만벌 48억원+옥수수 10만톤 23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7월 발표자료에는 내의 150만벌 지원액이 46억원으로 나타나 있음.

6) 2001년 5월 정부차원 대북지원액은 4,358만 달러에 대해 1$=1,300원을 적용한 금액임.
7) 12월 지원액은 잠정치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37호.

3. 교류협력사업 동향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2년 9~11월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이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은 없음. 11월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은 총 9개로 전체 79개 기업(단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47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5건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2년 11월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성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옥수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 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연근	288만불	'99.1.8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7

호.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북한의 핵문제가 국내외적인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2002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음.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철도 도로 연결 재확인 ▲ 개성공단 건설 착공 및 공단 내 우리측 사무소 설치 ▲ 통행합의서, ' 해운합의서 '체결 합의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음.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 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 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 · 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 · 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방향에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 주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2002년 10월 22일
평 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우려를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또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사항 및 분야별 실무협의회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미결사항을 협의타결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당면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동시에 빨리 진척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①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 건설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적극 취해 나간다.
   이를 위해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는데 따라 11월중에 공동측량을 하여 정하되 일자와 진행절차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며, 공사일정표를 교환하고 필요한 공사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한다.
   ② 쌍방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2002년 12월 하순에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①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며, 남측은 빠른 시일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②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초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3.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 어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협의·확정되는 빠른 시일 안에 각기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이미 합의된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회의를 12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고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3년 2월초 서울에서 진행한다.

2002년 11월 9일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한 핵문제와 남북 경협사업 등 제반 현안문제에 대해 집중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함.**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24일

서 울

노무현 당선자의 대북정책 5원칙과 6대과제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 당선자 강연, 인수위원장 강연 등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지속적인 화해협력정책임을 분명히 밝힘. 특히 5대원칙에서는 대북 경제협력을 장기적인 투자로 규정하였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6대과제에 포함시켜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 대북정책 5원칙

- 첫째 신뢰우선주의,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셋째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협, 넷째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다섯째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등임.

○ 공동번영을 위한 6대과제

- 첫째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셋째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섯째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등임(머니투데이, 2003.1.2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표 1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1995.9~2002.12.31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1]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70	79.5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9, EU 860 등
3차 '97.4~12	18,439	15,781	85.6	미국 4,537, 일본 2,700, 한국 2,633, EU 2,752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EU 1,380, 한국 1,100, 캐나다 395, 노르웨이 239, 이집트 280, 호주 132, 체코 2 등
5차 '99.1~12	29,208	18,980	65.0	미국 17,50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호주 270, 노르웨이 200,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263	48.6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80	64.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5, 스위스 222, 노르웨이 212,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2] '02.1~12	24,684	21,979	89.0	미국 6,347,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노르웨이 176, 영국 171, 독일 135, 덴마크 103, 핀랜드 70, 룩셈브르크 56 등
총 계	186,825	122,768	65.7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지원을 약속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2)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 Korea

자료: http://www.reliefweb.int.

표 2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실적,2002.1.1 ~ 12.31

기 구		지원요청액(달러)	조성금액(달러)[2]	부족액(달러)	실적율(%)
NGO	CAD	0[1]	0	0	0
	CESVI	1,150,000	1,274,857	-124,857	100.00
	CFGB	650,000	0	650,000	0
	CONCERN	1,090,000[1]	1,090,000	0	100.00
	DWH/GAA	188,857	188,857	0	100.00
	HIB	556,427[1]	556,427	0	100.00
	TGH	737,851[1]	737,851	0	100.00
FAO/UNDP		4,931,824	1,088,059	3,843,765	22.06
OCHA		962,064	602,638	358,426	62.64
UNDP		1,760,000	0	1,760,000	0
UNFPA		1,002,000	0	1,002,000	0
UNICEF		10,374,000	5,264,742	5,109,258	50.75
WFP		216,727,748[1]	206,107,269	10,620,479	95.10
WHO		6,707,000[1]	2,875,284	3,831,716	42.87
총 계		246,837,771	219,785,984	27,051,787	89.04

주: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2)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3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기구·프로젝트별)

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지원요청액 (달러)	조성금액 (달러)	부족액 (달러)
UNDP	A01	고구마전분을 이용한 국수생산 지원	350,000	0	350,000
	A02	재해경감을 위한 재조림사업 지원	1,110,000	0	1,110,000
	A03	재해경감 및 대비 지원	300,000	0	300,000
		소 계(UNDP)	1,760,000	0	1,760,000
FAO/UNDP	A04	2모작 프로그램 지원(봄작물과 주요 작물)	4,529,500	737,715	3,791,785
	A05	2모작 프로그램 지원(겨울작물과 주요 작물)	350,344[1]	350,344	0
	A06	주요작물인 감자생산 지원	0	0	0
	A07	토양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 비료사용 개선	0	0	0
	A08	토지생산력 관리	51,980	0	51,980
		소 계(FAO/UNDP)	4,931,814	1,088,059	3,843,765
OCHA	CSS01	2002년도 대북지원 프로그램의 조정업무	362,064	412,816	-50,752
	CSS02	NGO 지원 체계	600,000	189,822	410,178
		소 계(OCHA)	962,064	602,638	359,426
UNICEF	E01	기초교육	530,250	328,294	201,956
	H01	영양실조 및 미량영양소 결핍 방지	1,564,500	1,039,941	524,559
	H02	산모와 아기 건강	1,092,000	247,497	844,503
	H03A	필수 약품	3,790,500	1,634,481	2,156,019
	H04A	예방접종과 소아마비 근절	2,220,750	657,842	1,562,908
	WS01	음수와 환경위생	1,176,000	1,356,687	-180,487
	UNICEF	여러가지	0	0	0
		소 계(UNICEF)	10,374,000	5,264,542	5,109,458
UNFPA	H08	가족계획(RH/FP) 서비스	477,000	0	477,000
	H09	아동 산부인과 서비스	336,000	0	336,000
	H10	HIV/AIDS 인식과 예방을 위한 장려	189,000	0	189,000
		소 계(UNFPA)	1,002,000	0	1,002,000
WFP	F01	취약계층 긴급지원(EMOP 5959.03)	215,847,993[1]	206,103,659	9,744,334
	F02	지역 식량생산을 위한 특별사업	879,755[1]	3,610	876,145
	F03	취로사업을 위한 특별사업			
	F04	항만운영을 위한 특별사업			
		소 계(WFP)	216,727,748	206,107,269	10,620,479
WHO	H03B	필수 의약품	675,000[1]	0	675,000
	H04B	예방접종과 소아마비 근절	1,747,000	353,000	1,394,000
	H05	보건서비스 강화	2,255,000	474,243	1,780,757
	H06	한국 HIV/AIDS 및 감염병 관리강화	1,630,000	676,437	953,563
	H07	결핵 관리	400,000[1]	400,000	0
	WHO	미결정 배분액	0	971,604	-971,604
		소 계(WHO)	6,707,000	2,875,284	3,831,716
CAD	A09	함경남도 식량생산 지원	0	0	0
	A10	함경남도 지역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0	0	0
	H13	함경도 지방 여성건강 지원	0[1]	0	0
	H15	함경도 지방 어린이 겨울 지원	0[1]	0	0
	WS02	함경남도 수인성 질병 예방	0[1]	0	0
CESVI	H12	강원도 어린이에게 겨울 구호물자 지급	250,000	250,000	0
	WS04	강원도 철도 청내지역의 수인성질병 예방	900,000	1,024,857	-124,857
CONCERN	A11	가축회복 지원	0	0	0
	A12	환경보호 및 복구	200,000	200,000	0
	WS03	농촌 지역 용수공급 재건	890,000[1]	890,000	0
CBGB	H11	강원도 통합 보건 및 영양계획	650,000	0	650,000
HI B	H14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정형외과 서비스	556,427[1]	556,427	0
TGH	A14	평안남도 산림과 환경보호	48,101	48,101	0
	WS05	평안남도 협동농장 아동 음수 공급기 및 하수구 시설 재건	689,750[1]	689,750	0
DWHH/GAA	A13	황해남도 지역의 겨울밀 종자 관리 및 종식 개선	188,857[1]	188,857	0
		소 계(NGOs)	4,373,135	3,847,992	525,143
총 계			246,837,771	219,785,984	27,051,787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4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활동분야별 1)

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지원요청액(달러)	조성금액(달러)	부족액(달러)
농업(Agriculture) 및 식량					
UNDP	A01	고구마 건분을 이용한 국수생산 지원	350,000	0	350,000
	A02	재해경감을 위한 재조림사업 지원	1,110,000	0	1,110,000
	A03	재해경감 및 대비 지원	300,000	0	300,000
FAO/UNDP	A04	2모작 프로그램 지원(봄작물과 주요 작물)	4,529,500	737,715	3,791,785
	A05	2모작 프로그램 지원(겨울작물과 주요 작물)	350,344 1)	350,344	0
	A06	주요작물인 감자생산 지원	0	0	0
	A07	토양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 비료사용 개선	0	0	0
	A08	토지사용권 관리	51,980	0	51,980
		소 계(UNDP FAO/UNDP)	9,844,921	1,088,059	5,603,765
WFP	F01	취약계층 긴급지원(EMOP 5959.01)	215,847,993 1)	206,103,659	9,744,334
	F02	지역 식량생산을 위한 특별사업	879,755 1)	3,610	876,145
	F03	취로사업을 위한 특별사업			
	F04	항만운영을 위한 특별사업			
		소 계(WFP)	216,727,748	206,107,269	10,620,479
CAD	A09	함경남도 식량생산 지원	0	0	0
	A10	함경남도 지역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0	0	0
CONCERN	A11	가축회복 지원	0	0	0
	A12	환경보호 및 복구	200,000	200,000	0
DWHH/GAA	A13	황해남도 지역의 경작된 농지 관리 및 곡식 개선	188,857 1)	188,857	0
TGH	A14	평안남도 산림과 환경보호	48,101	48,101	0
		소 계(NGOs)	436,958	436,958	0
		합 계	217,164,706	206,544,227	10,620,479
건강(Health)					
UNICEF	H01	영양실조 및 미량 영양소 결핍 방지	1,564,500	1,039,941	524,559
	H02	산모와 아기 건강	1,092,000	247,497	844,503
	H03A	필수 의약품	3,790,500	1,634,481	2,156,019
	H04A	예방접종과 소아마비 근절	2,220,750	657,842	1,562,908
WHO	H03B	필수 의약품	675,000 1)	0	675,000
	H04B	예방접종과 소아마비 근절	1,747,000	353,000	1,394,000
	H05	보건서비스 강화	2,255,000	474,243	1,780,757
	H06	학질, HIV/AIDS 및 계절병 관리강화	1,630,000	676,437	953,563
	H07	결핵 관리	400,000 1)	400,000	0
	WHO	미결정 배분액	0	971,604	-971,604
UNFPA	H08	가족계획(RH/FP) 서비스	477,000	0	477,000
	H09	이동 산부인과 서비스	335,000	0	336,000
	H10	HIV/AIDS 인식과 예방을 위한 지원	189,000	0	189,000
CHGH	H11	강원도 통합 보건 및 영양계획	650,000	0	650,000
CESVI	H12	강원도 어린이에게 겨울 구호물자 지급	250,000	250,000	0
CAD	H13	함경도 지방 여성건강 지원	0 1)	0	0
	H15	함경도 지방 어린이 겨울 지원	0 1)	0	0
HI B	H14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정형외과 서비스	0 1)	0	0
		합 계	17,833,177	7,251,472	10,571,705
식수와 위생(Water and Sanitation)					
UNICEF	WS01	식수와 환경위생	1,176,000	1,356,687	180,687
UNICEF	UNICEF	여러가지	0	0	0
CAD	WS02	함경남도 수인성 질병 예방	0 1)	0	0
CONCERN	WS03	농촌 지역 용수공급 개선	890,000 1)	890,000	0
CESVI	WS04	강원도 영동 3개지역의 수인성질병 예방	900,000	1,024,857	-124,857
TGH	WS05	평안남도 협동농장 이동 용수 공급기 및 하수구 시설 개선	689,750 1)	689,750	0
		합 계	3,655,750	3,961,294	-305,544
교육(Education)					
UNICEF	E01	기초교육	530,250	328,294	201,956
		합 계	530,250	328,294	201,956
조정업무(Coordination)					
OCHA	CSS01	2002년도 대북지원 프로그램의 조정업무	362,064	412,816	-50,752
	CSS02	NGO 기금체계	600,000	189,822	410,178
		합 계	962,064	602,638	359,426
		총 계	246,857,771	219,785,985	62,226,786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주: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5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활동분야별 2)

분야/지원국가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액(달러)
농업(Agriculture)			
핀란드	FAO/UNDP	DPRK-02/A04	263,460
노르웨이	FAO/UNDP	DPRK-02/A05	350,344
Private/NGO/Int	TGH	DPRK-02/A14	16,410
Private/NGO/Int	TGH	DPRK-02/A14	31,691
스웨덴	FAO/UNDP	DPRK-02/A04	474,255
스웨덴	CONCERN	DPRK-02/A12	200,000
스웨덴	DWH/GAA	DPRK-02/A13	188,857
소 계			1,525,017
조정 및 지원 서비스(Coordination and Support Service)			
노르웨이	OCHA	DPRK-02/CSS01	222,994
스웨덴	OCHA	DPRK-02/CSS01	189,822
스웨덴	OCHA	DPRK-02/CSS02	189,822
소 계			602,638
교육(Education)			
스웨덴	UNICEF	DPRK-02/E01	104,574
노르웨이	UNICEF	DPRK-02/E01	223,720
소 계			328,294
식량(Food)			
호 주	WFP	DPRK-02/F01	282,645
호 주	WFP	DPRK-02/F01	2,826,456
캐나다	WFP	DPRK-02/F01	1,740,036
캐나다	WFP	DPRK-02/F01	312,943
쿠 바	WFP	DPRK-02/F01	200,230
덴마크	WFP	DPRK-02/F01	528,401
유럽집행위원회	WFP	DPRK-02/F01	4,885,278
핀란드	WFP	DPRK-02/F01	174,978
독 일	WFP	DPRK-02/F01	1,353,792
일 본	WFP	DPRK-02/F01	1,000
일 본	WFP	DPRK-02/F01	1,159
한 국	WFP	DPRK-02/F01	15,563,086
룩셈부르크	WFP	DPRK-02/F01	444,941
뉴질랜드	WFP	DPRK-02/F01	51,219
Private/NGO/Intl	WFP	DPRK-02/F01	35,612
Private/NGO/Intl	WFP	DPRK-02/F01	2,081
이 월	WFP	DPRK-02/F01	99,319,880
Private/NGO/Intl	WFP	DPRK-02/F01	14,914,369
미 국	WFP	DPRK-02/F01	10,340
미 국	WFP	DPRK-02/F01	39,717,858
미 국	WFP	DPRK-02/F01	15,434
미 국	WFP	DPRK-02/F02;F03;F04	3,610
미 국	WFP	DPRK-02/F01	23,633,992
미 국	WFP	DPRK-02/F01	74,899
미 국	WFP	DPRK-02/F01	13,030
소 계			206,107,269

표 5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활동분야별 2)(계속)

분야/지원국가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액(달러)
보건(Health)			
호주	UNICEF	DPRK-02/H01	282,485
캐나다	WHO	DPRK-02/H07	400,000
덴마크	UNICEF	DPRK-02/H03A	104,998
덴마크	UNICEF	DPRK-02/H02	157,497
덴마크	UNICEF	DPRK-02/H04A	104,998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2/H01	638,904
유럽집행위원회	HIB	DPRK-02/H14	441,609
유럽집행위원회	CESVI	DPRK-02/H12	250,000
핀란드	UNICEF	DPRK-02/H03A	157,480
핀란드	UNICEF	DPRK-02/H04A	104,987
한국	WHO	DPRK-02/H06	30,000
한국	WHO	DPRK-02/H06	26,437
한국	WHO	DPRK-02/H06	620,000
룩셈부르크	HIB	DPRK-02/H14	114,818
노르웨이	WHO	DPRK-02/H05	373,701
노르웨이	WHO	DPRK-02/WHO	410,400
노르웨이	WHO	DPRK-02/WHO	178,004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1	13,978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2	90,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3A	105,000
Private/NGO/Intl	WHO	DPRK-02/H05	94,842
Private/NGO/Intl	WHO	DPRK-02/H04B	353,000
Private/NGO/Intl	WHO	DPRK-02/H05	5,7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4A	105,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3A	12,816
스웨덴	UNICEF	DPRK-02/H01	104,574
스웨덴	WHO	DPRK-02/WHO	383,200
스웨덴	UNICEF	DPRK-02/H03A	259,902
영국	UNICEF	DPRK-02/H04A	342,857
영국	UNICEF	DPRK-02/H03A	994,285
소 계			7,261,472
식수 및 위생(Water and Sanitation)			
덴마크	UNICEF	DPRK-02/WS01	137,547
유럽집행위원회	CESVI	DPRK-02/WS04	836,000
유럽집행위원회	CONCERN	DPRK-02/WS03	890,000
유럽집행위원회	TGH	DPRK-02/WS05	689,750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2/WS01	841,998
스웨덴	CESVI	DPRK-02/WS04	188,857
영국	UNICEF	DPRK-02/WS01	377,142
소 계			3,961,294
총 계			219,785,984

주: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6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식량지원)

지원국가	품 목	물량(톤)	금액(달러)
호 주	설탕	759	282,645
호 주	밀가루	11,569	2,826,456
쿠 바	여러가지	1,000	200,230
핀란드	두류	480	174,978
독 일	여러가지	2,879	1,353,792
일 본			1,159
일 본			1,000
한 국	옥수수	100,000	15,563,086
룩셈부르크	밀가루	2,000	444,941
Private/NGO/Intl			2,081
Private/NGO/Intl			35,612
이 월	여러가지		99,319,880
Private/NGO/Intl	여러가지	42,232	14,914,369
캐나다		n.a	312,943
캐나다	물고기/고기	1,000	1,740,036
덴마크	여러가지	918	528,401
유럽집행위원회	밀가루	22,963	4,885,278
뉴질랜드		n.a.	51,219
미 국		n.a.	74,899
미 국			10,340
미 국	여러가지	100,000	23,633,992
미 국	여러가지	55,090	39,717,859
미 국			15,434
미 국			13,030
합 계			206,103,659

주: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7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비식량 지원)

지원국가 및 단체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액(달러)
유럽집행위원회	CONCERN	DPRK-02/WS03	890,000
유럽집행위원회	TGH	DPRK-02/WS05	689,750
유럽집행위원회	CESVI	DPRK-02/WS04	836,000
유럽집행위원회	CESVI	DPRK-02/H12	250,000
유럽집행위원회	HIB	DPRK-02/H14	441,609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2/UNICEF	841,998
유럽집행위원회	UNICEF	DPRK-02/H01	638,904
호주	UNICEF	DPRK-02/H01	282,485
캐나다	WHO	DPRK-02/H07	400,000
덴마크	UNICEF	DPRK-02/H03A	104,998
덴마크	UNICEF	DPRK-02/WS01	137,547
덴마크	UNICEF	DPRK-02/H04A	104,998
덴마크	UNICEF	DPRK-02/H02	157,497
핀란드	FAO/UNDP	DPRK-02/A04	263,460
핀란드	UNICEF	DPRK-02/H03A	157,480
핀란드	UNICEF	DPRK-02/H04A	104,987
한국	WHO	DPRK-02/H06	30,000
한국	WHO	DPRK-02/H06	26,437
한국	WHO	DPRK-02/H06	620,000
룩셈부르크	HIB	DPRK-02/H14	114,818
노르웨이	UNICEF	DPRK-02/E01	223,720
노르웨이	OCHA	DPRK-02/CSS01	222,994
노르웨이	FAO/UNDP	DPRK-02/A05	350,344
노르웨이	WHO	DPRK-02/H05	373,701
노르웨이	WHO	DPRK-02/WHO	410,400
노르웨이	WHO	DPRK-02/WHO	178,004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2	90,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3A	105,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4A	105,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3A	12,816
Private/NGO/Intl	WHO	DPRK-02/H05	5,700
Private/NGO/Intl	TGH	DPRK-02/A14	16,410
Private/NGO/Intl	TGH	DPRK-02/A14	31,691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1	13,978
Private/NGO/Intl	WHO	DPRK-02/H04B	353,000
Private/NGO/Intl	WHO	DPRK-02/H05	94,842
스웨덴	OCHA	DPRK-02/CSS01	189,822
스웨덴	FAO/UNDP	DPRK-02/A04	474,255
스웨덴	UNICEF	DPRK-02/H03A	259,902
스웨덴	WHO	DPRK-02/WHO	383,200
스웨덴	UNICEF	DPRK-02/E01	104,574
스웨덴	UNICEF	DPRK-02/H01	104,574
스웨덴	OCHA	DPRK-02/CSS02	189,822
스웨덴	CONCERN	DPRK-02/A12	200,000
스웨덴	CESVI	DPRK-02/WS04	188,857
스웨덴	DWH/GAA	DPRK-02/A13	188,857
영국	UNICEF	DPRK-02/H04A	342,857
영국	UNICEF	DPRK-02/WS01	377,142
영국	UNICEF	DPRK-02/H03A	994,285
미국	WFP	DPRK-02/F02;F03;F04	3,610
합 계			13,682,325

주: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1. 유엔기구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

○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크게 감소한 결과 300만 명의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의 평양 소장이 밝힘. 식량지원 프로그램이 정상적이었을 때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 중 취약계층에 속하는 64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였음.

○ 세계식량계획은 현재의 식량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3년 1/4분기에 적어도 1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며 연간 5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중유 지원 중단으로 인한 전기의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함으로써 이미 50,000톤에 달하는 혼합식량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음. 중유 50만 톤의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10%가 감소되기 때문에 공장가동률이 더욱 감소함으로써 향후 식량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AFP, Food crisis worsening in North Korea as fuel shipments suspended, 17 Noverber, 2002)*

2003년 유엔기구간 대북 합동호소

○ 북한에는 640만 명의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3년 한 해 동안 100만 톤 이상의 식량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390만 명의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적절한 식량과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질 저하, 특히 보건, 물, 위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

어 있음. 북한의 경제 회복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운 상황임.

○ 2002년 북한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조치를 취하였으며 남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미국과의 대화도 개시하였음. 인도적 지원 기관과 북한 사이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였던 통신 시설, 영양조사, 식량분배 감시 활동 등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아직도 접근 문제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

○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의 통합호소절차(CAP) 국가팀(Country Team)은 향후 2 ~ 3년 동안 ①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권리, 근로의욕을 자립적으로 충족시키도록 개선하고 ②미래의 경제 회복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다지고 능력을 배양하며 ③지역사회, 기관, 가족의 능력을 배양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이를 위해 2003년에는 총 2억 2,529억 달러의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함.

2003년 대북 지원 소요액

분 야	소 요 액	
	유엔기구	비정부기구
식량지원	197,166,595	-
보건 및 영양	14,554,350	2,457,000
물과 위생	2,509,500	1,945,000
교육	845,250	350,000
농업	4,066,000	820,000
조정 및 지원서비스	577,980	-
합 계	219,719,675	5,572,000
총 계 (유엔기구 및 비정부기구)		225,291,675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 19 Noverber, 2002)*

유엔아동기금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 지난 몇 달간 북한은 남북한 관계를 비롯한 국제 관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보였으나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는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인도적 지원계획에 대

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음.

○ 2002년 7월 1일부터 북한 당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 가운데는 식품, 교통, 전기 요금의 인상, 임금 인상,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환율 조정, 토지 이용에 관한 새로운 형태의 실험, 합작기업의 외국인 소유제도에 관한 자유화,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등이 있음.

○ 유엔아동기금은 북한 정부,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10월 7일부터 10월말에 걸쳐 7개 도와 3개 직할시의 6,000명에 대한 가구를 임의 추출하는 방식으로 영양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조사에는 접근 문제 때문에 강원도와 자강도가 제외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국제아동건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hild Health), 태국연구재단(Thailand Research Foundation), 북한의 관련 연구소 등지에서 분석을 완료한 후 2002년 12월에 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 2002년 동안 세계아동기금 직원들은 북한의 12개 시도를 방문하였으며 다른 유엔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206개 군 가운데 163개 군에 대해 접근이 허용됨. 2002년 10월 29일 현재 유엔아동기금이 대북 지원을 위하여 국제사회에 요청한 1,037억 달러 중에서 526억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목표의 51%를 달성하였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UNICEF, UNICEF Humanitarian Action: DPR Donor Update 19 Nov 2002, 19 Noverber, 2002)*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2002년 11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상황

○ 2002년 11월 동안 보육원, 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 임신부 및 수유부 등 서해안 지역의 30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가 지원을 없다면 빨라야 2003년 2월이 되어서야 식량 분배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식량계획은 2003년 초 식량이 분배된다고 하여도 지원 대상 인원은 계획의 절반 정도인 32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노르웨이 정부에서 266,000 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지원한 200,000 달러와 합쳐 지방 식품 생산활동을 위해 옥수수를 구입하였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곡물과 분유의 부족으로 2003년 초 지방의 식품 생산 활동은 중

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 2003년 1/4분기 동안 97,000톤(곡물 89,000톤)이 필요함.

○ CESVI는 ECHO의 지원금으로 강원도의 원산과 문천에 있는 보육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음. 이 프로젝트는 2002년 11월 1일 개시하여 5개월 동안 지속될 예정임. 이 프로젝트는 200명의 보육원생에게 요와 담뇨를 제공하고 12개 보육원의 보온 및 보건 개선을 위해 복구작업을 지원하는 것임.

○ 유엔아동기금은 세계식량계획 및 북한 정부와 함께 북한 가구에 대한 영양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자료를 분석중임. 또한 유엔아동기금은 2002년 11월 20일 제2회 전국 어린이보건일을 맞아 전국에 있는 250만 명의 어린이에게 소아마비 백신, 비타민 A, 구충제를 제공하였음. 겨울철을 맞아 량강도의 200개 리와 13개의 병원, 함경북도의 350개 리와 21개 병원에 2002년도 마지막 의약품 킷트를 나누어 줌. 유엔아동기금은 2003년도에는 가용 재원의 85%를 량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4개 도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Bulletin Nov 2002, 30 Noverber, 2002)*

세계식량계획의 2003년 대북 식량 지원계획

○ 2억 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식량계획의 2003년 대북 긴급식량지원계획이 2002년 12월 2일 승인되었음. 이 계획은 연간 640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512,000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의 611,000톤에 비해 감소한 것임. 그러나 2002년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실제 분배한 식량은 430,000톤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세계식량계획의 2003년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의하면 1인당 1일 평균 배급량은 270g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최소필요영양분의 45%에 불과한 것임.

○ 세계식량계획의 2003년 식량지원사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배급제도의 혜택을 받기 곤란한 도시지역의 주민을 일차 목표로 삼고 있음. 또한 주된 수혜자는 6개월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임신부 및 수유부, 노인, 자연재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임.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 이외에도 취로사업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에 의해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계획도 갖고 있음. 특히 국제지원단체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43개 군에는 북한 전체 인구의 13%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WFP는

북한 당국에 제한을 완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북한의 계속되는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방에서 벼 도정공장이 문을 닫고 있으며 어린이 수용 시설에 난방이 되지 않는 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대부분의 보육원에서는 난방 문제 때문에 1개 또는 2개의 방에만 난방을 하고 있어 어린들의 활동에 매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하루에 1끼 정도의 식사만 제공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이 심각함.

○ 북한의 공공분배센터에서는 10월과 마찬가지로 11월에도 대부분의 지방에서 1인당 1일 300g의 식량밖에 분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공공분배센터는 겨울철 부식으로 이용할 김치도 배급하고 있는데 지방의 채소 생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1인당 평균 70-90kg의 김치를 나누어주었음.

○ 2002년 11월 24-25일 양일 동안 중국의 북경에서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중개단(FALU)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홍콩 Caritas, 캐나다곡물은행(CFGB), ACT(Action by Churches Together), 월드비전(World Vision)의 4개 기관이 모여 2003년에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함. 홍콩 Caritas는 캐나다곡물은행과 협력하여 2,200톤의 쌀을 강원, 황해남북도, 량강도의 유치원생에게 지원키로 함. ACT와 Church World Service는 동해안 지역의 WFP 수혜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150,000 달러 상당의 밀가루를 구입할 계획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Bulletin Nov 2002, 30 Noverber, 2002; WFP, WFP seeks strong backing for new aid initiative in North Korea, 3 Dec. 2002; WFP, WFP Emergency Report No. 49 of 2002, 6 Dec. 2002)*

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2003년 제1호)

○ 최근 WFP DPRK 10141.1에 대해 950만 유로를 지원한 것은 2003년 2월까지 세계식량계획 의 지원창구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직도 2003년 1/4분기 동안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인 450만 명중에서 290만 명에게 식량을 분배할 수 없게 될 것임. 이들 290만 명중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 200만 명, 13만 명의 임신부 및 수유부, 55만 명의 노인, 소아병원의 225,000명 등

이 포함되어 있음. 세계식량계획은 2003년 1월말까지 모든 취로사업과 지방의 식량 생산공장을 가동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옥수수와 벼의 탈곡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15-20% 가량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겨울 채소 수확 결과 평안남도에서는 15% 가량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WFP, WFP Emergency Report No. 01 of 2003, 3 Jan., 2003)*

유엔기구에 의하면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

○ 유엔의 식량 관련 기구는 새로운 원조가 없다면 수 주 내 북한 주민에게 지원할 식량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함.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 동안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이 진행중인 33,000톤 이외에 추가로 80,000톤이 더 필요하며 새로운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할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힘.

○ 2003년 동안 북한에 2억 달러에 달하는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지원을 약속 받은 양은 유럽연합이 지원한 23,000톤과 이태리가 지원한 10,000톤이 전부임.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 사태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감소 또는 중단되면서 대북 식량 지원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원조국인 미국은 2002년 157,000톤의 식량을 지원한 이후 더 이상 식량을 지원하지 않았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Reuters, UN Agency says running out of food for N. Korea, 7 Jan., 2003;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WFP nees 80,000 tons of food aid for the most vulnuerable in DPR Korea over the next three months, 7 Jan. 2003)*

3.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석유수출기구(OPEC)는 용수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1,020만 달러를 북한에 융자

○ 석유수출기구 국제개발자금(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2002년 10월 29일 평안북도 관개체계 복구를 위하여 북한과 1,020만 달러의 대출 협정을 체결함.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며 연리 2%, 연체금에 대해서는 연리 1%의 수수료를 부과함.

○ 이 프로젝트는 농업생산과 에너지 공급 증대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북한의 농업 관개면적 중 80%는 전기로 작동되는 관개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에너지 부족은 식량생산의 불안정으로 나타남. 평안북도 관개체계는 약 100개의 협동농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협동농장의 평균 규모가 500ha라고 할 때 50,000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에는 삼교강에 650m의 댐을 건설하여 2억 7,500만 톤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저수지 상류 1,500m 지점에 배수탑을 건설하여 중력으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기존의 펌프에 의한 양수체계를 대체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50km의 기존 용수로를 복구하고 64km의 용수로를 새로 건설하여 기존 용수로와 서로 연결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총 사업기간은 3년 6개월이며 총사업비는 4,836만 달러임.

○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5,200만 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며 쌀과 옥수수의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농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키며 지역의 식량안보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PEC Fund extends US$10.2 million loan to Korea DPR in support of irrigation improvement project, 29 October, 2002)*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부터 북한에 총 4억 5,000만 달러를 지원

○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4억 5,049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이 중 정부 차원의 지원은 2억 7,698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였다고 통일부가 발표함.

○ 한국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연간 9,667만 달러로 1972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연평균 32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함. 이 기간 동안 한국 국민은 북한에 1인당 연간 2 달러를 지원한 셈임. 한국은 1995년 이후 북한에 총 7억 3,400만 달러의 쌀을 지원하였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JoongAng Ilbo, Support for North Korea about $450 million since 1998, 11 Noverber, 2002)*

유럽연합은 북한에 150만 달러 지원

○ 유럽연합 이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15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지원금은 북한의 보건체계 개선, 학교 및 공공시설 개선, 식량부족 경감에 사용될 것임.

○ 유럽연합 이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시도와 관련하여 당초 2003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지원키로 하였던 2,000만 달러를 유보하기로 결정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JoongAng Ilbo, EU to give $1.5 million inaid to North Korea, 13 Noverber, 2002)*

BWAid의 2002-2003년 대북 사업

○ 북한 당국은 Baptist World Aid가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허용함. BWAid는 2001년 1월과 2월 북한에 있는 3개의 고아원과 2개의 병원에 300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헝가리 BWAid와 BMS세계선교단과 협력하여 지원한 구호 물품의 분배와 감시를 위해 4명의 지원단을 파견하였음.

○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는 BWAid 지원단은 아직도 북한은 식량과 의복, 세탁기, X-ray 기계, 트랙터, 영사기, 기초 의약품, 종자, 화장품, 석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002-2003년에 100,000 달러를 지원할 목표를 세우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Baptist World Aid, BWAid 2002-2003 Projects: North Korea, 13 Noverber, 2002)*

유럽집행위원회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950만 유로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

○ 유럽집행위원회는 북한의 어린이와 임신부와 수유부 여성들에게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950만 유로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유럽집행위원회의 인도적 지원사무국인 ECHO를 통해 지원할 예정임. 지원되는 물품은 39,000톤의 곡물이며 취약 계층 2,173,000명(보육원 어린이 43%, 유치원생 21%, 초등학생 29%, 임신부 7%)에게 분배될 예정임.

○ ECHO는 지난 6년 동안 북한에 5,000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1,950만 유로를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음. 또한 ECHO는 2002년 식량 이외에 물과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졌음. 최근 북한의 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에도 불구하고 유럽집행위원회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European Commission-Humanitarian Aid Office(ECHO), North Korea: Commission grants EUR 9.5 million in emergency humanitarian food aid for children, 8 Jan., 2003)*

FHI(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은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나기 의류 제공

○ FHI는 금년 겨울 북한 주민들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따뜻한 의류와 담요를 제공함. 북한에 오랫동안 지원을 해온 FHI는 먼저 어린이 보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담요를 제공할 계획임. 세계식량계획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20%인 640만 명이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5세 이하의 어린이들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

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Blanks, clothing to help North Koreans survive the winter, 9 Jan., 2003)*

유진벨재단은 2003년에도 북한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인도적 지원 단체인 유진벨재단은 2003년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유진벨재단은 1995년부터 북한에 주로 의료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음. 유진벨재단은 현재 3년째 "Partner Package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60개 결핵 시설에 기초 의약품, 진단기구, 각종 지원품을 제공해왔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Eugene Bell Foundation, Eugene Bell Foundation to refocus and expand services to North Korea in 2003, 13 Jan., 2003)*

ISR은 북한에 인도적 개발 지원 제공

○ ISR(Intitute for Strategic Reconciliation)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에 대해 총 1,500만 달러에 이르는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제공하였음. 주된 지원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및 수유부, 장애자들임. 이러한 인도적 지원활동과는 별도로 ISR은 미국정부와 비정부기구, 국제원조단체 등을 대상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의 식량과 보건 문제를 설명하였음. ISR은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복구, 보건위기, 장기 발전계획, 에너지 복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한국의 학자나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세 번의 국제화해포럼을 개최하였음.

○ ISR은 2003-05년의 3년 동안 ①장애자, 환자,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보건 복구, ②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기술 교육, ③지속적 개발을 위해 여성에 대한 소규모 프로젝트을 지원할 계획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Institute for Strategic Reconciliation, Report on Phase*

1 of lSR Programs in North Korea, 17 Jan., 2003)

농 업 자 료

- 북한의 기상
- 금강산관광지구법
- 개성공업지구법

북한의 기상

기 온

○ 2002년 8월을 제외하고는 9월까지의 월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으나 10월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았음. 특히 11월의 북한 전역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3.7도나 낮은 쌀쌀한 날씨였음.

○ 2002년도 북한의 벼와 옥수수 등 가을 작물 작황이 비교적 좋았던 것은 생육기간 동안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음.

강수량

○ 10월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10 ~ 12월의 누적강수량은 117.7mm로 평년에 비해 다소 높았음. 특히 신포지역은 3개월 동안 670mm의 비가 내려 평년의 7배였으며 중강, 강계, 수풍, 신의주, 함흥, 안주, 원산, 장전 지역의 3개월 평균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많았음. 그러나 선봉, 남포, 사리원, 용연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겨울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은 가뭄 피해가 예상됨.

○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1 ~ 9월까지의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67.1%로 2002년은 대체로 비가 적게 내렸다고 할 수 있음. 청진을 제외하고는 1 ~ 9월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을 밑돌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8월 초의 집중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수해를 입었음. 원산, 장전, 개성 지역은 7 ~ 8월의 집중 강우로 인하여 1 ~ 9월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90% 이상임. 중강, 풍산, 구성 지역은 1 ~ 9월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임.

○ 북한 전역의 1 ~ 12월 누적강수량도 평년의 72.2%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으며 중강, 구성, 희천 지역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강수량 면에서 보면 2002년은 평년에 비해 기상 여건이 작물생육에 불리하였다고 판단됨. 6월까지의 가뭄현상에도 불구하고 7 ~ 8월의 비교적 고른 강우는 작육생육

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 2002년에는 강원도, 황해남도, 평양, 개성, 평안북도, 함경북도 지방은 강풍과 해일, 폭우로 인해 일부 지방에서 피해를 입었음. 그러나 2002년에는 침수로 인한 벼농사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주요 곡창 지대인 황해남도와 평안남북도의 기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전체적인 작황이 좋았던 것으로 분석됨.

누적강수량, 10 ~ 12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19.8 (72.9)	90.1 (110.4)	58.1 (82.6)	79.0 (73.3)	45.0 (52.1)	112.2 (88.2)	37.5 (67.9)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104.9 (115.1)	184.5 (107.2)	43.8 (74.0)	184.4 (103.5)	106.7 (105.7)	96.7 (125.1)	155.0 (91.2)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687.1 (102.5)	125.1 (94.4)	88.6 (93.6)	207.9 (170.0)	95.3 (96.3)	17.5 (118.4)	346.4 (266.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28.7 (106.0)	69.3 (106.4)	20.2 (92.1)	44.4 (92.1)	51.3 (97.2)	77.6 (122.1)	

*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기온), mm(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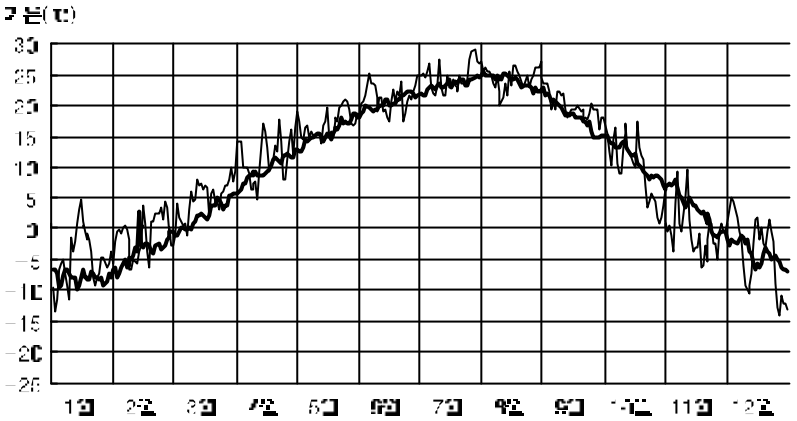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10월	기 온	9.7 (11.1)	10.5 (11.8)	11.5 (13.6)	9.4 (10.9)	10.6 (12.0)	11.1 (13.4)
	강수량	87.5 (41.2)	67.2 (43.3)	30.2 (36.0)	22.4 (30.4)	26.1 (40.1)	52.2 (66.3)
11월	기 온	-0.5 (3.3)	0.6 (4.1)	2.9 (6.1)	0.1 (3.5)	1.8 (4.7)	3.1 (6.6)
	강수량	12.5 (38.7)	11.1 (34.6)	10.0 (38.8)	28.6 (33.3)	36.0 (36.0)	21.4 (74.7)
12월	기 온	-4.2 (-4.0)	-3.0 (-3.1)	0.1 (-0.6)	-4.1 (-2.7)	-1.6 (-1.4)	-0.3 (0.6)
	강수량	25.1 (14.5)	17.0 (18.4)	4.2 (17.3)	7.1 (18.9)	92.9 (15.1)	134.3 (29.0)

*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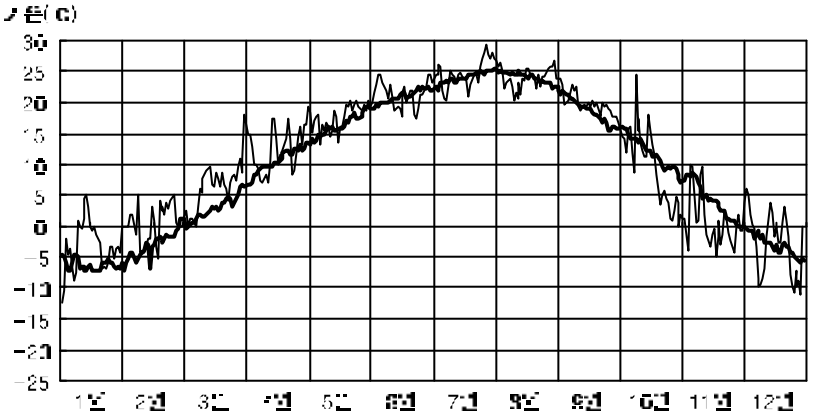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 ~ 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 ~ 1994년임.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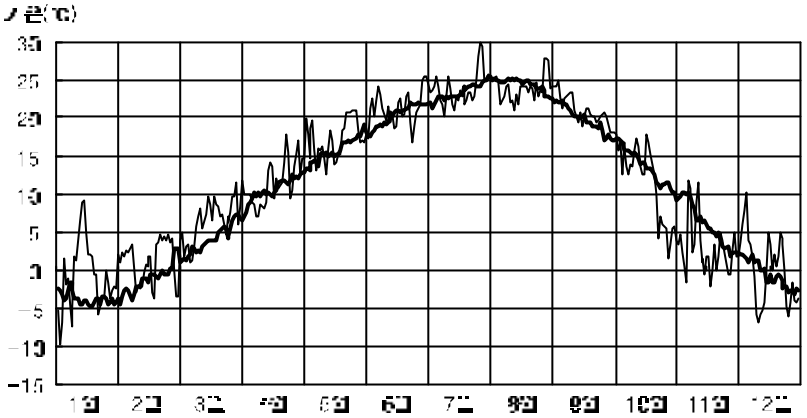
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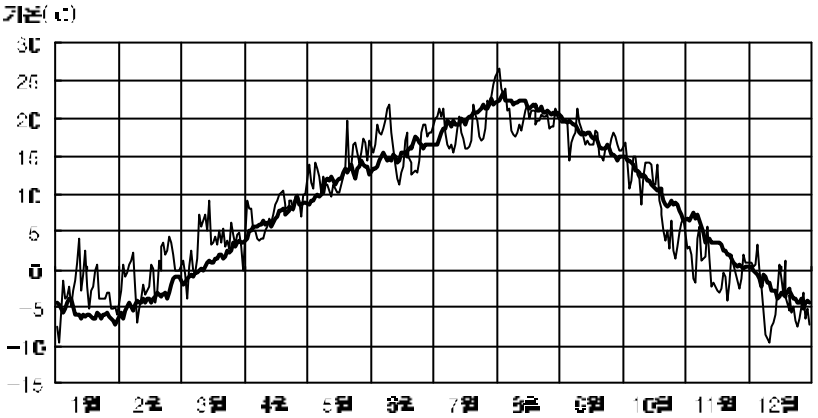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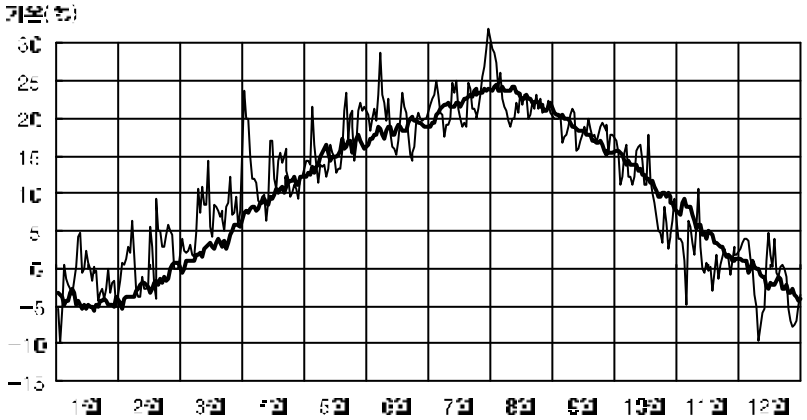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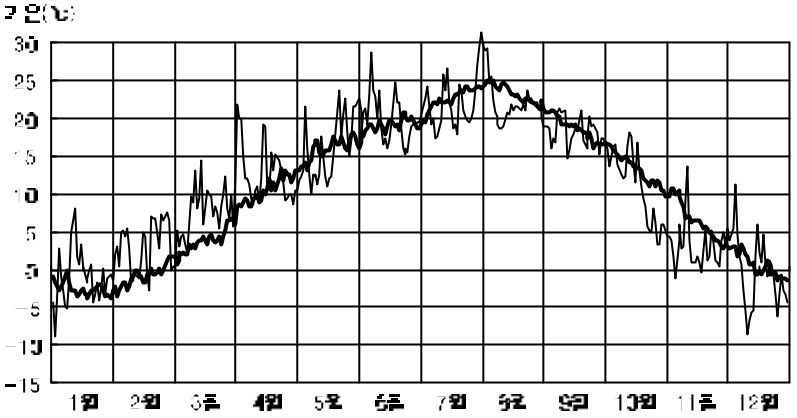
청진



함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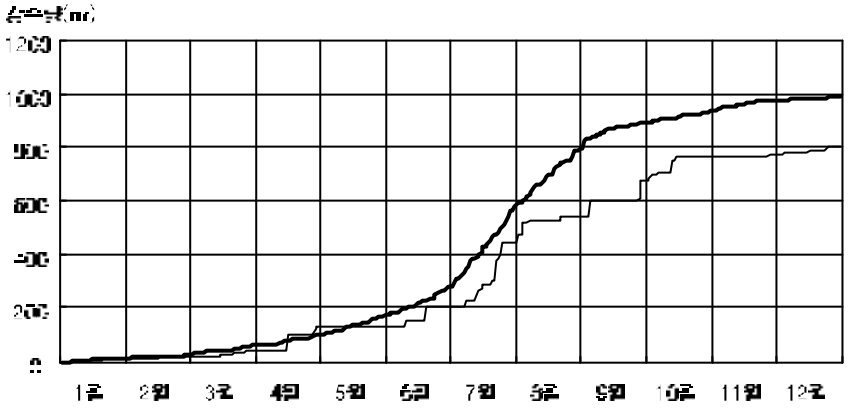


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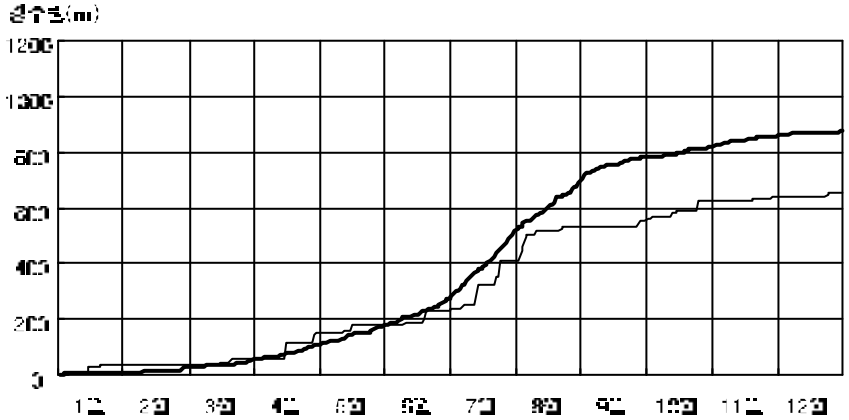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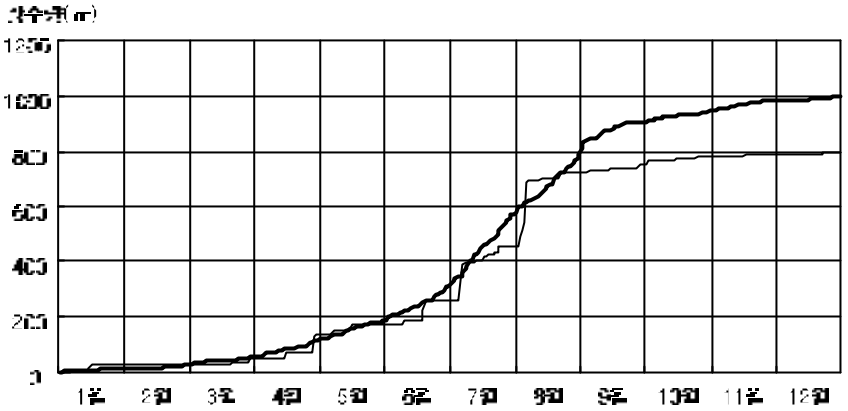
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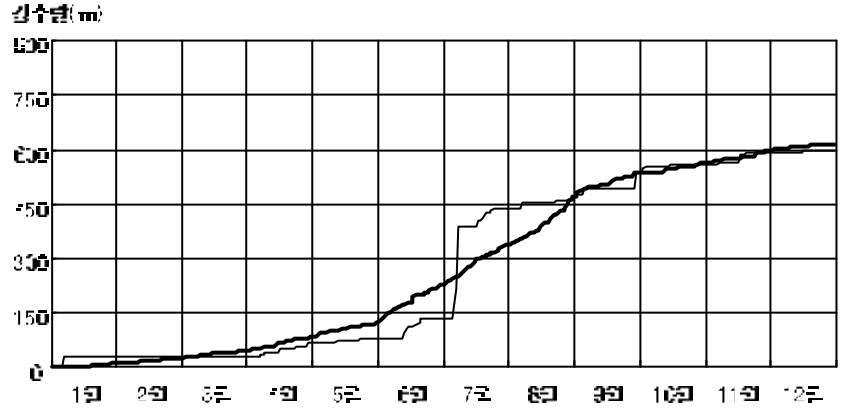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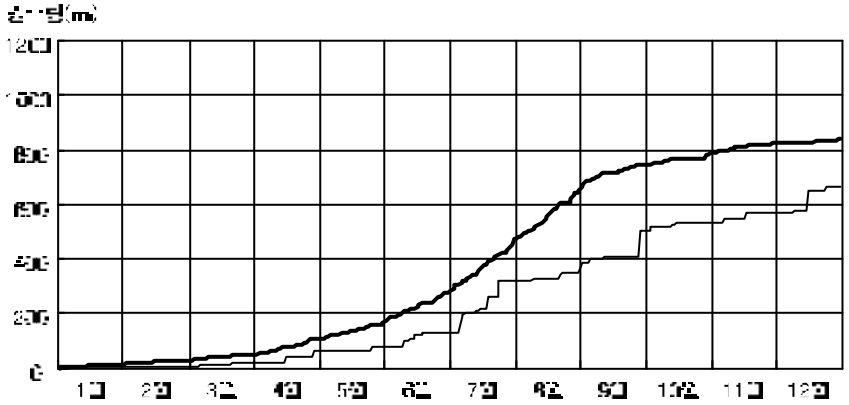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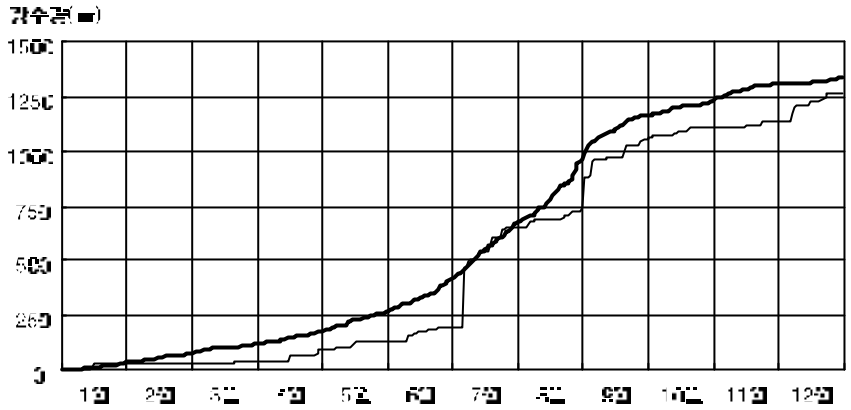
청진



함흥



원산



금강산관광지구법

제1조 금강산관광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한다.
외국인도 금강산관광을 할 수 있다.

제3조 관광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를 인식하고 등산과 해수욕, 휴양으로 건강을 증진하며 금강산을 유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관광지구에서 관광과 관광업, 그 밖의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관광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관광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지구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관리기관사업에 대한 지도

2. 관광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3. 대상건설설계문건의 합의
4. 관광지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5.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6. 관광지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제7조 관광지구의 개발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기관의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관광지구개발과 관광사업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 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 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구의 관리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도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13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계획의 작성
2.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관리
3. 관광선전과 관광객모집, 관광조직
4.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5. 토지리용권, 건물, 륜전기재의 등록
6. 관광지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
7. 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발급
9.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10. 관광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과 관련한 보고서제출
11. 이 밖에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지구에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버림물을 관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환경과 조건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지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2. 정해 진 확대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기, 록화촬영기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4. 독약, 마약, 방사성물질 같은 유해물질
5.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6.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록음록화물
7. 애완용이 아닌 짐승
8. 이 밖에 관광과 관련 없는 물건

제18조 관광객은 단독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자동차 같은 륜전기재를 리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사, 문예활동, 사진촬영, 록화촬영이나 투자상담, 무역계약체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제19조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정한 로정을 따라 관광하여야 한다.
2. 사회제도와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민족의 단합과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인쇄물, 그림, 록음록화물 같은 것을 류포시키지 말아야 한다.
4. 관광과 관련 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5.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6. 통신기재를 관광과 관련 없는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같은 관광자원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증명서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관광업을 할 수 있다.

관광업에는 려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것이 속한다.

소프트웨어 산업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제22조 관광지구에는 관광업과 그와 련관된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23조 관광지구에 투자하려는 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의 기업창설승인과 업종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 진 출자를 하고 관광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며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광지구에서는 정해 진 전환성 외화를 쓸 수 있다.

전환성 외화의 종류와 기준 화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관광지구에서 외화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제25조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관광지로 출입하는 질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하여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6조 관광지구의 출입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관광지구관리기관사이에 합의한 통로와 수송수단으로 한다.

관광객의 수송수단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때부터 관광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정해 진 관광표식기만을 게양한다.

제27조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관광객과 기타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관광지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 법을 어겨 관광지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

제29조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개성공업지구법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 보장 시설 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따라 투자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 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4.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합의
5.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6.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7.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8.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9. 이 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23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

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25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 밖에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 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 운영

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 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

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고 공업지구 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 특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 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장 분쟁해결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평양방송이 11월 27일 보도한 `개성공업지구법'(11.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채택) 전문